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539-01

인구학적 접근을 통한 보건·복지 정책 수요 예측 연구



보건복지부



아태인구연구원

인구학적 접근을 통한 보건·복지 정책 수요 예측 연구

아태인구연구원

연구책임자
아태인구연구원 김형석 원장

연구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승현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성호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하정화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부교수 이보라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조교수 고우림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조교수 김동하

연구보조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임예진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창숙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노혁진 박사과정

<목차>

요약	1
제 1 장 서론	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
제 2 절 연구 추진 체계 및 절차	10
제 2 장 정성적 연구	12
제 1 절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12
제 2 절 연구 결과	20
제 3 장 양적 연구 및 수요 예측	43
제 1 절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43
제 2 절 연구 결과	49
제 4 장 결론 및 제언	83
제 1 절 결론	83
제 2 절 제언	87
참고문헌	93
부록	

〈표 목차〉

〈표 1〉 포커스 그룹 조사 질문 목록	16
〈표 2〉 포커스 그룹 연구 참여자 모집 설계	18
〈표 3〉 포괄적 질적 분석 방법 정리	19
〈표 4〉 포커스 그룹 연구 참여자 인구학적 특성 정리	20
〈표 5〉 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량 기준)	50
〈표 6〉 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51
〈표 7〉 실물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량 기준)	53
〈표 8〉 실물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54
〈표 9〉 금융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량 기준)	56
〈표 10〉 금융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57
〈표 11〉 경상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량 기준)	59
〈표 12〉 경상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60
〈표 13〉 가처분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량 기준)	62
〈표 14〉 가처분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63
〈표 15〉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량 기준)	66
〈표 16〉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67

〈표 17〉 노후생활준비 여부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자산, 소득 재가공 X)	70
〈표 18〉 노후생활준비 여부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자산, 소득 재가공 O)	72
〈표 19〉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88
〈표 20〉 1인 가구의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량 기준)	90
〈표 21〉 1인 가구의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91

<그림 목차>

[그림 1] 활동적 노화 개념도	14
[그림 2] 활동적 노화 지표	15
[그림 3] 포괄적 질적 분석 방법 예시	19
[그림 4] 세대별 60~64 세 기준 가구 유형 분포	27
[그림 5] 2020-2035 년 베이비붐 1 세대 가구주의 주요 가구 추계 결과 (연도별 합계)	74
[그림 6] 2020-2035 년 베이비붐 1 세대 가구주의 주요 가구 추계 결과 (가구 유형별)	76
[그림 7] 2020-2035 년 베이비붐 1 세대 가구주의 주요 가구 가구지출의료비 예측 결과 (연도별 합계)	77
[그림 8] 2020-2035 년 베이비붐 1 세대 가구주의 주요 가구 가구지출의료비 예측 결과 (가구 유형별)	78
[그림 9] 2020-2035 년 베이비붐 1 세대 가구주의 주요 가구 가구지출의료비 예측 결과 (가정과 예측 비교)	80
[그림 10] 2020-2035 년 베이비붐 1 세대 가구주의 주요 가구 가구지출의료비 예측 결과 (가정과 예측의 차이 표시)	81
[그림 11] 세대별 60~64 세 기준 가구 유형 분포	85

요약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빠른 고령화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 고령 인구의 양적 증가는 베이비붐 1세대 중 1955년 출생 코호트가 만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본격화되었음
- 지금까지의 고령 인구(산업화 세대)와 새롭게 고령 인구가 편입하고 있는 베이비붐 1세대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베이비붐 1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령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김민정, 2015)
- 이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보건·복지 정책은 기존의 고령자와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1세대의 세대 특성 파악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고령 인구의 보건·복지 정책 수요 예측임
- 도출된 예측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보건·복지 정책으로는 수요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의 설계가 필요한지를 제언하고자 함

2. 정성적 연구

□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 정성적 연구 부분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의 성향 및 속성을 비교하고, 이로부터 향후 보건·복지 정책 수요의 방향 잡기를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활동적 노화 개념을 토대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는 활동적 노화 지표를 참고하여 조사 질문을 작성함
- 작성된 조사 질문에 의견을 듣기 위해 포커스 그룹(Focus Group) 조사를 진행함

□ 연구 결과

- 베이비붐 1세대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이전 세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준비까지 도모함
-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도록 하는 다른 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쉽게 용납하지 않음
-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자녀에게 손 벌리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베이비붐 1세대는 경제활동의 의미에 대해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도 더 다양함
- 취미/여가/사회활동에 있어서는 SNS를 활용하여 확대된 채널로써 참여를 계획하고, 배움에 대해 더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음
- 이들은 돌봄의 제공자인 동시에 미래 수요자로서 개인의 희생을 요하는 부양 방식보다는 (공공) 기관에서의 체계적인 부양에 대해 이전 세대보다 더 선호하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부터 마련해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통해 대비하고 있으나, 준비된 방식의 지속가능성이 자산 분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양적 연구 및 수요 예측

□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 양적 연구에서는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가구지출의료비, 노후생활준비 여부에 대해 세대별, 가구 유형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수요 예측에 활용될 가중치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이어서 수요 예측 부분에서는 베이비붐 1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 추계를 진행함

- 궁극적으로 베이비붐 1세대 보건·복지 정책 수요(가구지출의료비, 노후생활준비 여부)의 시점별 증가/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규모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연구 결과

-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가구지출의료비에 있어서 코호트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노후생활준비 여부에서는 코호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음
-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가구지출의료비에 있어서 가구 유형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코호트 효과와 마찬가지로 가구 유형별 차이 또한 노후생활준비 여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베이비붐 1세대의 보건·복지 정책 수요 예측치(가구지출의료비 예측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베이비붐 1세대에 산업화세대의 세대 특성을 투영하여 가구지출의료비를 산출하였을 때, 약 64조 원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4. 결론 및 제언

□ 양적 연구 및 수요 예측의 주요 결론

- 베이비붐 1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수는 본 연구에서 추계를 진행한 2035년까지는 물론,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임
- 다행인 점은, APC분석을 통해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해 코호트 효과가 연령 효과보다 더 크고 유의미함을 확인했다는 것임
- 이러한 배경에서 코호트 효과를 토대로 베이비붐 1세대의 가구지출의료비를 예측하였을 때, 이들이 산업화세대와 같은 성향을 지녔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가계지출의료비가 약 64조 원 정도 절감될 수 있음이 본 연구에서 밝혀짐

- 약 64조 원의 비용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1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코호트 성향이 최소한 공고히 유지되도록, 나아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붐 1세대의 코호트 성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보건·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베이비붐 1세대의 세대 특성 중 한 축을 차지하는 ‘자녀’를 베이비붐 1세대 관련 보건·복지 정책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질적 연구의 주요 결론

- 먼저, 베이비붐 1세대는 젊은 세대 못지않게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스스로가 진정한 노인이 되었다고 느낄 때, 자발적으로 복지를 개시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혹은 마치 청년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 마련되어 있는 청년 정책 중 원하는 혜택을 필요에 맞게 신청하여 수혜자가 되는 것처럼 베이비붐 1세대의 수요 관련 의사 역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함
- 다음으로, 베이비붐 1세대는 경제활동의 의미를 다양하게 인식하는 만큼 다양한 이유에서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음
- 베이비붐 1세대의 코호트 성향을 고려하면 경제적 보상에 대응되는 대체 가치를 활용하여 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고 보상을 지급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1세대는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 수요를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베이비붐 1세대가 젊은 시절부터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을 접했다는 세대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전까지의 고령 인구와는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베이

비뭍 1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 정책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인구 변동에 따른 보건·복지 정책 수요자의 급격한 고령화

- 빠른 고령화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 게다가 2017년 보건의료 저널 Lancet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덴마크,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한 35개 산업화 국가 중 2030년경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Kontis, 2017)
- 해당 연구에서는 2030년경 한국 여성은 약 90세, 한국 남성은 약 85세에 기대 수명이 근접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65세의 기대 수명은 높아지고 70세 이전 사망 확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함
- 최근 통계청에서도 고위 추계의 사망 가정을 2030년에 여성은 90.1세, 남성은 85.1세로 설정하였음
- 통계청의 중위 가정 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은 2030년에 25.5%, 2040년에 34.4%,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1세대, 2세대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되는 2050년에 40.1%가 될 예정임
- 한편 고령 인구의 양적 증가는 베이비붐 1세대 중 1955년 출생 코호트가 만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본격화되었음

□ 가구 및 세대 변동에 따른 고령자의 급격한 특성 변화

- 하지만 지금까지의 고령 인구(산업화 세대)와 새롭게 고령 인구가 편입할 베이비붐 1세대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베이비붐 1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령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김민정, 2015)

-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고령 인구가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보건·복지 정책은 기존의 고령자와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함
- 예컨대 2022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57년까지 태어난 인구 집단으로 대부분이 산업화 세대(1945~1954년 출생)이나, 2032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67년까지 태어난 인구 집단으로 베이비붐 1세대(1955~1964년 출생)가 대부분을 차지할 예정임
- 이 두 세대는 한국 전쟁을 경험했는지부터 시작하여 젊은 시절 겪어온 생애 주요 사건이 서로 다르기에 이후에도 매우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왔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세대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정책의 수요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임
- 이들이 고령 인구가 될 때까지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온 만큼, 특정 연령대가 되었을 때의 삶의 모습도 매우 상이할 수 있음
- 이러한 모습은 소비 시장에서 이미 다수 관측된 바 있음
-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와 롯데멤버스가 L-Point의 리테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 1세대의 경우 은퇴 이후에도 제2의 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55%였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비중은 12.3%에 그쳤음(2020 Trend Pick)
- 나아가 이 세대의 70.5%는 70세까지 경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답을 하였으며, 74세까지 일을 하겠다는 비율도 22.8%였음
- 이들은 최근 그 규모가 커진 H&B(Health & Beauty) 시장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소비하는 품목 또한 이들의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처럼 소비 행태가 자녀 세대와 유사할 만큼 자녀와 매우 가깝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에게 부양의 짐이 되지 않고 싶어

하는 세대이기에 이들의 보건학적 행태와 복지 수요는 이전 세대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 연구의 한계

- 지금까지 보건·복지 정책 수요 관련 연구는 고령 인구 집단의 규모와 그들의 지역별 분포를 토대로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음(김윤수·문상호, 2006; 민연경·이명석, 2012; 최은희·조택희, 2020)
- 사회복지 공동 학술 대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지역별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 분석)에서 언급된 선행 연구들에서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각종 시설 현원 등 ‘고령 인구 대비 시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지금까지의 보건·복지 정책 수요 관련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증가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 기관의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할지를 제시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보건·복지 인력이 부족하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 등을 결과로 제시해 왔음(배승종·김대식;2019)
- 물론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형평성 관점의 연구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시점에서 보건·복지 서비스 체제 개편에 대한 비용 효과 분석(CEA) 및 비용 편익 분석(CBA)의 경제성 평가 기반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약자인 고령 인구가 부득이하게라도 소외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을 둠
- 따라서 이러한 연구도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기반 연구의 한 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구를 단순히 ‘총수(數)’로만 고려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견지이며, 인구학자들은 이를 오랫동안 제기해 옴

- 인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구에는 총수(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령/코호트/세대/가구 유형/거주 지역 등이 있고,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특정 인구 집단의 성격과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수를 추정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음
- 이러한 인구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는 고령 인구의 가구 유형별 보건·복지 특성 차이에 대해 밝히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음
- 일례로, 고령 인구를 포함한 중장년층 이상 인구 집단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정도는 가구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의 많은 부분이 성별, 혼인 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로 설명됨을 확인한 연구가 있음(Hu et al., 2019)
- 한편, 고령 인구의 정신적/신체적 기능 저하 정도에도 가구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보건·복지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 가구 유형에 대한 필수적인 고려를 촉구하기도 함(Imamura et al., 2020)
- 이러한 인구의 동태적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의 고령 인구는 지금까지의 고령 인구와 다른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65세 이후에는 인구 집단이 크게 네 가지 궤적(자발적 근로 지속, 자발적 근로 중단, 비자발적 퇴직, 사업체 운영)으로 나뉘는데, 앞으로 고령 인구의 수는 현 베이비붐 1세대의 기여로 매우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집단 각각의 양적 규모도 커지게 됨(조영태, 2021)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양 서비스나 복지 시설의 개념 자체도 다르게 분화할 가능성이 충분함
- 네 가지 궤적별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만큼 각 집단 내에 알맞은 재화와 서비스가 발달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고령 인구의 삶이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렇듯 미래를 조망하고 정책 수요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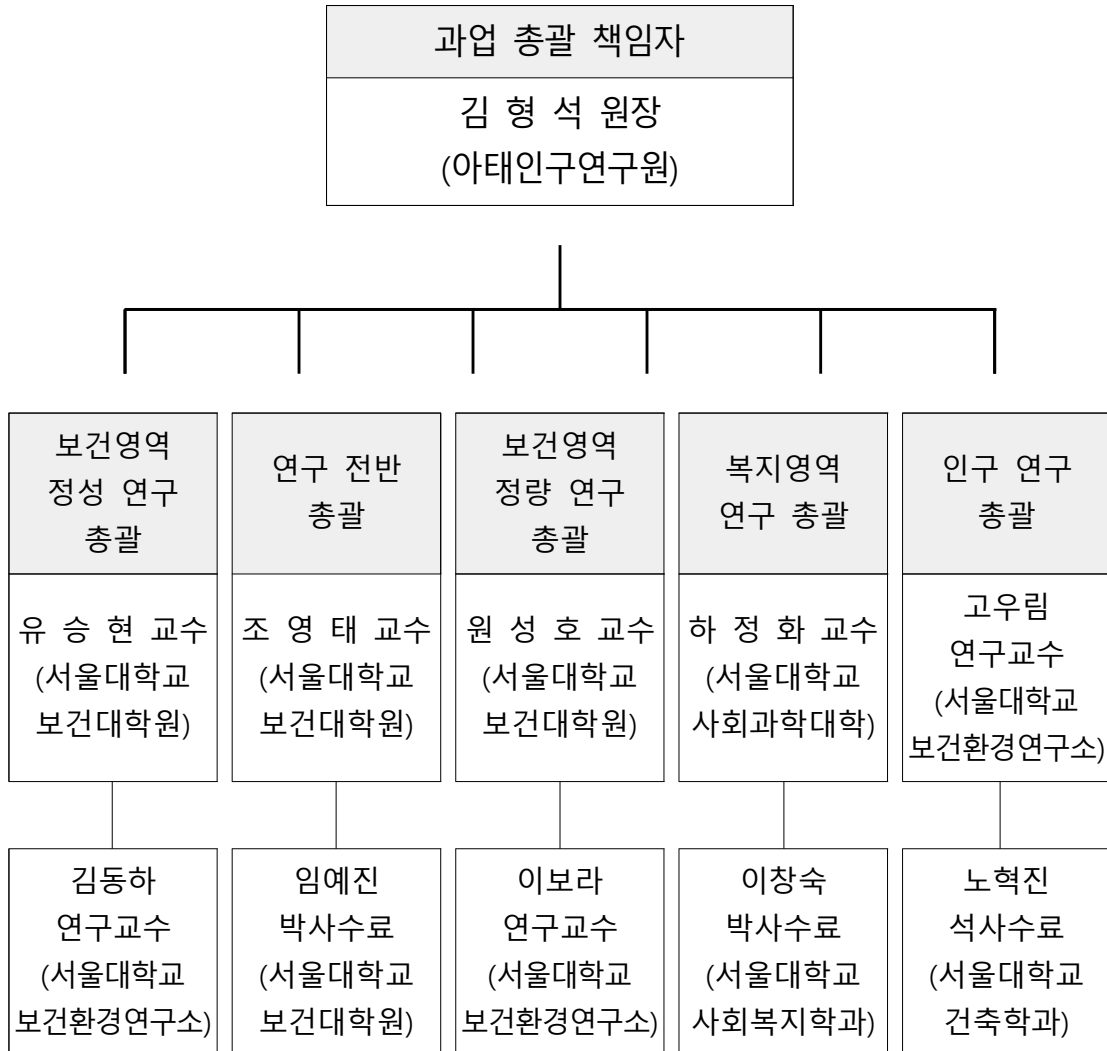
구의 규모뿐만 아니라 특성까지 고려되어야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1세대의 세대 특성 파악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고령 인구의 보건·복지 정책 수요 예측임. 도출된 예측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보건·복지 정책으로는 수요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의 설계가 필요한지를 제안하고자 함

제2절 연구 추진 체계 및 절차

1. 연구 추진 체계



2. 연구 추진 절차

- ☐ 연구 수행 기간: 2022년 8월~2023년 3월
- ☐ 착수보고: 2022년 8월
- ☐ 중간보고: 2022년 11월
- ☐ 최종보고: 2023년 3월
-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23년 3월

연구 내용	월별 추진 일정							
	8	9	10	11	12	1	2	3
착수보고								
인구/사회/보건/복지 프로파일링								
A-P-C 분석-프로파일링								
중간보고								
A-P-C 분석-수요 예측 가중치 도출								
가구 추계								
수요 예측								
포커스 그룹 준비								
포커스 그룹 조사								
포커스 그룹 결과 분석								
최종보고 및 제출								
추진진도 (%)	10	20	30	40	60	70	90	100

제2장 정성적 연구

제1절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1. 연구 목적 및 질문

☐ 연구 목적

- 본 연구 내 정성적 연구 부분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의 성향 및 속성을 비교하고, 이로부터 향후 보건·복지 정책 수요의 방향 잡기를 목적으로 함

☐ 연구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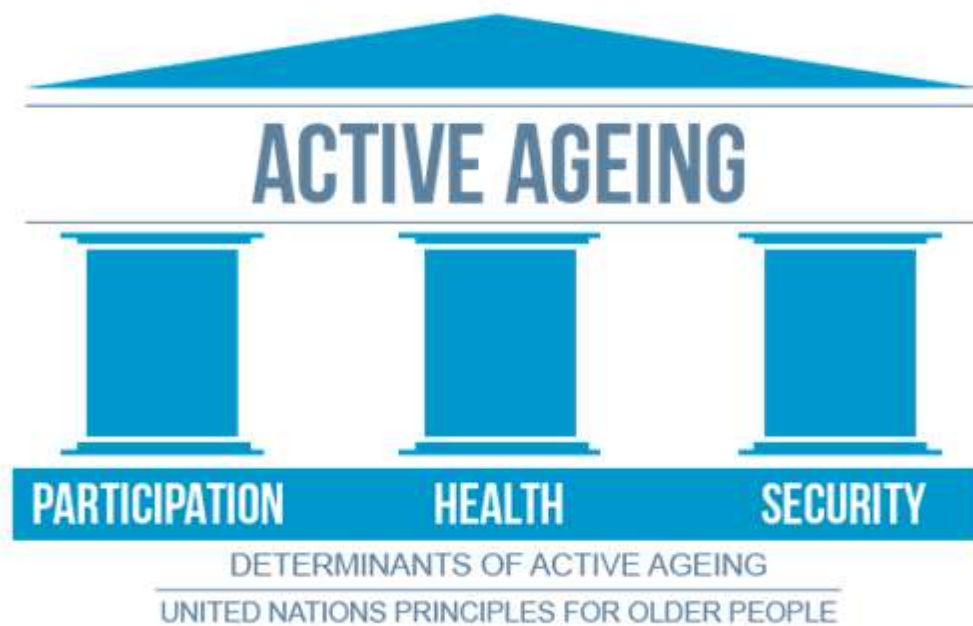
- 첫 번째,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는 ‘노후/노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두 번째, ‘활동적 노화’의 관점에서 두 세대는 어떠한 특징(공통점, 차이점)을 보이는가?
- 세 번째, 두 세대의 ‘활동적 노화’와 관련된 특징이 어떠한 보건·복지 정책 수요 성향을 만드는가?

2. 이론적 배경 및 조사 질문

☐ 활동적 노화

- 활동적 노화는 1990년대에 “Healthy Ageing”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발표되었음
- 이후 제 2차 고령화 세계 총회(UN, 2002)에서 “Active Ageing”으로 확장되어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됨
- 활동적 노화라는 개념은 “참여, 건강, 보장” 세 개의 축에 의해 지지되고 그 개념을 공고히 함
- 첫 번째로 “참여”는 사회·경제·문화·종교 등 모든 측면에서 노인의 참여를 촉구함
- 노인은 사회 모든 분야에 참여할 필요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데에 중심이 되는 개념이기도 함

- 여기서 “모든 분야”는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범위(봉사, 배움, 경제 활동 등)를 포괄함
- 다음으로 “건강”은 Active ageing의 전신인 Healthy Ageing에서부터 강조되어 왔던 요소임
- 건강을 토대로 개인이 더 오래, 더 잘 살 수 있음을 주장함
-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추구를 포괄하는 개념임
- 마지막으로 “보장”은 활동적 노화의 사회적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요소임
- 노인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신념을 토대로 사회·제도적, 재정적, 물리적·환경적 보장은 노인의 존엄성을 위협이라고 주장함
- 이처럼 노인의 삶을 폭 넓게 포괄하는 활동적 노화는 그림에 나타나있듯이 “건강”을 가장 중심으로 하여 구성됨
- 즉, “건강”이라는 축이 무너지는 경우 “참여”의 축과 “보장”의 축 모두가 온전해야 해당 개념이 보존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양쪽의 축 모두가 무너지더라도 중심에 위치한 “건강”의 축이 온전하다면 활동적 노화의 개념을 실현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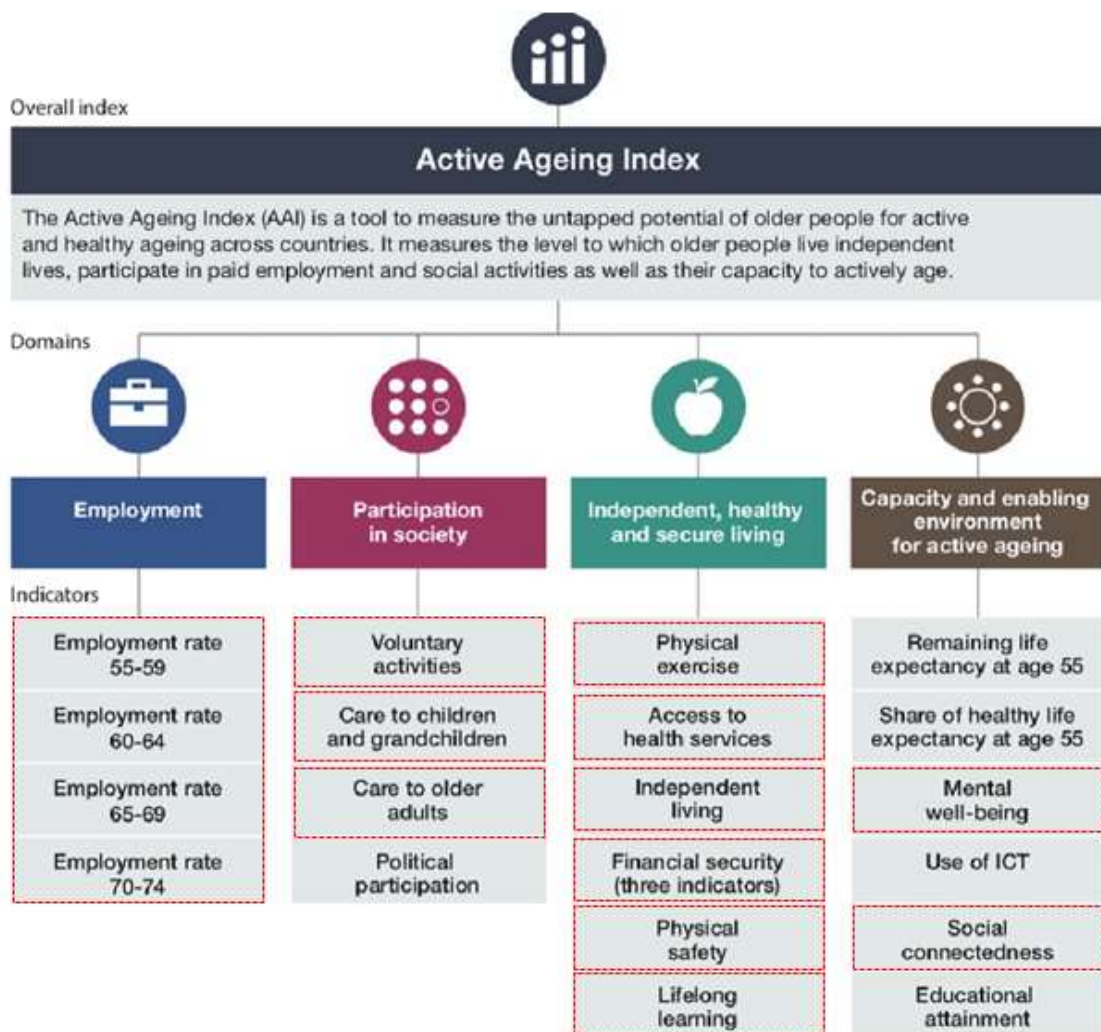


[그림 1] 활동적 노화 개념도

출처: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 조사 질문

- 본 연구에서는 활동적 노화 개념을 토대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는 활동적 노화 지표를 참고하여 조사 질문을 작성함
- 총 8개 분야의 21개 조사 질문으로 마련되었으며 자세한 조사 질문지는 부록에서 확인 가능함



Source: Zaidi and Stanton (2015), p13.

[그림 2] 활동적 노화 지표

<표 1> 포커스 그룹 조사 질문 목록

Part1 이상적인 노후 및 노후를 위한 계획	Q1 노후가 시작되는 연령
	Q2 이상적으로 그리는 노후의 삶
	Q3 노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Q4 노후를 위한 계획이나 준비
	Q5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
	Q6 향후 서울에 계속 거주할지 여부
Part2 노후를 위한 관리 및 계획 - 건강	Q7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 관리 방법
	Q8 치료/요양/간호에 대한 대처 경험(계획)
Part3 노후를 위한 관리 및 계획 - 재정	Q9 노후 대비 자금의 구성
	Q10 충분하다고 느끼는 정도
	Q11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의향
Part4 노후를 위한 관리 및 계획 - 여가	Q12 평소 즐기는 여가활동
	Q13 배우거나 시도해보고 싶은 여가활동
Part5 돌봄 경험 및 계획 - 부모님	Q14 부모님(시부모님, 장인/장모님) 돌봄 경험
	Q15 향후 돌봄 의향
	Q16 힘들었던 점/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Part6 돌봄 경험 및 계획 - 손자녀	Q17 손자녀 돌봄 경험
	Q18 향후 돌봄 의향
	Q19 힘들었던 점/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Part7 돌봄 경험 및 계획-자신/배우자	Q20 자신이나 배우자의 돌봄에 대한 계획
Part8	Q21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의견

3. 조사 설계

☐ 조사 방법

- 작성된 조사 질문에 의견을 듣기 위해 포커스 그룹(Focus Group) 조사를 진행함
- 포커스 그룹 조사는 6~10명의 연구 참여자로 구성된 그룹이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 의견,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방법임

- 이 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어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자료 수집 기간

- 자료 수집은 2023년 1월 26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로, 5일 동안 진행됨

□ 모집 경로

- 조사 업체 입소스 코리아의 도움을 받아 연구 참여자 모집이 이루어짐
- 입소스 코리아 내 연구 참여자 모집 전문 인력이 업체 내부 패널리스트를 토대로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유선 접촉을 시도함
- 이후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고 제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들로 연구 참여자를 구성하게 됨

□ 연구 참여자 선정 · 제외 기준

-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산업화세대(1945~1954년 출생) 및 베이비붐 1세대(1955~1964년 출생)임
- 각 세대별로 가구 유형, 자산 분위, 성별, 연령, 서울 내 거주지(자치구)를 고려하는 목적 표집 방법을 채택함
- 연구 참여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취약한연구대상자(의사소통의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유의자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자)인 경우 연구 참여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다음으로, 순자산과 거주 중인 주택의 가액이 순자산의 25% 이상 차이나는 경우 연구 참여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이는 금융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기 위함임

<표 2> 포커스 그룹 연구 참여자 모집 설계

세대	산업화세대		베이비붐1세대			
가구 유형	부부 가구		부부 가구		자녀 동거 가구	
순자산 분위	순자산 6분위	순자산 9분위 이상	순자산 6분위	순자산 9분위 이상	순자산 6분위	순자산 9분위 이상
총 10개 그룹	1개 그룹	1개 그룹	2개 그룹	2개 그룹	2개 그룹	2개 그룹
(총 61명)	(6명)	(6명)	(6명, 7명)	(6명, 6명)	(6명, 6명)	(6명, 6명)

6분위: 평균 약 2억 9천 이상 4억 1천 미만,
9분위 이상: 평균 약 8억 9천 이상

4. 분석 방법

☐ 포괄적 질적 분석

- 최종 전사본을 바탕으로 포괄적 질적 분석을 실시함
- 세부적인 분석 절차 및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본 연구에서는 분석 절차 4단계까지 진행하여 결과를 담고 있으며, 추후 논문 투고 과정에서 이후 단계까지 진행하여 결과를 담아낼 예정
- 분석 절차 4단계까지의 과정 동안 각 조사 그룹에서 특징적으로 떠오른 내용과 여러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내용을 코딩하고 갈래를 묶어 범주를 도출함
- 총 101개의 코드, 45개의 하위 범주, 24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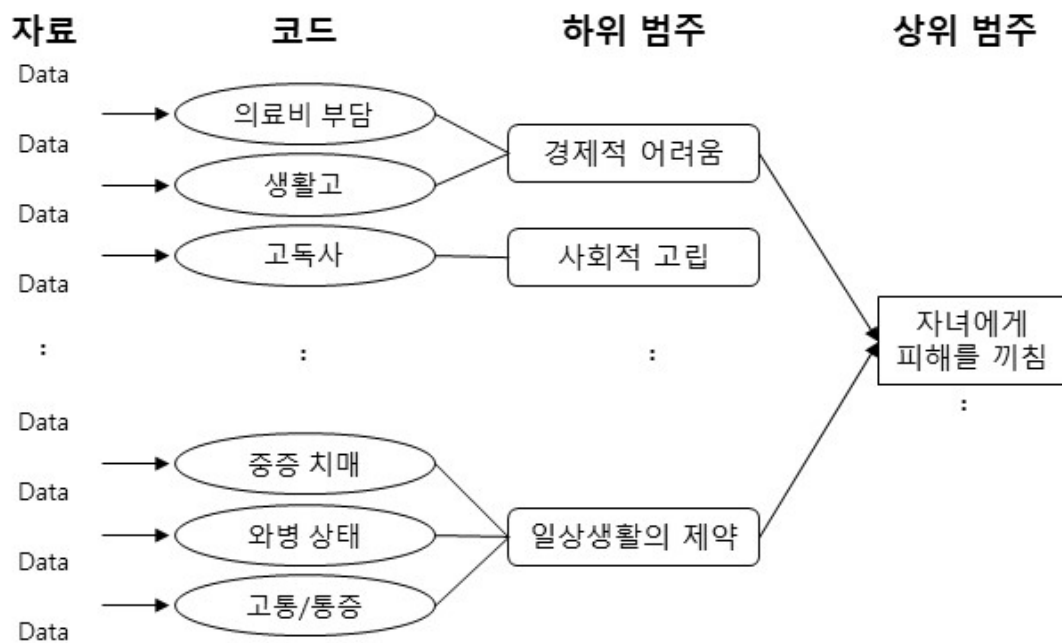
<표 3> 포괄적 질적 분석 방법 정리

단계	세부적인 분석 절차 및 내용
1단계	반복적인 자료 읽기/질적 자료 정리
2단계	분석적 메모 쓰기 (연구자의 통찰과 반영성)
3단계	1차 코딩 (코딩을 통한 코드와 범주의 초기 생성)
4단계	2차 코딩 (추가 코딩을 통한 새로운 코드와 범주의 관계 파악)
5단계	3차 코딩 (최종 코딩을 통한 범주의 통합 및 문화적 주제 발견)
6단계	연구 결과 재현 (시각적 모형, 이론, 명제, 그림, 표, 내러티브 등)

(이동성 & 김영천, 2014)

□ 분석 예시

- 다음은 베이비붐 1세대 조사 내용 분석 과정 중 “건강” 부분의 일부임



[그림 3] 포괄적 질적 분석 방법 예시

제2절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

- 본 연구에서는 총 61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성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의 자세한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 포커스 그룹 연구 참여자 인구학적 특성 정리

구분		산업화세대		베이비붐 1세대	
		N	%	N	%
전체		12명	100%	49명	100%
성	남자	7명	58%	22명	45%
	여자	5명	42%	27명	55%
평균 연령(표준편차)		72.1세 (±2.5세)		63.1세 (±2.5세)	
가구 유형	부부 가구	12명	100%	25명	51%
	자녀 동거 가구	.	.	24명	49%
순자산	6분위	6명	50%	25명	51%
	9분위 이상	6명	50%	24명	49%
주거지	동북권	4명	33%	16명	33%
	동남권	4명	33%	12명	24%
	서남권	1명	8%	15명	31%
	서북권	3명	25%	3명	6%
	도심권	.	.	3명	6%
경제 활동 여부	예	4명 (4가구)	33% (33%)	18 (26가구)	37% (53%)
	아니오	8명 (8가구)	67% (67%)	31 (23가구)	63% (47%)

2. 노후/노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의 인지

☐ 산업화세대

- 자신이 이제 막 노인이 되어 노후의 삶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

거나, 일부는 65세 정도부터 노인이 되어 현재까지 노후에 접어든 지 몇 년 되었다고 생각함

- 즉 ‘노인이 되었다’ 혹은 ‘노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연령이 산업화세대의 경우 65세부터 70세 사이에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정신 연령이라든가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자기가 이제는 좀 일하기가 조금 은퇴하고 싶다, 이러는 나이를... 70세로 보는 게 저로서는 참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세대_G2_라, 남성, 만 74세, 부부 가구, 6분위)

□ 베이비붐 1세대

- 주변에서 내가 노인이 되어 노후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는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노후를 보낸다고 생각하기에 아직 젊다고 느끼고 있음
- 이때 노인이 되었다고 알려주는 주변의 이야기로는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보건·복지 서비스의 공식적인 수혜자가 되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 조사 시점에 베이비붐 1세대가 만 59세에서 만 68세임을 고려하면, 이들이 ‘노인이 되었다’ 혹은 ‘노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연령이 최소 68세 이상인 것으로 해석됨
- 실제로 이들이 응답한 ‘노인’ 및 ‘노후’의 시작 연령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됨

“벌써 아버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을 느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젊은데... 60대분들이 많이 또 활동량이 많으니까 노후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베이비붐 1세대_G10_라, 남성, 만 62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65세가... 지하철 그런 것도 시작이 되고 모든 게, 60은 너무 이른 것 같고. 기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65세는 이제 노인에

접어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베이비붐 1세대_G3_다, 여성, 만 65세, 부부 가구, 9분위 이상)

3. 노후에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

- 노후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두 세대 간에 뚜렷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음
- 세대 구분과는 별개로 다음의 세 가지 의견 정도로 정리될 수 있었음
- 가장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의견은 노후에 건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음
- 이 외에는 경제적인 안정이 선행되어야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 건강은 노후에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는 입장이 순서대로 나타남

4. 건강 관련 걱정의 시작

□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

- 건강과 관련하여 걱정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에는 두 세대 간에 뚜렷한 차이점이 보이지 않았음
- 대부분 다양한 경로의 간접 경험을 통해 건강과 관련된 걱정이 시작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부모님 돌봄을 고민하게 되거나 돌봄을 수행하게 되면서, 주변 지인의 투병 경험을 알게 되면서, 뉴스/광고 등 미디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면서 등이 있음
- 일부는 과거 젊은 시절 앓았던 질병에 대한 경험으로 노후 건강 문제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음

5. 건강 관련 걱정

□ 산업화세대

- 산업화세대는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었음
- 구체적으로는 치료/수술비, 간병인 비용 등으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음
- 이런 걱정예 비해 국민건강보험 외의 준비는 대체로 안 되어 있었음
- 이 외에는 건강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못해 근로소득이 끊기게 되어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었음

“그게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죠.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병언가고 그러면 뭐 의사한테 맡기고 뭐 수술하게 되면 수술을 해야지 방법이 특별하게 몸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방법이 좀 없습니다.” (산업화세대_G2_라, 남성, 만 74세, 부부 가구, 6분위)

“저희도 보험은 안 들었어요...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산업화세대_G2_바, 여성, 만 75세, 부부 가구, 6분위)

□ 베이비붐 1세대

- 베이비붐 1세대는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자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었음
- 구체적으로는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자녀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경우, 중증 치매나 와병 상태가 되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손을 벌리게 되는 경우 등이 있었음
- 이처럼 베이비붐 1세대는 건강 문제로 인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녀에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을 자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가장 걱정하고 있었음

“자식들 애 안 먹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병이 나거나 해서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이제 치매 같

은 경우는 자식들 애 먹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베이비붐 1세대_G5_바, 여성, 만 65세, 부부 가구, 6분위)

“제 의식이 있는 한은 재가 서비스 받고 싶고요. 이제 의식이 없거나 혼자 정말 간병인도 어떻게 전문의가 필요할 때는 그냥 요양원 갈 거 같아요... 아이들한테 간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베이비붐 1세대_G10_가, 여성, 만 61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6. 건강을 위한 노후 대비 태도에서의 차이

□ 산업화세대

- 산업화세대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 이러한 태도로 인해 건강 혹은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세세한 준비를 해 놓았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 앞서 살펴본 ‘노후에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과 일부 맥락을 함께 하는 결과이며, 나아가 건강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막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한편, 산업화세대에서 이야기하는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WHO에서 이야기하는 건강의 정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사회적 건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음

“우리 때는 노후도 없이, 노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없는데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저녁에 이제 집에 오고 이렇게 해서. 글썄 이제는 이제 노후가 생각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한 건 없습니다. 다 이제 말씀대로 몸이 자꾸 늙어가니까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 (산업화세대_G2_나, 남성, 만 72세, 부부 가구, 6분위)

□ 베이비붐 1세대

- 베이비붐 1세대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놓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음
- 우선 경제적인 준비로 건강을 뒷받침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각종 민간 보험에 가입하기, 미래의 의료비에 대비한 적극적인 저축, 능동적인 건강 검진 수검 등이 있었음
- 이 외에는 정주여건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 건강에 무해한 환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도 나타났음
- 이처럼 베이비붐 1세대는 산업화세대와는 다르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 및 자세한 준비로까지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였음

“저도... 보험, 저희는 보험 혜택을 좀 본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갑자기 그냥 뼈가 골절이 해마다 돼 가지고 그걸로 혜택을 좀 봤었고. 그렇지 않으면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베이비붐 1세대_G9_바, 여성, 만 68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저는 건강을 생각하면 약간 서울을 떠나서 시골이 공기가 좋을수록 좋은데 또 노후에 너무 시골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병원도 좀 가까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골로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중간쯤...” (베이비붐 1세대_G5_다, 여성, 만 64세, 부부 가구, 6분위)

7. 건강관리를 위한 행동

□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

- 두 세대 모두 건강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크게 신체 활동, 식이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의료기관 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음

-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행동 내용은 세대 구분과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 하지만 행동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부 차이점이 나타남

□ 베이비붐 1세대

- 그 차이점은 바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영향임
- 우선 아래의 그래프에서 베이비붐 1세대는 산업화세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자녀와 함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인구학적 배경 속에서 부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행동에 자녀가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세대 간의 차이점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상대적으로 자녀와 동거 기간이 짧았던 산업화세대는 그만큼 함께 사는 자녀로부터 건강관리를 위한 행동에 영향을 덜 받았을 것이기 때문임
-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먼저 자녀는 부모가 주기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영양제 섭취, 식단 관리 등에 있어서도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접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음
- 이러한 자녀의 긍정적인 영향에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였는데 부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행동에 대해 여성 자녀의 참여도가 남성 자녀에 비해 더 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자녀로부터 다양한 방식의 건강관리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일 세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더 젊게, 노후와는 더 멀게 살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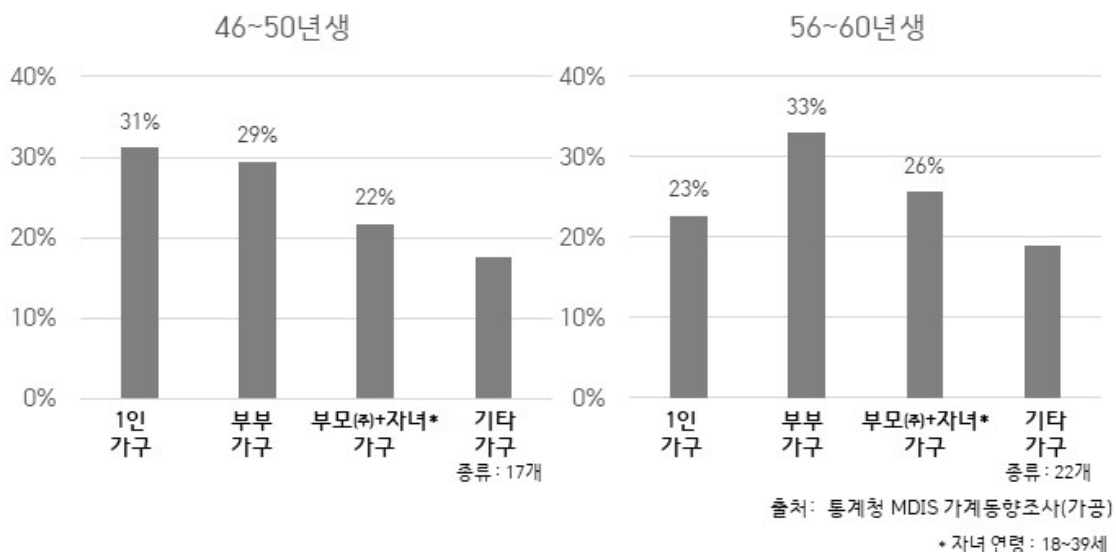
것으로 해석되었음

“기구 필라테스는 젊은 애들이 주로 한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어서 선뜻 등록을 못하니까 딸이... 1년권 그냥 일방적으로 등록해버렸어요. 정말 수업할 때마다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베이비붐 1세대_G7_다, 여성, 만 60세, 자녀 동거 가구, 9분위 이상)

“딸들이 저기 비타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사다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유산균 먹고 점심 때는 뭐 먹고. 너무 많이 먹으라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엄마 탄력도 있고 뭐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베이비붐 1세대_G8_나, 여성, 만 61세, 자녀 동거 가구, 9분위 이상)

“50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수술도... 그 뒤로는 아들이 더 신경을 쓰는데... 걷기. 9988도 신청해가지고 하고 이제 아들이 더 신경을...” (베이비붐 1세대_G9_다, 여성, 만 68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60~64세를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그림 4] 세대별 60~64세 기준 가구 유형 분포

8. 사회 참여 중 경제활동

□ 산업화세대

- 경제활동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는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음
- 산업화세대는 경제활동을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 일자리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음
-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보상을 그 이유로 꼽았음
- 하지만 그에 앞서 산업화세대 대부분은 여러 가지 출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족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기 보다는 소득에 맞추어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남

“쓰기 나름인데 뭐 과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죠. 이걸로 지내니까 뭐 기준이 이걸데 나는 이거다 이걸 아니고요. 지금은 지금대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산업화세대_G2_나, 남성 만 72세, 부부 가구, 6분위)

“바꿀 것도 없어요. 우리 나이에 할 것도 없고.” (산업화세대_G1_바, 여성, 만 72세, 부부 가구, 9분위 이상)

□ 베이비붐 1세대

- 베이비붐 1세대는 경제활동으로의 참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개념에서부터 산업화세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 이들은 경제활동 참여를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 외에도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활동, 무료한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한 활동,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 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 경제활동 참여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양한 만큼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

-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경우 외에도 소일거리를 통해 용돈 벌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무료함을 없애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 등이 있었음
- 한편, 산업화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베이비붐 1세대 중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유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보면 일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떠나서... 돈을, 돈 액수를 떠나서 그냥 일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베이비붐 1세대_G5_다, 여성, 만 64세, 부부 가구, 6분위)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다 관련되어 있겠지만 일자리가 없게 되면 사람이 정체가 돼서 아프게 돼요.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베이비붐 1세대_G9_마, 남성, 만 63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9. 사회 참여 중 취미/여가/사회 활동

☐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

- 두 세대 모두에서 취미/여가/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목적과 활동 항목은 유사하게 나타남
- 하지만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두 세대 간에 차이점이 발견됨
- 우선 취미/여가/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목적으로는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좁아지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이나 무료함을 없애기 위함이 있었음
- 이 외에도 좋아하는 활동을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함 혹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관리하기 위함 등의 취미

/여가/사회 활동의 목적이 파악됨

-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취미/여가/사회 활동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남
- 종교 모임, 합창단 활동, 운동 동호회 등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이 다수 포착됨
- 이 밖에도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모임, 지역 기관을 기반(동주민센터, 구청, 구립 스포츠센터 등)으로 하는 활동 등이 있었음

□ 베이비붐 1세대

- 두 세대 간에 차이점이 발견된 취미/여가/사회 활동 참여 방식은 크게 채널의 확대와 기대 수준의 향상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음
- 먼저 이번 조사에서 베이비붐 1세대의 SNS를 통한 취미/여가/사회 활동 참여가 다수 포착됨
- 이는 산업화세대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모습임
- 이들은 취미/여가/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여 모임을 찾고 가입하고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임
- 이는 베이비붐 1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에 있어서 더 이상 그 기반이 지역사회에 국한될 필요가 없음을 뜻함
- 관심 있는 활동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아가는 데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으며, 오히려 관심사를 편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음

“밴드 같은 데 들어가서 저도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과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가입해 놓으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베이비붐 1세대_G10_마, 여성, 만 60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저는 여행 카페도 있고 등산 카페도 있고 걷기 운동 카페도

있고 많아요 카페가. 춤 카페도 있고... 부부가 아니면 거기 가 입을 못 해요.” (베이비붐 1세대_G4_나, 여성, 만 67세, 부부 가구, 9분위 이상)

- 다음으로, 베이비붐 1세대는 산업화세대에 비해 기관에서 배우는 콘텐츠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됨
- 이것은 베이비붐 1세대가 산업화세대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배움에 대한 경험이 더 풍부하며, 실제로 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공공 기관에서의 강좌에 대해 산업화세대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베이비붐 1세대는 다른 경로를 통한 강좌 (사설 학원, 백화점 문화센터 등)와의 비교를 통해 아쉬운 점을 제시하고 있었음

“나라에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 이렇게 해서 찾아가 보면 너무 기초적인 거 A, B, C부터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흥미를 잃어서 안 가게 돼요 ... 요즘에는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좀 나이 드셨어요. 조금 수준 좀 높게 좀 그런 반도 좀 운영해줬으면 좋겠어요. (베이비붐 1세대_G9_바, 여성, 만 60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이거를 주민센터 동네에서 하는 거나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성의가 없어요.” (베이비붐 1세대_G4_다, 여성, 만 67세, 부부 가구, 9분위 이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관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그냥 일반 사설에서 배우는 것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좀 이렇게 강사진들도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강사진들로 해가지고...” (베이비붐 1세대_G8_나, 여성, 만 61세, 자녀 동거 가구, 9분위 이상)

10. 돌봄 제공자로서의 두 세대

☐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

- 두 세대 모두 공통적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가족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음
- 이러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가족 중 누군가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이나 배우자가 그 돌봄을 제공하는 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 하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두 세대 간에 가치관의 차이와 이 차이에서 비롯된 부양의 방식의 다름이 확인됨

□ 산업화세대

- 산업화세대는 본인 혹은 본인의 형제자매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당연히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방법으로 직접 모시는 편을 주로 택하는 경향이 나타남
- 따라서 조사 참여자나 조사 참여자의 형제자매 중 대부분이 부모님을 댁에서 직접 보살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들이 부모님을 집에서 모셨던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의 혜택이 거의 없이 부모님 돌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노고를 온전히 겪었을 것으로 예상하여 볼 수 있음
- 이렇게 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모시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요양시설로 모셨던 경우는 소수였음
- 이는 요양시설로 부모님을 모시는 행위가 큰 불효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결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어머니께서 이제 형님 댁에 계시다가 갑자기 형님이 또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요양보호사나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회사 다녔고 특별히 보호를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조금 씩은 했겠죠.” (산업화세대_G2_나, 남성, 만 72세, 부부 가구, 6분위)

□ 베이비붐 1세대

- 베이비붐 1세대도 본인이나 본인의 형제자매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하지만 돌봄의 부담이 본인의 건강에 해가 되는 수준이라면 자신이 무리하거나 다른 형제자매에게 순서를 넘기지 않고 요양시설로 모시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산업화세대와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인데, 우선 자신의 건강에 대해 보다 큰 가치를 두고 부모님을 위해 무한한 희생을 감내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다음으로는 부모님 돌봄이 자신에게 힘든 일이라면 자신의 형제자매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건강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외부 즉, 요양시설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로는 베이비붐 1세대에서 개인의 삶에 두는 가치가 이전 세대에 비해 더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동시에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맡겨드리는 선택이 더 이상 불효가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드물게 직접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는 산업화세대에 비해 남성의 관여도가 높아진 모습이 발견됨
“어머님 혼자 사시다가 조금 이제 연로해서 힘드시니까 남편한테, 아들한테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했대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 선에서 안 된다고 그래버렸대요... 그동안 좀 힘든 상태였는데... 요양병원으로 나중에 모신 거죠.” (베이비붐 1세대_G5_다, 여성, 만 64세, 부부 가구, 6분위)

□ 산업화세대

- 손자녀 돌봄에 있어서도 산업화세대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자녀가 마음 편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이유가 가장 컸음
- 손자녀의 나이에 따라 편차가 있었지만, 대체로 손자녀 돌봄을 하면서 육체적인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질병을 얻기도 함
- 손자녀를 돌보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드는 비용이 더 크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함

□ 베이비붐 1세대

- 이들은 부모 돌봄과 마찬가지로 손자녀 돌봄에 있어서도 산업화세대에 비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음
- 조사 시점까지 손자녀를 직접 돌본 경험 자체도 적었으며, 향후에도 손자녀 돌봄에 참여할 의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그 이유로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이 응답됨
- 자신의 건강, 그리고 건강을 기반으로 하는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손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음
- 일부 손자녀 돌봄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세대에 비해 가구 내 남성의 관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됨

11. 돌봄 수요자로서의 두 세대

□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

- 세대를 불문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 하지만 어떤 채널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로 과거의 경험과 그로 인해 돌봄의 수요자가 된 시점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산업화세대

- 산업화세대는 배우자와의 돌봄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 자신이나 배우자가 추후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 자신이 부모님을 직접 모시며 돌봄 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요양 시설은 신뢰가 가고 편하게 스스로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됨
- 현실적으로 자녀에게 자신이나 배우자를 부탁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 또한 이러한 기대에 원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자신과 배우자가 서로를 돌보며 집에서 최대한 지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가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집사람하고 이런 상의를 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코로나 때니까 지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것도... 이제 화면으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걸 하자 했는데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는 것도 괜찮은... (내 배우자를 위해서?) 네, 같이.”
(산업화세대_G2_다, 남성, 만 69세, 부부 가구, 6분위)

□ 베이비붐 1세대

- 베이비붐 1세대에서는 잠재적인 돌봄 수요자로서 가지고 있는 향후 자신이나 배우자의 돌봄에 대한 기대 및 계획이 산업화세대와 달랐음
- 이러한 차이는 베이비붐 1세대 내에서도 자산 분위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남
- 우선 자산 6분위의 베이비붐 1세대에서는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의견이 산업화세대와 마찬가지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 그런 한편, 요양 시설에 대한 인식 또한 대체로 좋지 않아 산업 화세대와 유사하게 부부 간에 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하지만 부부 간에 돌봄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정부 지원의 재가서비스나 사설 가사 도 우미를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남
- 현재 가지고 있는 돌봄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요양 보험, 간병인 보험, 암보험, 종합 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 이 자주 언급되어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준비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처럼 베이비붐 1세대 6분위 가구는 잠재적인 돌봄 수요자로 서 산업화세대와 큰 흐름을 함께 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구체적인 준비까지 일정 수준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둘 다... 끝까지 내가 돌봐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서로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 그리고 누구, 자식한테 아무래도 부담 주고 싶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게끔 해 서... 이제 하다가 저도 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그런 경우에는 뭔가 도움을 받아야겠죠 돈을 들여서 라도.” (베이비붐 1세대_G6_나, 여성, 만 59세, 부부 가구, 6분 위)
- 베이비붐 1세대 자산 9분위 이상은 지금까지의 흐름과 다른 양 상을 보였음
- 이들은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동시에 요양 보호사 자격증에 대한 언급이 많았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현재 이미 취득했거나 교육 받는 중, 혹은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 중인 경우가 다수였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배 우자와 서로 간에 돌봄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그 이유임

- 하지만 부부 간에 제공하는 돌봄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주요했으며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보였음
- 여기에서 알 수 있듯, 베이비붐 1세대 자산 9분위 이상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해 대체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됨

□ 베이비붐 1세대 내 요양시설 인식에 대한 차이

- 앞서 살펴보았듯, 베이비붐 1세대 내에서도 자산 분위에 따라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름을 확인함
- 6분위의 경우 요양시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음
-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의 자녀 도움도 일부나마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삶을 전혀 영위할 수 없는 건강 상태 정도가 되거나, 요양시설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요양시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저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근데 어쨌거나 환자분들이 거기로 가시면은 다 일찍 돌아가신대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이라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그냥 집안에서 우리 어머님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베이비붐 1세대 _G10_바, 남성, 만 60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 9분위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이었음
- 또한 재가서비스로는 혼자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에 아무래도 충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요했음
- 구체적으로 재가서비스로는 식사 준비, 빨래, 청소 등의 가사뿐만 아니라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노인의 생활에 충분할 수 없

다는 것임

- 따라서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으며, 요양시설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 사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고 있었음

“저는 그냥 요양원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리고 또 아이가 와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저 또한 부담 없고 그런 방면에서 저는 시설 쪽으로 가는 게 더 좋다. 나이 들어서도, 아니 아파서도 서로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베이비붐 1세대_G7_마, 여성, 만 62세, 자녀 동거 가구, 9분위 이상)

12. 경제적 측면에서의 보장

☐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

- 두 세대 모두 현재 연령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추후 수령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국민연금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으로 고려되고 있었음
- 하지만 국민연금이 생활비의 극히 일부만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는 세대별로 상이하게 마련되어 있었음

☐ 산업화세대

- 산업화세대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미 모든 연령에서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나이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실제로 대부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음
- 하지만 이에 대해 크게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음
- 따라서 소일거리, 자녀의 용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일부는 민간 건강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거나 주택 연금을 고려하기도 함
- 이처럼 산업화세대에서는 자산 분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국민연금 외에 “플러스알파”를 마련하기에 바빴음

“저희도 남편 연금 조금 나오고요. 제 거 조금 나오고. 또 모아 났던 것도 조금씩 쓰고. 애들이 좀 주고... 그냥 아껴 쓰면 쓰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산업화세대_G2_가, 여성, 만 70세, 부부 가구, 6분위)

□ 베이비붐 1세대

- 베이비붐 1세대에서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에 대한 언급도 많았음
- 이들이 젊은 시절부터 들어둔 개인연금은 납입하던 때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든든한 생활비 출처가 되었다고 이야기 됨
- 이 외에도 과거에 마련해둔 금융 자산이 현재 생활비를 충당하는 출처로 다수 언급됨
- 한편, 베이비붐 1세대에서는 생활비 마련에 있어서 자산 분위에 따른 차이점 또한 발견됨
- 베이비붐 1세대 6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 주요한 생활비 출처인 반면 9분위 이상에서는 임대소득이 주요한 생활비 출처인 것으로 확인됨
- 이때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은 임대소득과 달리 근로 주체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얻기가 어려워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베이비붐 1세대의 자산 6분위 응답자들은 현재 산업화세대의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금 수준 그 이하 자산 분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음

“제가 버는 소득 조금 있고요. 저희 집사람이 버는 소득 조금.

조금씩 알바 같은 거 해서 받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제 개인연금 있고요. 집사람 국민연금 조기 신청해서 좀 받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소득 조금...” (베이비붐 1세대_G6_바, 남성, 만 62세, 부부 가구, 6분위)

13. 소결

□ 베이비붐 1세대는...

- 지금까지 베이비붐 1세대에 대해 노후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화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음
-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보면 베이비붐 1세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우선 베이비붐 1세대는 자산 분위와 관계없이 산업화세대에 비해 더 깐깐한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예컨대, 이들은 자신이 언제 노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인지, 그 시작점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역할 할 수 있기를 바람
- 또한 이들은 본인의 삶에 관한한, 경제활동도 취미/여가/사회 활동도 모두 골고루 참여하고 싶어 하며, 나아가 참여 자체에 의의를 두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 SNS를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의 참여 방법을 찾기도 하고, 활동의 종류뿐만 아니라 수준이나 단계에 있어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임
- 이렇듯 자신의 삶이 중요한 이들에게는 아무리 소중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무한한 희생은 용납되지 않음
- 즉, 가족을 돌봄 한다는 이유로 본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며, 가족 밖에서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에 익숙함
-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노후를 보낼 예정인 만큼 젊은 시절부터 건강, 경제 등 다방면에서 나름의 준비를 열심히 해왔음

- 실제로 자녀에게 일절 도움을 청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가 준비된 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베이비붐 1세대는 인구 규모가 큰 집단인 만큼 전술된 집단과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된 이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즉, 본인이나 배우자의 투병, 자녀의 혼인이나 독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 생애주기사건을 겪을 경우 “하류 노인”에 속하게 될 위험이 높은 인구 집단이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음을 뜻함
- 더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로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이 위험은 가중될 것이 자명함
- 이러한 배경에서 베이비붐 1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로 대표되는 자신의 자녀들이 출가 혹은 독립을 한 이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되돌아와 자신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주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어 할 것
- 이는 자녀가 과거 함께 살던 동안 자신에게 다양한 유익을 주었던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
- 한편, 베이비붐 1세대는 요양시설에 대해 산업화세대보다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요양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산업화세대와는 달리, 베이비붐 1세대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음
- 즉, 요양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인식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선호와는 별개로 때가 되면 요양시설에서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지금까지 서술된 베이비붐 1세대의 여러 가지 성향을 활동적 노화 이론에 비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베이비붐 1세대의 건강

- 이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이전 세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준비까지 도모함
-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도록 하는 다른 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쉽게 용납하지 않음
-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자녀에게 손 벌리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베이비붐 1세대의 참여

- 베이비붐 1세대는 경제활동의 의미에 대해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도 더 다양함
- 취미/여가/사회활동에 있어서는 SNS를 활용하여 확대된 채널로써 참여를 계획하고, 배움에 대해 더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음

□ 베이비붐 1세대의 보장

- 이들은 돌봄의 제공자인 동시에 미래 수요자로서 개인의 희생을 요하는 부양 방식보다는 (공공) 기관에서의 체계적인 부양에 대해 이전 세대보다 더 선호하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부터 마련해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통해 대비하고 있으나, 준비된 방식의 지속가능성이 자산 분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제3장 양적 연구 및 수요 예측

제1절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1. 연구 목적 및 가설

□ 연구 목적

- 양적 연구에서는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가구지출의료비, 노후생활준비 여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 구체적으로는, 전술된 변수들에 대해 세대별, 가구 유형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수요 예측에 활용될 가중치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여기에 이어서 수요 예측 부분에서는 베이비붐 1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 추계를 진행함
- 궁극적으로 베이비붐 1세대 보건·복지 정책 수요(가구지출의료비, 노후생활준비 여부)의 시점별 증가/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규모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연구 가설

- 양적 연구에서는 다음을 연구 가설로 함
 - ①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가구지출의료비, 노후생활준비 여부 각각에 대해 코호트 효과(세대 효과)가 유의미할 것이다.
 - ②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가구지출의료비, 노후생활준비 여부 각각에 대해 가구 유형별 차이가 유의미할 것이다.
- 다음은 수요 예측 부분의 연구 가설임
 - ① 베이비붐 1세대의 보건·복지 정책 수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 ② 베이비붐 1세대의 세대 특성은 산업화세대의 세대 특성보다 보건·복지 정책 수요의 증가에 더 적게 기여할 것이다.

2. 활용 자료 및 변수

□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에서 작성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 생활 수준의 정도 및 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 관련 정책과 연구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함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과 소득분배지표를 파악하여 사회 경제 관련 정책과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음
- 조사 대상은 조사 기간을 기준으로 전국 읍면동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 가구이며, 전국의 약 20,000가구를 표본으로 함
- 조사 항목에는 가구 구성(가구주 및 가구원), 자산(실물자산, 금융자산, 금융자산 운용, 부동산 운용), 부채(금융부채, 부채 상환 능력), 소득, 가계 지출(경상이전 지출, 주요 지출), 노후 생활, 기타(패널 관리)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0~2021년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 여러 가지 조사 항목 중 가구원 수, 가구주 만 연령, 가구원 정보 만 연령, 가구원 정보 가구주 관계 코드, 자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변수를 APC분석에 활용함

□ 한국의료패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에서 작성하는 한국의료패널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대응성·접근성 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정책 수행의 기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됨
- 뿐만 아니라, 질환, 의료 이용, 의약품 복용, 의료비 지출 및 지출원, 건강 관련 인식 및 행태 등에 관한 개인 및 가구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됨
- 조사 대상 지역은 전국이며, 708개 조사구에서 8,500가구를 조

사하고 목표 표본 규모는 10,241가구임

- 조사 항목에는 가구원 변동사항, 가구 일반사항, 가구원 일반사항, 경제활동상태, 소득, 부채 및 자산, 지출, 일반의약품 및 의료관련 지출,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및 기타 돌봄 서비스 이용, 민간의료보험, 건강생활 습관, 건강 수준, 의료접근성, 상용 치료원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의 2008~2018년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함
- 조사 항목들 중 가구 일반사항, 가구원 일반사항, 근로소득, 재산소득, 가구지출의료비를 APC분석에 활용하였음

□ 국민노후보장패널

- 국민연금공단 패널조사팀에서 작성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 소득과 노후 준비에 관련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노후 소득의 원천이 될 국민연금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고령화 이슈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국민노후보장패널은 노후 소득 보장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연금 등의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이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에 미치는 효과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조사 대상 지역은 전국이며,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5,110개 가구를 표본으로 함
- 가구 조사 항목에는 가구원 인적사항, 주거 현황, 가구 지출, 가구 소득 및 저축, 가구 자산 및 부채 등이 있음
- 개인 조사 항목에는 현 경제 활동 상태, 근로 활동(현재 일자리, 퇴직 급여, 이직 활동 및 은퇴 계획, 구직 활동, 은퇴 여부 및 은퇴 태도), 노후 준비 및 노후 생활, 공적 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소득 및 이전 지출, 자산 및 부채, 상속 및 증여, 돌봄

- 노동, 건강, 삶의 만족도, 직업력 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의 2005~2019년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 조사 항목들 중 가구원 인적사항,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노후생활준비 여부를 APC분석에 활용함

□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에서 작성하는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로 농림어가를 포함하며, 약 7,200가구를 표본으로 함
- 조사 항목에는 가구 실태와 관련하여 가구원에 대한 사항(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등), 거쳐 구분, 자동차 보유 여부, 주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 외에도 가구의 소득 및 지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2010~2021년 데이터를 가구 추계에 활용하였음
- 여러 가지 조사 항목 중 가구원 수, 가구주의 관계 코드,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의 가구주 관계 코드, 가구원의 연령, 가중값을 가구 추계에 활용함

3. 분석 방법

□ APC 분석

- APC 분석은 Age(연령), Period(기간), Cohort(코호트) 각각의 효과를 하나의 모형으로 추정하는 방법임
- 이때 각각의 효과는 서로 상관되어 있으며, 한 가지 요소는 나머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됨

- 이러한 이유에서 통상적인 회귀분석모형으로는 APC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PCD모형과 APC-IE모형을 활용하여 APC 분석을 수행함
- APCD모형은 연령, 기간, 코호트 세 가지 효과가 선형 추세를 중심으로 변동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전체 추세 대비 연령 및 코호트 효과의 크기 차이를 확인하도록 함
- APC-IE모형은 연령, 기간, 코호트 세 가지 효과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각각을 식별하도록 하며,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에 따른 가구 유형별 장래 예측치를 산출하도록 함

□ 가구주율법

- 가구주율법은 가구주율(Headship rate)의 장래 변동 수준을 추계한 뒤, 인구 추계 결과에 적용하여 가구 추계를 진행하는 방법임
- 가구주율법은 그 과정이 단순하고(작성 방법의 용이성) 자료에 대한 제한이 적다(필요 자료의 적정성)는 강점으로 한국, 영국, 일본 등에서 국가 차원의 가구 추계 작업에 사용되고 있음
- 가구주율법에는 수학적 모형, 경제적 모형, 코호트 이행 모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이행 모형을 활용함
- 왜냐하면 코호트 이행 모형을 통한 가구주율법은 인접한 코호트 간의 인구 규모 차이가 클 때나 젊은 층에서의 가구주율 변동이 클 때 유용한 가구 추계 수단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한국과 같이 혼인 연령이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 35세 이상일 경우 순천이율(Net Transition rate)을 적용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선형 로그식을 적용함
- 성, 연령, 혼인 상태별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각 특성에 따른 가구 유형별 가구주 비율을 산출한 뒤, 해당 값을 인구 추계 결

- 과에 곱하여 각 가구 유형별 가구 수를 추정함
- 본 연구에서는 가구 추계 대상을 일반 가구로 한정하여, 비친족 6인 이상 가구, 집단 시설 가구, 외국인 가구는 모가구 수에서 부터 제외함

제2절 연구 결과

1. APC 분석

□ 요약통계량

- 분석에서 활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의료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의 요약통계량은 부록에서 제시함

□ 자산

-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아우르는 자산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APC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APCD모델을 실행함
- Trend에 대한 p-value를 살펴보았을 때 자산에 대해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 모두 유의미했으며, Coefficient 값을 살펴보면 두 효과 중 코호트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즉, 자산에 대해서 세대 효과가 연령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의미함
- 세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Cohort 1944부터 Cohort 1964까지의 Coefficient 값과 p-value를 살펴봄
- 자산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산업화세대(Cohort 1944~Cohort 1954)가 베이비붐 1세대(Cohort 1956~Cohort 1964)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로 산업화세대가 베이비붐 1세대에 비해 여러 종류의 자산을 합쳐서 보았을 때 더 나은 조건의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자산의 종류에 따라 현금화 가능 여부와 그에 연동된 상황에 따라 필요에 맞게 조달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표 5> 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량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Asset(자산)

Variable	Change amount (변화량)			
	Crude model		Adjusted model	
	Beta (95% CI)	p-value	Beta (95% CI)	p-value
Intercept	30.84 (29.58, 32.09)	<0.001	10.75 (9.42, 12.08)	<0.001
Cohort 1944	-2.42 (-5.85, 1.02)	0.168	-3.20 (-6.56, 0.17)	0.063
Cohort 1946	2.08 (-1.26, 5.43)	0.223	0.51 (-2.77, 3.79)	0.762
Cohort 1948	4.69 (1.55, 7.83)	0.003	2.95 (-0.13, 6.02)	0.061
Cohort 1950	4.26 (1.21, 7.31)	0.006	3.05 (0.06, 6.05)	0.045
Cohort 1952	3.21 (0.28, 6.14)	0.032	1.35 (-1.53, 4.22)	0.358
Cohort 1954	1.01 (-1.79, 3.81)	0.480	-0.70 (-3.45, 2.04)	0.615
Cohort 1956	2.63 (-0.03, 5.28)	0.052	0.42 (-2.17, 3.02)	0.749
Cohort 1958	2.43 (-0.11, 4.97)	0.061	0.53 (-1.96, 3.03)	0.675
Cohort 1960	-4.07 (-6.50, -1.64)	0.001	-5.81 (-8.20, -3.43)	<0.001
Cohort 1962	-2.48 (-4.85, -0.11)	0.040	-4.57 (-6.89, -2.25)	<0.001
Cohort 1964	-3.43 (-5.78, -1.09)	0.004	-5.37 (-7.67, -3.06)	<0.001
Trend				
Age trend	26.50 (22.50, 30.51)	<0.001	39.43 (35.48, 43.38)	<0.001
Cohort trend	46.24 (36.47, 56.02)	<0.001	63.25 (53.66, 72.85)	<0.001
Household type				
Single			0 (reference)	
Married couple			27.53 (26.63, 28.44)	<0.001
Parents with children			38.53 (37.65, 39.41)	<0.001
Others			19.12 (18.13, 20.11)	<0.001
Model fit				
AIC	2305307.00		2297189.00	
BIC	2306146.00		2298059.00	

<표 6> 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Asset(자산)

Variable	Change percentage (변화율)			
	Crude model		Adjusted model	
	Exp(beta) (95% CI)	p-value	Exp(beta) (95% CI)	p-value
Intercept	-		-	
Cohort 1944	1.24 (1.14, 1.36)	<0.001	1.21 (1.12, 1.31)	<0.001
Cohort 1946	1.44 (1.32, 1.56)	<0.001	1.34 (1.24, 1.44)	<0.001
Cohort 1948	1.47 (1.36, 1.59)	<0.001	1.35 (1.26, 1.45)	<0.001
Cohort 1950	1.36 (1.26, 1.47)	<0.001	1.29 (1.20, 1.38)	<0.001
Cohort 1952	1.40 (1.30, 1.51)	<0.001	1.28 (1.19, 1.36)	<0.001
Cohort 1954	1.29 (1.20, 1.38)	<0.001	1.18 (1.11, 1.26)	<0.001
Cohort 1956	1.29 (1.21, 1.38)	<0.001	1.15 (1.09, 1.23)	<0.001
Cohort 1958	1.16 (1.08, 1.23)	<0.001	1.05 (0.99, 1.11)	0.103
Cohort 1960	1.04 (0.98, 1.10)	0.233	0.95 (0.90, 1.01)	0.075
Cohort 1962	1.02 (0.96, 1.08)	0.490	0.92 (0.87, 0.97)	0.002
Cohort 1964	0.98 (0.93, 1.04)	0.592	0.89 (0.84, 0.94)	<0.001
Trend				
Age trend	2.16 (1.95, 2.39)	<0.001	4.06 (3.70, 4.45)	<0.001
Cohort trend	12.96 (10.15, 16.54)	<0.001	31.69 (25.34, 39.63)	<0.001
Household type				
Single			1 (reference)	
Married couple			5.09 (4.98, 5.20)	<0.001
Parents with children			6.88 (6.74, 7.02)	<0.001
Others			3.07 (3.00, 3.14)	<0.001
Model fit				
AIC	794732.60		758107.50	
BIC	795571.50		758977.00	

□ 실물자산

- 한국의 맥락에서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실물자산에 대해 APC분석을 수행함
- 실물자산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APCD모형을 활용함
- Trend에 대한 p-value를 살펴보았을 때, 실물자산에 대한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두 효과 중에서는 코호트 효과 즉, 세대 효과가 연령 효과에 비해 더 큰 것으로 Coefficient 값 확인 결과 알 수 있었음
- 자산 분석 결과 해석에서 마찬가지로, 세대 효과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Cohort 1944부터 Cohort 1964까지의 Coefficient 값과 p-value를 살펴봄
- 실물자산의 변화량과 변화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산업화세대(Cohort 1944~Cohort 1954)가 베이비붐 1세대(Cohort 1956~Cohort 1964)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의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앞서 서술한 자산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산업화세대가 베이비붐 1세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자산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실물자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7> 실물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량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Real estate asset (실물자산)

Variable	Change amount (변화량)			
	Crude model		Adjusted model	
	Beta (95% CI)	p-value	Beta (95% CI)	p-value
Intercept	23.63 (22.54, 24.73)	<0.001	7.31 (6.15, 8.47)	<0.001
Cohort 1944	-0.61 (-3.59, 2.38)	0.690	-1.19 (-4.12, 1.75)	0.429
Cohort 1946	3.06 (0.16, 5.97)	0.039	1.83 (-1.03, 4.69)	0.209
Cohort 1948	5.66 (2.93, 8.38)	<0.001	4.28 (1.60, 6.97)	0.002
Cohort 1950	4.20 (1.55, 6.85)	0.002	3.26 (0.65, 5.87)	0.014
Cohort 1952	3.38 (0.84, 5.93)	0.009	1.90 (-0.60, 4.40)	0.137
Cohort 1954	1.32 (-1.11, 3.75)	0.288	-0.05 (-2.44, 2.35)	0.970
Cohort 1956	2.29 (-0.02, 4.59)	0.052	0.54 (-1.73, 2.80)	0.643
Cohort 1958	1.69 (-0.52, 3.90)	0.133	0.18 (-2.00, 2.35)	0.873
Cohort 1960	-4.12 (-6.24, -2.01)	<0.001	-5.52 (-7.60, -3.45)	<0.001
Cohort 1962	-2.74 (-4.79, -0.68)	0.009	-4.41 (-6.44, -2.39)	<0.001
Cohort 1964	-3.98 (-6.02, -1.94)	<0.001	-5.54 (-7.54, -3.53)	<0.001
Trend				
Age trend	20.52 (17.04, 24.00)	<0.001	30.79 (27.35, 34.24)	<0.001
Cohort trend	29.33 (20.83, 37.82)	<0.001	43.08 (34.71, 51.44)	<0.001
Household type				
Single			0 (reference)	
Married couple			22.83 (22.04, 23.62)	<0.001
Parents with children			30.55 (29.79, 31.32)	<0.001
Others			16.22 (15.36, 17.08)	<0.001
Model fit				
AIC	2247727.00		2240976.00	
BIC	2248566.00		2241845.00	

<표 8> 실물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Real estate asset (실물자산)

Variable	Change percentage (변화율)			
	Crude model		Adjusted model	
	Exp(beta) (95% CI)	p-value	Exp(beta) (95% CI)	p-value
Intercept	-		-	
Cohort 1944	1.54 (1.20, 1.98)	<0.001	1.44 (1.15, 1.82)	0.002
Cohort 1946	2.34 (1.83, 2.99)	<0.001	1.94 (1.54, 2.43)	<0.001
Cohort 1948	2.25 (1.78, 2.83)	<0.001	1.80 (1.46, 2.23)	<0.001
Cohort 1950	2.03 (1.62, 2.54)	<0.001	1.75 (1.43, 2.16)	<0.001
Cohort 1952	2.17 (1.75, 2.70)	<0.001	1.69 (1.39, 2.06)	<0.001
Cohort 1954	1.83 (1.49, 2.25)	<0.001	1.46 (1.21, 1.76)	<0.001
Cohort 1956	1.78 (1.46, 2.16)	<0.001	1.32 (1.11, 1.58)	0.002
Cohort 1958	1.41 (1.17, 1.70)	<0.001	1.09 (0.92, 1.29)	0.330
Cohort 1960	1.18 (0.99, 1.42)	0.062	0.94 (0.80, 1.11)	0.490
Cohort 1962	1.20 (1.01, 1.43)	0.036	0.91 (0.78, 1.07)	0.265
Cohort 1964	1.10 (0.93, 1.31)	0.267	0.85 (0.73, 1.00)	0.046
Trend				
Age trend	2.70 (2.01, 3.62)	<0.001	14.00 (10.66, 18.39)	<0.001
Cohort trend	5.69 (2.78, 11.66)	<0.001	62.30 (32.11, 120.89)	<0.001
Household type				
Single			1 (reference)	
Married couple			95.75 (89.94, 101.93)	<0.001
Parents with children			191.71 (180.40, 203.74)	<0.001
Others			17.01 (15.89, 18.21)	<0.001
Model fit				
AIC	1235586.00		1203096.00	
BIC	1236425.00		1203966.00	

□ 금융자산

-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서 경제적으로 큰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금융자산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에 대해서 금융자산 변수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는 APCD모형을 활용하여 APC분석을 수행함
- Trend에 대한 p-value를 살펴보았을 때 금융자산에 대해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 모두 유의미했으며, Coefficient 값을 살펴보면 두 효과 중 코호트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즉, 금융자산에 대해서 세대 효과가 연령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의미함
- 금융자산에 대한 세대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Cohort 1944부터 Cohort 1964까지의 Coefficient 값과 p-value를 살펴봄
- 금융자산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산업화세대(Cohort 1944~Cohort 1954)에 비해 베이비붐 1세대(Cohort 1956~Cohort 1964)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자산 전체, 실물자산에 대해 살펴본 바와 상반된 것으로, 가용성이 높은 금융자산에서는 오히려 베이비붐 1세대가 더 많은 규모를 축적하고 있음을 파악함

<표 9> 금융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량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Financial asset (금융자산)

Variable	Change amount (변화량)			
	Crude model		Adjusted model	
	Beta (95% CI)	p-value	Beta (95% CI)	p-value
Intercept	7.20 (6.85, 7.55)	<0.001	3.44 (3.07, 3.81)	<0.001
Cohort 1944	-1.81 (-2.76, -0.86)	<0.001	-2.01 (-2.96, -1.07)	<0.001
Cohort 1946	-0.98 (-1.91, -0.05)	0.038	-1.33 (-2.24, -0.41)	0.005
Cohort 1948	-0.97 (-1.84, -0.10)	0.029	-1.34 (-2.20, -0.48)	0.002
Cohort 1950	0.07 (-0.78, 0.91)	0.880	-0.21 (-1.05, 0.63)	0.624
Cohort 1952	-0.17 (-0.99, 0.64)	0.678	-0.55 (-1.36, 0.25)	0.179
Cohort 1954	-0.31 (-1.09, 0.47)	0.434	-0.66 (-1.43, 0.11)	0.093
Cohort 1956	0.34 (-0.40, 1.07)	0.368	-0.11 (-0.84, 0.62)	0.763
Cohort 1958	0.74 (0.03, 1.44)	0.041	0.36 (-0.34, 1.05)	0.317
Cohort 1960	0.05 (-0.62, 0.73)	0.876	-0.29 (-0.96, 0.38)	0.392
Cohort 1962	0.26 (-0.40, 0.91)	0.445	-0.16 (-0.81, 0.49)	0.636
Cohort 1964	0.54 (-0.11, 1.19)	0.103	0.17 (-0.47, 0.82)	0.603
Trend				
Age trend	5.98 (4.87, 7.09)	<0.001	8.64 (7.53, 9.74)	<0.001
Cohort trend	16.92 (14.20, 19.63)	<0.001	20.18 (17.49, 22.86)	<0.001
Household type				
Single			0 (reference)	
Married couple			4.71 (4.45, 4.96)	<0.001
Parents with children			7.97 (7.73, 8.22)	<0.001
Others			2.90 (2.62, 3.18)	<0.001
Model fit				
AIC	1780493.00		1775872.00	
BIC	1781331.00		1776742.00	

<표 10> 금융자산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Financial asset (금융자산)

Variable	Change percentage (변화율)			
	Crude model		Adjusted model	
	Exp(beta) (95% CI)	p-value	Exp(beta) (95% CI)	p-value
Intercept	-		-	
Cohort 1944	1.12 (1.03, 1.23)	0.010	1.09 (1.01, 1.19)	0.038
Cohort 1946	1.38 (1.26, 1.50)	<0.001	1.30 (1.20, 1.41)	<0.001
Cohort 1948	1.47 (1.35, 1.59)	<0.001	1.38 (1.27, 1.49)	<0.001
Cohort 1950	1.45 (1.34, 1.57)	<0.001	1.39 (1.29, 1.50)	<0.001
Cohort 1952	1.58 (1.46, 1.70)	<0.001	1.47 (1.37, 1.58)	<0.001
Cohort 1954	1.63 (1.51, 1.75)	<0.001	1.53 (1.43, 1.64)	<0.001
Cohort 1956	1.61 (1.50, 1.72)	<0.001	1.48 (1.39, 1.58)	<0.001
Cohort 1958	1.58 (1.48, 1.68)	<0.001	1.47 (1.38, 1.57)	<0.001
Cohort 1960	1.49 (1.40, 1.58)	<0.001	1.40 (1.31, 1.48)	<0.001
Cohort 1962	1.48 (1.39, 1.57)	<0.001	1.37 (1.29, 1.45)	<0.001
Cohort 1964	1.43 (1.35, 1.52)	<0.001	1.34 (1.26, 1.42)	<0.001
Trend				
Age trend	2.07 (1.86, 2.29)	<0.001	3.31 (3.00, 3.66)	<0.001
Cohort trend	54.26 (42.14, 69.86)	<0.001	102.39 (80.32, 130.52)	<0.001
Household type				
Single			1 (reference)	
Married couple			2.92 (2.85, 2.99)	<0.001
Parents with children			4.13 (4.04, 4.22)	<0.001
Others			2.09 (2.04, 2.14)	<0.001
Model fit				
AIC	808863.70		791860.60	
BIC	809702.50		792730.10	

□ 경상소득

- 경상소득은 일정하고 정기적인 소득을 뜻하는 개념으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함
- 경상소득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APC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APCD모델을 실행함
- Trend에 대한 p-value를 살펴보았을 때 경상소득에 대해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 모두 유의미하였음
- 이때의 Coefficient 값을 살펴보면 두 효과 중 코호트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세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Cohort 1944부터 Cohort 1964까지의 Coefficient 값과 p-value를 살펴봄
- 경상소득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산업화세대 (Cohort 1944~Cohort 1954)가 베이비붐 1세대(Cohort 1956~Cohort 1964)에 비해 유의미하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경 상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앞서 자산 전체, 실물자산, 금융자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 본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산업화세대에서 베이비붐 1세대에 비 해 더 높은 수준의 경상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물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여 볼 여지가 있음

<표 11> 경상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량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Current income(경상소득)

Variable	Change amount (변화량)			
	Crude model		Adjusted model	
	Beta (95% CI)	p-value	Beta (95% CI)	p-value
Intercept	3.98 (3.89, 4.07)	<0.001	1.81 (1.72, 1.91)	<0.001
Cohort 1944	-0.70 (-0.96, -0.44)	<0.001	-0.86 (-1.10, -0.61)	<0.001
Cohort 1946	-0.35 (-0.60, -0.10)	0.006	-0.58 (-0.82, -0.34)	<0.001
Cohort 1948	-0.36 (-0.59, -0.12)	0.003	-0.60 (-0.82, -0.38)	<0.001
Cohort 1950	-0.26 (-0.49, -0.03)	0.025	-0.44 (-0.65, -0.22)	<0.001
Cohort 1952	-0.26 (-0.48, -0.04)	0.019	-0.49 (-0.70, -0.28)	<0.001
Cohort 1954	-0.24 (-0.45, -0.03)	0.027	-0.45 (-0.65, -0.25)	<0.001
Cohort 1956	-0.01 (-0.21, 0.19)	0.921	-0.29 (-0.48, -0.10)	0.003
Cohort 1958	0.22 (0.03, 0.41)	0.027	-0.02 (-0.20, 0.16)	0.808
Cohort 1960	-0.03 (-0.21, 0.15)	0.761	-0.26 (-0.44, -0.09)	0.003
Cohort 1962	0.31 (0.13, 0.49)	<0.001	0.04 (-0.13, 0.21)	0.676
Cohort 1964	0.37 (0.19, 0.55)	<0.001	0.12 (-0.05, 0.29)	0.165
Trend				
Age trend	3.06 (2.76, 3.36)	<0.001	4.84 (4.55, 5.13)	<0.001
Cohort trend	9.77 (9.04, 10.51)	<0.001	11.79 (11.09, 12.49)	<0.001
Household type				
Single			0 (reference)	
Married couple			2.24 (2.18, 2.31)	<0.001
Parents with children			4.67 (4.61, 4.73)	<0.001
Others			2.26 (2.19, 2.33)	<0.001
Model fit				
AIC	1244941.00		1224520.00	
BIC	1245779.00		1225389.00	

<표 12> 경상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Current income(경상소득)

Variable	Change percentage (변화율)			
	Crude model		Adjusted model	
	Exp(beta) (95% CI)	p-value	Exp(beta) (95% CI)	p-value
Intercept	-		-	
Cohort 1944	1.26 (1.21, 1.32)	<0.001	1.22 (1.17, 1.27)	<0.001
Cohort 1946	1.46 (1.40, 1.53)	<0.001	1.38 (1.33, 1.44)	<0.001
Cohort 1948	1.52 (1.45, 1.58)	<0.001	1.43 (1.37, 1.48)	<0.001
Cohort 1950	1.52 (1.46, 1.58)	<0.001	1.46 (1.41, 1.51)	<0.001
Cohort 1952	1.59 (1.53, 1.66)	<0.001	1.50 (1.45, 1.55)	<0.001
Cohort 1954	1.59 (1.53, 1.65)	<0.001	1.50 (1.45, 1.55)	<0.001
Cohort 1956	1.58 (1.52, 1.63)	<0.001	1.46 (1.42, 1.51)	<0.001
Cohort 1958	1.56 (1.51, 1.62)	<0.001	1.46 (1.42, 1.51)	<0.001
Cohort 1960	1.48 (1.44, 1.53)	<0.001	1.39 (1.35, 1.43)	<0.001
Cohort 1962	1.49 (1.45, 1.54)	<0.001	1.38 (1.35, 1.42)	<0.001
Cohort 1964	1.44 (1.40, 1.49)	<0.001	1.34 (1.31, 1.38)	<0.001
Trend				
Age trend	2.34 (2.22, 2.46)	<0.001	3.73 (3.56, 3.91)	<0.001
Cohort trend	29.86 (26.26, 33.96)	<0.001	53.78 (47.99, 60.26)	<0.001
Household type				
Single			1 (reference)	
Married couple			2.29 (2.27, 2.32)	<0.001
Parents with children			3.48 (3.45, 3.52)	<0.001
Others			2.22 (2.19, 2.24)	<0.001
Model fit				
AIC	531905.50		481539.30	
BIC	532744.30		482408.80	

□ 가처분소득

- 가처분소득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으로, 소비와 구매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성격을 가진 가처분소득에 대해서 가처분소득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APCD모형을 활용하여 APC분석을 수행함
- Trend에 대한 p-value를 살펴보았을 때 가처분소득에 대해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 모두 유의미했으며, Coefficient 값을 살펴보면 두 효과 중 코호트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즉, 가처분소득에 대해서 세대 효과가 연령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의미함
-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대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Cohort 1944부터 Cohort 1964까지의 Coefficient 값과 p-value를 살펴봄
- 가처분소득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산업화세대(Cohort 1944~Cohort 1954)에 비해 베이비붐 1세대(Cohort 1956~Cohort 1964)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의 가처분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앞서 살펴보았던 자산 전체, 실물자산, 금융자산에서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소득에 대한 분석 결과도 가용성이 높은 가처분소득에서는 베이비붐 1세대가 산업화세대를 앞서는 것으로 파악됨

<표 13> 가처분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량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Disposable income(가처분소득)

Variable	Change amount (변화량)			
	Crude model		Adjusted model	
	Beta (95% CI)	p-value	Beta (95% CI)	p-value
Intercept	3.30 (3.22, 3.37)	<0.001	1.52 (1.44, 1.60)	<0.001
Cohort 1944	-0.51 (-0.71, -0.30)	<0.001	-0.64 (-0.83, -0.44)	<0.001
Cohort 1946	-0.19 (-0.39, 0.01)	0.060	-0.38 (-0.57, -0.19)	<0.001
Cohort 1948	-0.18 (-0.37, 0.00)	0.051	-0.38 (-0.56, -0.21)	<0.001
Cohort 1950	-0.11 (-0.29, 0.07)	0.224	-0.25 (-0.42, -0.08)	0.004
Cohort 1952	-0.07 (-0.24, 0.10)	0.427	-0.26 (-0.42, -0.09)	0.002
Cohort 1954	-0.06 (-0.22, 0.11)	0.508	-0.23 (-0.39, -0.07)	0.004
Cohort 1956	0.10 (-0.06, 0.26)	0.208	-0.12 (-0.27, 0.02)	0.100
Cohort 1958	0.27 (0.12, 0.42)	<0.001	0.07 (-0.07, 0.21)	0.323
Cohort 1960	0.14 (0.00, 0.29)	0.051	-0.05 (-0.19, 0.08)	0.454
Cohort 1962	0.35 (0.21, 0.49)	<0.001	0.12 (-0.01, 0.25)	0.074
Cohort 1964	0.36 (0.22, 0.50)	<0.001	0.15 (0.02, 0.28)	0.024
Trend				
Age trend	2.60 (2.36, 2.83)	<0.001	4.06 (3.84, 4.29)	<0.001
Cohort trend	8.17 (7.59, 8.74)	<0.001	9.83 (9.28, 10.38)	<0.001
Household type				
Single			0 (reference)	
Married couple			1.81 (1.76, 1.86)	<0.001
Parents with children			3.77 (3.72, 3.82)	<0.001
Others			2.00 (1.94, 2.05)	<0.001
Model fit				
AIC	1147133.00		1126117.00	
BIC	1147972.00		1126986.00	

<표 14> 가처분소득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Disposable income(가처분소득)

Variable	Change percentage (변화율)			
	Crude model		Adjusted model	
	Exp(beta) (95% CI)	p-value	Exp(beta) (95% CI)	p-value
Intercept	-		-	
Cohort 1944	1.24 (1.16, 1.32)	<0.001	1.20 (1.13, 1.27)	<0.001
Cohort 1946	1.46 (1.37, 1.55)	<0.001	1.38 (1.30, 1.46)	<0.001
Cohort 1948	1.54 (1.45, 1.63)	<0.001	1.44 (1.37, 1.53)	<0.001
Cohort 1950	1.58 (1.50, 1.68)	<0.001	1.52 (1.44, 1.60)	<0.001
Cohort 1952	1.69 (1.60, 1.79)	<0.001	1.58 (1.50, 1.67)	<0.001
Cohort 1954	1.69 (1.61, 1.78)	<0.001	1.60 (1.52, 1.68)	<0.001
Cohort 1956	1.69 (1.61, 1.78)	<0.001	1.57 (1.50, 1.64)	<0.001
Cohort 1958	1.67 (1.59, 1.75)	<0.001	1.56 (1.49, 1.63)	<0.001
Cohort 1960	1.58 (1.51, 1.65)	<0.001	1.48 (1.42, 1.54)	<0.001
Cohort 1962	1.62 (1.55, 1.70)	<0.001	1.50 (1.44, 1.57)	<0.001
Cohort 1964	1.56 (1.49, 1.63)	<0.001	1.45 (1.39, 1.51)	<0.001
Trend				
Age trend	2.99 (2.77, 3.22)	<0.001	4.87 (4.54, 5.23)	<0.001
Cohort trend	42.14 (35.08, 50.61)	<0.001	77.23 (64.95, 91.82)	<0.001
Household type				
Single			1 (reference)	
Married couple			2.27 (2.24, 2.31)	<0.001
Parents with children			3.56 (3.50, 3.61)	<0.001
Others			2.34 (2.30, 2.38)	<0.001
Model fit				
AIC	677045.50		653295.00	
BIC	677884.30		654164.50	

□ 가구지출의료비

- 본 연구에서는 보건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 중 가구지출 의료비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
- 가구지출의료비란, 의료비(응급, 입원, 외래) 및 처방 약 값(응급, 입원, 외래)의 본인 부담금을 뜻함
- 즉, 가구지출의료비는 평소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추후 예측까지 진행되었을 때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음
- 따라서 가구지출의료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APC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APCD모델을 활용함
- Trend에 대한 p-value를 살펴보았을 때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해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 모두 유의미했으며, Coefficient 값을 살펴보면 두 효과 중 코호트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한 세대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Cohort 1944부터 Cohort 1964까지의 Coefficient 값과 p-value를 살펴봄
- 가구지출의료비 변화율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에서 산업화세대(Cohort 1944~Cohort 1954)가 베이비붐 1세대(Cohort 1956~Cohort 1964)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의 가구지출 의료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곧, 세대 특성상 산업화세대가 베이비붐 1세대에 비해 더 높은 의료비 및 처방 약 값을 지불하고 있음을 뜻함
- 이를 토대로 산업화세대가 베이비붐 1세대에 비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혹은 반대로 더 건강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건강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목적과 사후 치료 목적 모두에서 가능하기 때문임
- 하지만 두 세대 간의 가구지출의료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 는 점은 기존 고령 인구인 산업화세대의 특성을 베이비붐 1세대
대에 투영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가구지출의료비는 가구 유형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지출의료비 변화율을 기준으로 하는 분석 결과에 따르면, 1
인 가구(reference) 보다 부부 가구, 자녀 동거 가구, 기타 가구
모두 더 높은 가구지출의료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됨
 - 가구지출의료비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자녀 동거 가
구, 부부 가구, 기타 가구, 1인 가구 순이었음
 - 이러한 결과는 추후 가구지출의료비를 예측함에 있어서 세대별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 유형별 특성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
함

<표 15>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량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Household medical expense1 (가구지출의료비)

Variable	Change amount (변화량)			
	Crude model		Adjusted model 2	
	Beta (95% CI)	p-value	Beta (95% CI)	p-value
Intercept	137.75 (131.36, 144.15)	<0.001	52.70 (45.44, 59.96)	<0.001
Cohort 1944	-5.31 (-21.76, 11.14)	0.527	5.42 (-10.79, 21.62)	0.512
Cohort 1946	5.64 (-10.28, 21.56)	0.487	8.96 (-6.72, 24.65)	0.263
Cohort 1948	15.28 (0.00, 30.56)	0.050	20.49 (5.43, 35.56)	0.008
Cohort 1950	7.70 (-7.43, 22.82)	0.319	12.76 (-2.16, 27.68)	0.094
Cohort 1952	9.88 (-4.53, 24.30)	0.179	19.54 (5.32, 33.76)	0.007
Cohort 1954	16.77 (2.73, 30.82)	0.019	21.28 (7.44, 35.12)	0.003
Cohort 1956	18.74 (5.04, 32.44)	0.007	21.13 (7.62, 34.63)	0.002
Cohort 1958	22.98 (9.47, 36.48)	<0.001	19.50 (6.20, 32.80)	0.004
Cohort 1960	28.62 (15.34, 41.90)	<0.001	25.86 (12.78, 38.94)	<0.001
Cohort 1962	25.44 (12.57, 38.30)	<0.001	18.89 (6.20, 31.58)	0.004
Cohort 1964	17.32 (4.51, 30.14)	0.008	10.49 (-2.14, 23.13)	0.104
Trend				
Age trend	246.17 (225.31, 267.02)	<0.001	237.57 (216.72, 258.43)	<0.001
Cohort trend	405.38 (354.59, 456.18)	<0.001	367.18 (316.55, 417.80)	<0.001
Household type				
Single			0 (reference)	
Married couple			96.69 (91.31, 102.07)	<0.001
Parents with children			82.37 (76.40, 88.34)	<0.001
Others			89.84 (83.67, 96.02)	<0.001
Asset or Income				
Earned income			6.52 (5.80, 7.24)	<0.001
Asset income			4.18 (3.37, 4.98)	<0.001
Household income				
Model fit				
AIC	923433.90		921220.00	
BIC	924145.60		921977.40	

<표 16>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Household medical expense1 (가구지출의료비)

Variable	Change percentage (변화율)			
	Crude model		Adjusted model 2	
	Exp(beta) (95% CI)	p-value	Exp(beta) (95% CI)	p-value
Intercept	-		-	
Cohort 1944	1.11 (0.97, 1.29)	0.133	1.29 (1.13, 1.48)	<0.001
Cohort 1946	1.28 (1.11, 1.46)	<0.001	1.30 (1.14, 1.48)	<0.001
Cohort 1948	1.26 (1.11, 1.44)	<0.001	1.30 (1.15, 1.48)	<0.001
Cohort 1950	1.23 (1.08, 1.40)	0.002	1.25 (1.11, 1.42)	<0.001
Cohort 1952	1.22 (1.07, 1.38)	0.002	1.34 (1.19, 1.51)	<0.001
Cohort 1954	1.30 (1.15, 1.47)	<0.001	1.36 (1.21, 1.52)	<0.001
Cohort 1956	1.16 (1.03, 1.30)	0.015	1.17 (1.05, 1.31)	0.006
Cohort 1958	1.26 (1.12, 1.41)	<0.001	1.16 (1.04, 1.30)	0.007
Cohort 1960	1.33 (1.18, 1.49)	<0.001	1.23 (1.11, 1.37)	<0.001
Cohort 1962	1.31 (1.17, 1.46)	<0.001	1.15 (1.03, 1.27)	0.011
Cohort 1964	1.23 (1.10, 1.37)	<0.001	1.06 (0.96, 1.18)	0.267
Trend				
Age trend	18.04 (15.06, 21.60)	<0.001	22.04 (18.54, 26.20)	<0.001
Cohort trend	114.62 (73.90, 177.76)	<0.001	110.16 (72.41, 167.59)	<0.001
Household type				
Single			1 (reference)	
Married couple			4.77 (4.56, 4.98)	<0.001
Parents with children			5.89 (5.60, 6.19)	<0.001
Others			4.30 (4.09, 4.53)	<0.001
Asset or Income				
Earned income			1.06 (1.05, 1.07)	<0.001
Asset income			1.03 (1.03, 1.04)	<0.001
Household income				
Model fit				
AIC	278586.00		270741.60	
BIC	279297.70		271499.00	

□ 노후생활준비 여부

- 복지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 중 본 연구에서는 노후생활 준비 여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노후생활준비 여부는 응답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본인 및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가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의미함
- 이것 외에도 복지 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변수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었지만, 추후 예측까지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성 측면에서 대부분 제외되었음
- 왜냐하면 대부분의 복지 현황에 대한 변수들은 수요 기반이 아닌 공급 기반에서 마련된 복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나타내는 변수들이었기 때문임
- 따라서 노후생활준비 여부에 대한 APC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APCD모형을 활용함
- Trend에 대한 p-value를 살펴보았을 때, 노후생활준비 여부에 대해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Coefficient 값을 살펴보았을 때 두 효과 중에서는 코호트 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음
- 하지만 노후생활준비 여부에서는 애초에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모두 앞서 살펴보았던 종속 변수들에서 만큼의 trend를 보이지는 않았음
- 그런 한편, 노후생활준비 여부에 대한 세대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Cohort 1945부터 Cohort 1963까지의 Coefficient 값과 p-value를 살펴봄
- 자산/소득을 재가공 없이 분석에 포함한 모델의 결과를 보았을 때, 산업화세대(Cohort 1945~Cohort1953)에 비해 베이비붐 1세대(Cohort 1955~Cohort 1963)에서 노후생활준비 여부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p-value를 보았을 때, 모든 코호트 그룹

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코호트 그룹에서만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아울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노후생활준비 여부는 자산 및 소득 수준과 관계가 깊을 것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추가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
- 실제로 자산/소득을 재가공 없이 분석에 포함한 모델의 결과를 보았을 때, Asset or Income에서 이에 포함되어 있는 Earned income 및 Asset income 변수 모두 상당 수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표 17> 노후생활준비 여부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자산, 소득 재가공X)

Table. APCD analysis for Preparation of the retirement life (노후생활준비여부)
자산/소득을 재가공 없이 분석에 포함

Variable	Logistic regression			
	Crude model		Adjusted model 2	
	Exp(beta) (95% CI)	p-value	Exp(beta) (95% CI)	p-value
Intercept	-		-	
Cohort 1945	1.03 (0.87, 1.23)	0.714	1.04 (0.87, 1.25)	0.668
Cohort 1947	1.38 (1.17, 1.64)	<0.001	1.44 (1.20, 1.72)	<0.001
Cohort 1949	1.44 (1.22, 1.71)	<0.001	1.39 (1.16, 1.67)	<0.001
Cohort 1951	1.20 (1.00, 1.44)	0.056	1.14 (0.94, 1.38)	0.193
Cohort 1953	1.39 (1.14, 1.69)	0.001	1.37 (1.12, 1.69)	0.003
Cohort 1955	1.49 (1.19, 1.86)	<0.001	1.43 (1.13, 1.80)	0.003
Cohort 1957	1.20 (0.93, 1.53)	0.156	1.08 (0.84, 1.40)	0.535
Cohort 1959	1.44 (1.10, 1.89)	0.008	1.33 (1.00, 1.76)	0.049
Cohort 1961	1.32 (0.98, 1.78)	0.065	1.19 (0.88, 1.63)	0.261
Cohort 1963	1.68 (1.21, 2.32)	0.002	1.55 (1.10, 2.17)	0.011
Trend				
Age trend	2.70 (2.03, 3.59)	<0.001	2.25 (1.66, 3.05)	<0.001
Cohort trend	7.55 (4.23, 13.48)	<0.001	3.80 (2.08, 6.97)	<0.001
Household type				
Single			1 (reference)	
Married couple			1.45 (1.30, 1.61)	<0.001
Parents with children			0.95 (0.84, 1.08)	0.423
Others			0.67 (0.59, 0.77)	<0.001
Asset or Income				
Earned income			1.02 (1.02, 1.02)	<0.001
Financial income			1.30 (1.26, 1.34)	<0.001
Real estate income			1.07 (1.06, 1.08)	<0.001
Household income				
Model fit				
AIC	20406.88		18473.12	
BIC	20730.31		18842.76	

- 노후생활준비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APCD모델에 자산과 소득 각각을 3개 분위로 구분하여 변수로써 포함해 재분석을 진행함
- 그 결과 Trend에 대한 p-value를 살펴보았을 때, 노후생활준비 여부에 대해 연령 효과는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호트 효과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코호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Cohort 1945부터 Cohort 1963까지의 p-value를 살펴본 결과, 그 어떤 코호트 그룹에서도 유의미한 p-value가 발견되지 않았음
- 즉, 앞서 자산과 소득을 3개 분위로 구분하지 않고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했을 때, 일부 코호트 그룹에서 코호트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것은 자산과 소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제로, 추가 분석 결과의 Asset or Income에서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Financial income(금융 소득) 및 Real estate income(자산 소득)이 높은 수준 유효하게 나타남
- 이처럼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가 깊은 노후생활준비 여부는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 간에 유의미한 세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베이비붐 1세대만이 갖는 세대 효과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노후생활준비 여부 변수는 예측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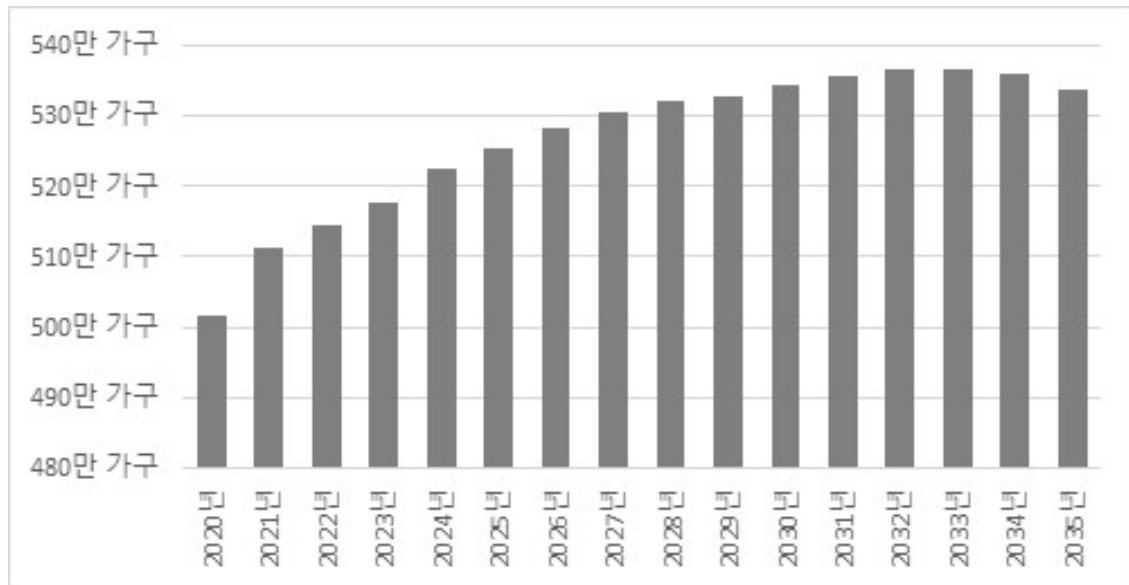
<표 18> 노후생활준비 여부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자산, 소득 재가공O)

Table. APCD analysis for Preparation of the retirement life (노후생활준비여부)
자산/소득을 각각 3분위로 재가공 후 분석에 포함

Variable	Logistic regression			
	Crude model		Adjusted model 2	
	Exp(beta) (95% CI)	p-value	Exp(beta) (95% CI)	p-value
Intercept	-		-	
Cohort 1945	1.03 (0.87, 1.23)	0.714	3.0e-02 (0.00, 6.6e+04)	0.641
Cohort 1947	1.38 (1.17, 1.64)	<0.001	1.0e-02 (0.00, 4.9e+07)	0.657
Cohort 1949	1.44 (1.22, 1.71)	<0.001	0.00 (0.00, 6.4e+10)	0.691
Cohort 1951	1.20 (1.00, 1.44)	0.056	0.00 (0.00, 1.9e+13)	0.657
Cohort 1953	1.39 (1.14, 1.69)	0.001	0.00 (0.00, 9.3e+15)	0.649
Cohort 1955	1.49 (1.19, 1.86)	<0.001	0.00 (0.00, 6.2e+18)	0.652
Cohort 1957	1.20 (0.93, 1.53)	0.156	0.00 (0.00, 4.3e+21)	0.655
Cohort 1959	1.44 (1.10, 1.89)	0.008	0.00 (0.00, 1.0e+24)	0.636
Cohort 1961	1.32 (0.98, 1.78)	0.065	0.00 (0.00, 6.7e+26)	0.639
Cohort 1963	1.68 (1.21, 2.32)	0.002	0.00 (0.00, 5.4e+29)	0.645
Trend				
Age trend	2.70 (2.03, 3.59)	<0.001	2.90 (1.24, 7.00)	0.015
Cohort trend	7.55 (4.23, 13.48)	<0.001	9.4e+12 (0.00, 4.1e+63)	0.616
Household type				
Single			1 (reference)	
Married couple			2.00 (1.19, 3.50)	0.010
Parents with children			1.50 (0.77, 2.80)	0.250
Others			0.88 (0.45, 1.70)	0.714
Asset or Income				
Earned income1			0.79 (0.46, 1.40)	0.401
Earned income2			0.52 (0.34, 0.81)	0.004
Earned income3			1 (reference)	
Financial income1			0.25 (0.14, 0.47)	<0.001
Financial income2			0.49 (0.28, 0.88)	0.016
Financial income3			1 (reference)	
Real estate income1			0.33 (0.21, 0.50)	<0.001
Real estate income2			0.44 (0.30, 0.67)	<0.001
Real estate income3			1 (reference)	
Household income				
Model fit				
AIC	20406.88		1094.45	
BIC	20730.31		1323.05	

2. 가구 추계

- 베이비붐 1세대 가구주 가구 추계 결과 (주요 가구 유형 총합)
 - 가구 추계 작업의 참고 자료가 되는 가계동향조사 2010년, 2015년, 2020년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국내 전체 가구의 가구 유형을 37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37개 가구 유형 중 전체 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부부 가구, 자녀 동거 가구를 주요 가구 유형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가구 추계를 진행함
 - 즉,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가구 추계의 대상은 베이비붐 1세대가 가구주로 있는 1인 가구, 부부 가구, 자녀 동거 가구이며, 시계열 범위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임
 - 가구 추계의 자세한 결과는 부록에서 확인 가능함
 - 베이비붐 1세대가 가구주인 1인 가구, 부부 가구, 자녀 동거 가구의 총합은 2020년 기준 약 502만 가구에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해당 가구 유형들의 총합은 2033년에 약 537만 가구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다소간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2035년 기준 약 534만 가구 정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그림 5] 2020-2035년 베이비붐 1세대 가구주의 주요 가구 추계 결과 (연도별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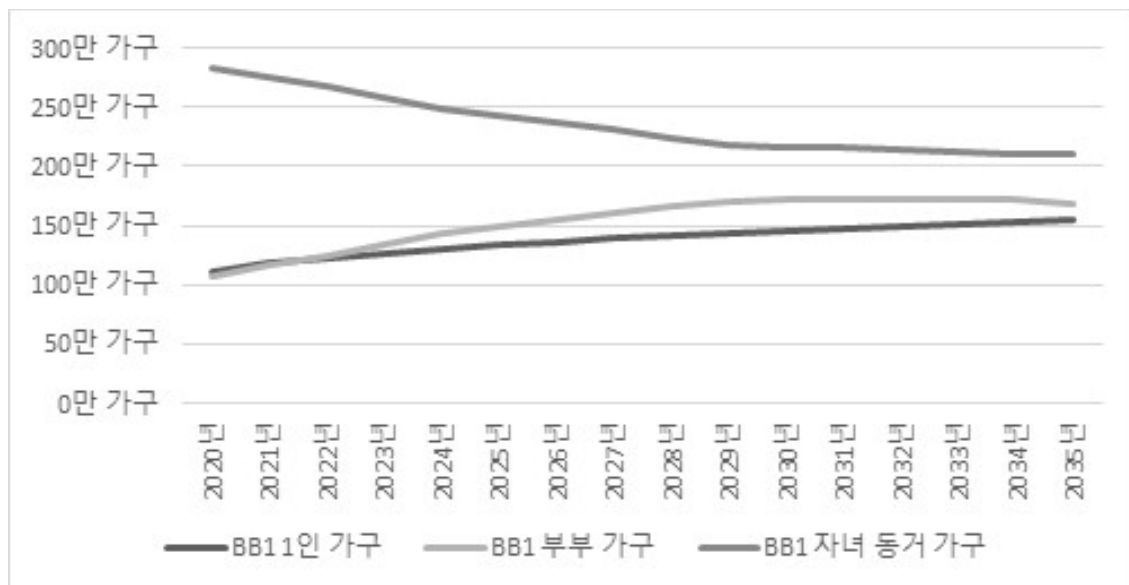
□ 베이비붐 1세대 가구주 가구 추계 결과 (주요 가구 유형별)

- 이번에는 가구 추계 결과에 대해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함
- 우선 베이비붐 1세대 1인 가구는 2020년 기준 약 111만 가구에
서 2035년 기준 약 155만 가구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생
각해볼 수 있는 경우는 베이비붐 1세대 부부 가구에서 이혼 혹
은 사별의 발생으로 인해 1인 가구로 귀속되는 상황임
- 이 외에는 이번 가구 추계에 포함되지 않은 34개 가구 유형에
서 가구 분화가 발생하여 1인 가구로 포함되는 경우를 생각하
여 볼 수 있음
- 예컨대, 베이비붐 1세대 가구주와 그의 모(母)가 2인 가구로 거
주하다가 모(母)의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남은 베이비붐 1세대
가구주가 1인 가구가 되는 상황을 들 수 있음
-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1인 가
구는 그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유형으로 자리함
- 다음으로 베이비붐 1세대 부부 가구는 2020년 기준 약 107만

가구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2029년 기준 약 171만 가구까지 증가할 예정

- 이후 2034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35년에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며 약 168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임
- 베이비붐 1세대 부부 가구의 빠른 증가는 이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베이비붐 1세대의 자녀들은 이들의 출생 연도상 대개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데, 2020년부터 2029년까지는 이들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거나 혼인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는 나이에 접어드는 시기임
- 즉, 베이비붐 1세대 자녀 동거 가구가 자녀의 가구 분화로 인해 부부 가구로 대거 편입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로 인해 베이비붐 1세대 부부 가구는 2020년 기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유형에서 2035년에는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유형으로 떠오르게 됨
- 마지막으로 살펴볼 베이비붐 1세대 자녀 동거 가구는 가구 추계 전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유형임
- 이들은 2020년 기준 약 284만 가구에서 이후 가파른 감소세로 2029년 218만 가구까지 감소하게 됨
- 이후에도 꾸준한 감소를 보이며 2035년에는 211만 가구 정도 수준을 보일 예정
-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붐 1세대 부부 가구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들의 생애주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왜냐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베이비붐 1세대 부부 가구가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베이비붐 1세대 자녀 동거 가구가 감소하는 것 역시 밀레니얼 세대의 가구 분화에서 기인한 현상이기 때문임

- 이처럼 가구 추계 결과를 주요 가구 유형의 총합으로만 살펴봤을 때와는 다르게, 각 가구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보면 다양한 가구 유형 간의 역학관계를 볼 수 있음
- 각 가구 유형들은 그 생애가 서로 간에 연동되어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가구 유형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구주와 가구 구성원들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가구 유형의 영향을 받게 됨
- 이것이 바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가구 유형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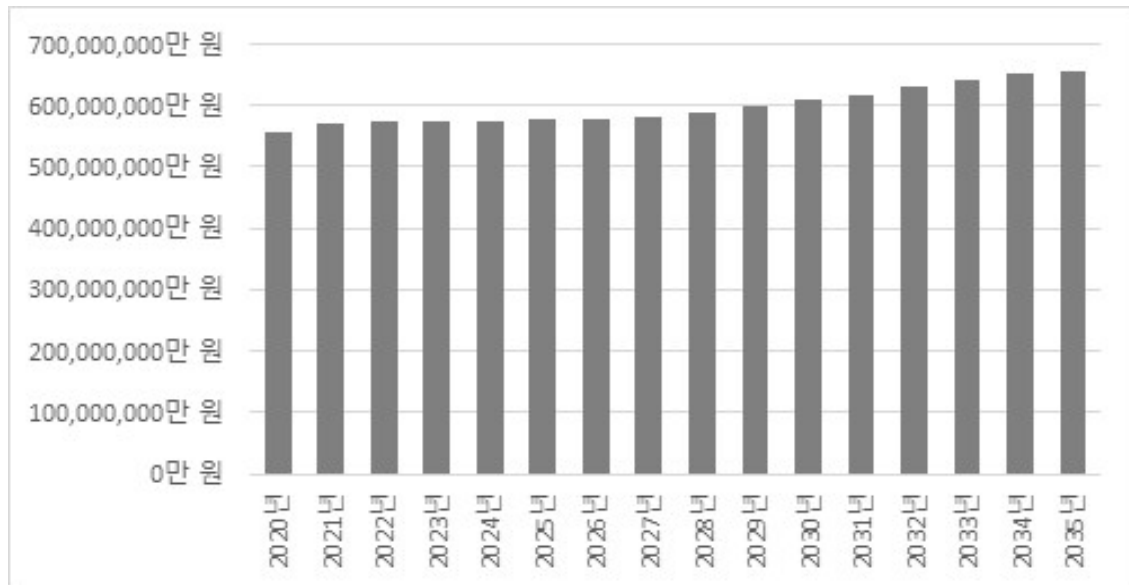
[그림 6] 2020-2035년 베이비붐 1세대 가구주의 주요 가구 추계 결과 (가구 유형별)

3. 수요 예측

□ 가구지출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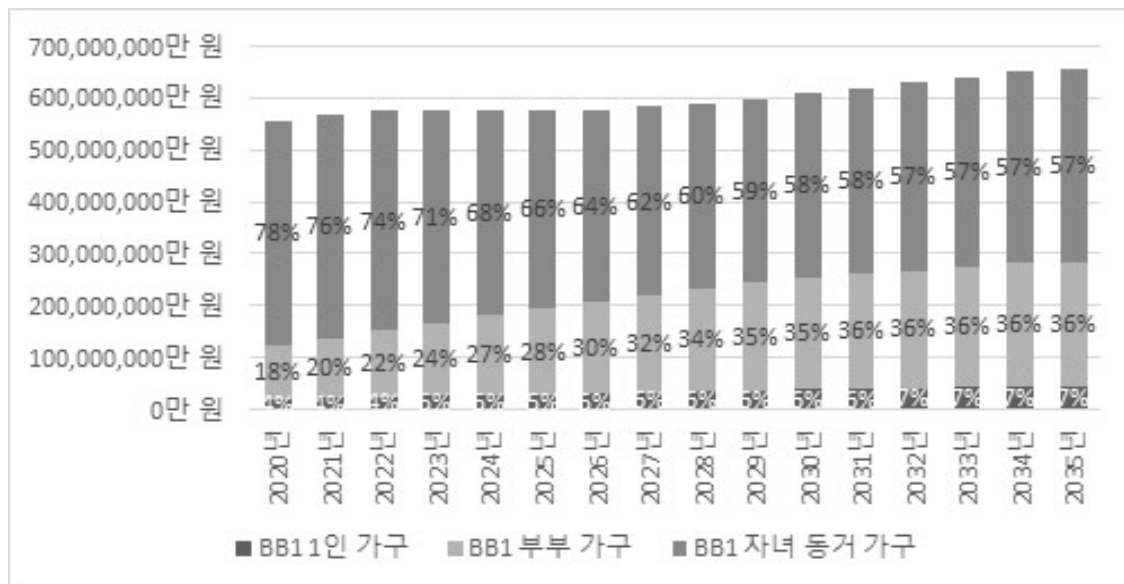
- 앞서 APC분석을 통해 살펴본 여러 가지 종속변수 중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해 수요 예측을 진행함
- 가구지출의료비에서는 유의미한 코호트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베이비붐 1세대의 세대 특성을 고려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임

- 동시에 가구지출의료비는 가구 유형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붐 1세대의 세대 특성뿐만 아니라 가구 유형별 특성까지 반영한 수요 예측을 진행하게 됨
-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한 APCD모델 실행 결과를 토대로 APC-IE 모델을 추가적으로 설계하여 수요 예측에 활용할 가중치를 산출함
- 이 가중치는 베이비붐 1세대에의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하여 각 가구 유형별로 산출된 값으로, 이를 가구 유형별 추계 결과에 적용한 뒤 수요 예측 결과를 도출함
- 그 결과, 베이비붐 1세대가 2020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지출의료비는 약 5조 6천억 원으로 도출됨
-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베이비붐 1세대의 가구지출의료비는 2030년경 약 6조 원을 돌파하고 2035년에는 약 6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 가구지출의료비가 의료비(응급, 입원, 외래) 및 처방 약 값(응급, 입원, 외래)의 본인 부담금을 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술된 예측 결과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규모의 비용임



[그림 7] 2020-2035년 베이비붐 1세대 가구주의
주요 가구 가구지출의료비 예측 결과 (연도별 합계)

- 이렇게 도출된 베이비붐 1세대의 가구지출의료비 수요 예측 결과를 각 가구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베이비붐 1세대 자녀 동거 가구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78%에서 2035년 기준 약 57%까지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하지만 이러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간 동안 각 연도별 가구지출의료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구 유형임
- 베이비붐 1세대 부부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지출의료비 중 2020년 기준 약 18%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35년에는 약 36%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임
- 전체 가구지출의료비 중 베이비붐 1세대 1인 가구는 2020년도에 약 4%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35년 약 7% 정도에 그쳐 미미한 수준을 보임
- 이처럼 가구 추계 결과에서 각 가구 유형별로 그 규모가 변화하는 모습이 달랐듯, 가구 유형별 가구지출의료비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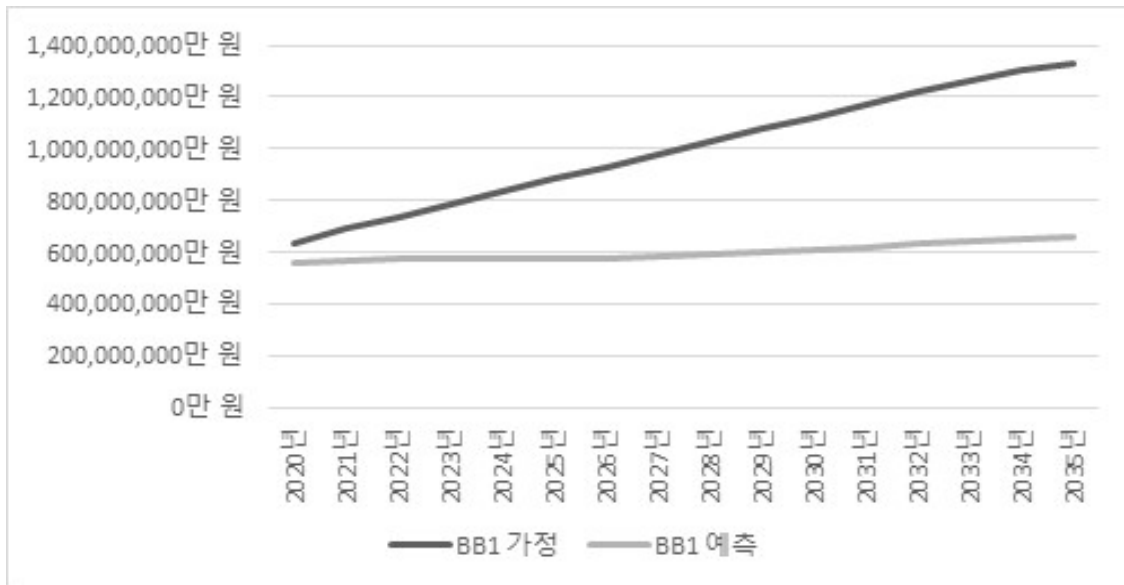


[그림 8] 2020-2035년 베이비붐 1세대 가구주의
주요 가구 가구지출의료비 예측 결과 (가구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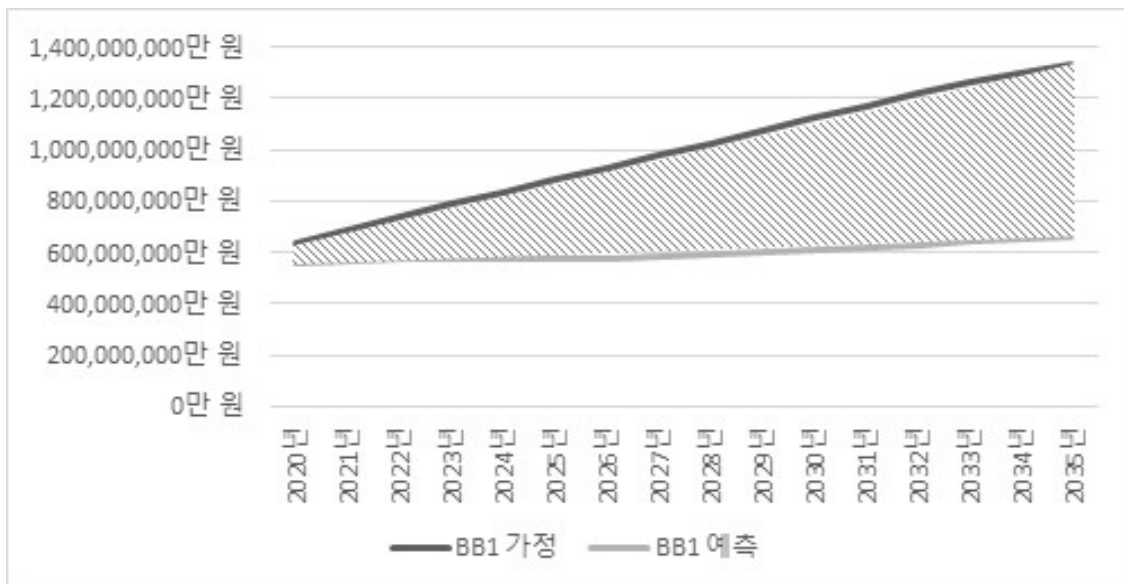
- 만약 APC분석에서 코호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 가구지출의료비는 어떻게 산출되었을까?
- 즉, 수요 예측을 진행함에 있어서 베이비붐 1세대가 이들의 고유 특성이 아닌, 기존의 고령 인구인 산업화세대의 특성을 따라 갔다면 가구지출의료비가 어떻게 산출되었을지 확인해보기로 함
- 이런 가정을 반영한 베이비붐 1세대의 가구지출의료비를 산출하기 위해 산업화세대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기록한 가구지출의료비를 분석해 수요 예측에 활용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산업화세대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기록한 가구지출의료비를 토대로 APC-IE모델을 실행하여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산업화세대 가구지출의료비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수요 예측에 활용하는 방식임
- 수요 예측 기간인 2020년부터 2035년까지의 베이비붐 1세대 연령이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산업화세대 연령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술된 논리가 성립하게 됨
- 따라서 산출된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산업화세대 가구지출

의료비 가중치를 2020년부터 2035년까지의 베이비붐 1세대 가구 추계 결과에 적용해 결과를 도출함

- 그 결과 베이비붐 1세대가 산업화세대의 특성을 따라갔더라면 2020년 기준 약 6조 4천억 원의 가구지출의료비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산출됨
-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28년경 약 10조 3천억 원을 돌파한 뒤, 2035년 기준 약 13조 3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그래프 상에서 보면, “BB1 가정”의 선은 베이비붐 1세대가 그들의 인구/가구 규모로 산업화세대의 특성을 따라간다면 지출하게 될 가구지출의료비를 뜻함
- “BB1 예측”의 선은 베이비붐 1세대가 이들의 세대 특성을 기반으로 앞으로 지출하게 될 가구지출의료비 예측치를 의미함
- 그렇다면 두 선 그래프 사이의 면적은 베이비붐 1세대가 이들 고유의 세대 특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절약하게 되는 가구지출의료비 규모라고 볼 수 있음
- 두 선 그래프 사이의 면적을 계산하여 산출하면 약 64조 원 정도임
- 다시 말해, 베이비붐 1세대가 기존의 고령 인구인 산업화세대의 세대 특성을 따르지 않고 이들 고유의 세대 특성을 갖게 되어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약 64조 원의 가구지출의료비를 절약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9] 2020-2035년 베이비붐 1세대 가구주의
주요 가구 가구지출의료비 예측 결과 (가정과 예측 비교)



[그림 10] 2020-2035년 베이비붐 1세대 가구주의
주요 가구 가구지출의료비 예측 결과 (가정과 예측의 차이 표시)

4. 소결

□ 가설 검증

- 앞서 아래와 같은 연구 가설을 제시한 바 있음

- 양적 연구에서는 다음을 연구 가설로 함
 - ①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가구지출의 료비, 노후생활준비 여부 각각에 대해 코호트 효과(세대 효과)가 유의미할 것이다.
 - ②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가구지출의 료비, 노후생활준비 여부 각각에 대해 가구 유형별 차이가 유의미할 것이다.
- 다음은 수요 예측 부분의 연구 가설임
 - ① 베이비붐 1세대의 보건·복지 정책 수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 ② 베이비붐 1세대의 세대 특성은 산업화세대의 세대 특성보다 보건·복지 정책 수요의 증가에 더 적게 기여할 것이다.

- 이에 대해 전술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설 검정을 진행함
- 양적 연구의 가설 ①에 대해서는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가구지출의료비에 있어서 코호트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노후생활준비 여부에서는 코호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음
- 양적 연구의 가설 ②와 관련하여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가구지출의료비에 있어서 가구 유형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코호트 효과와 마찬가지로 가구 유형별 차이 또한 노후생활준비 여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다음으로 수요 예측 연구 가설 ①은 참인 것으로 확인됨
- 베이비붐 1세대의 보건·복지 정책 수요 예측치(가구지출의료비 예측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수요 예측 연구 가설 ②와 관련하여, 해당 연구 가설 또한 참인 것으로 밝혀짐
- 베이비붐 1세대에 산업화세대의 세대 특성을 투영하여 가구지

출의료비를 산출하였을 때, 약 64조 원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임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1. 양적 연구 및 수요 예측의 주요 결론

□ 베이비붐 1세대 코호트 성향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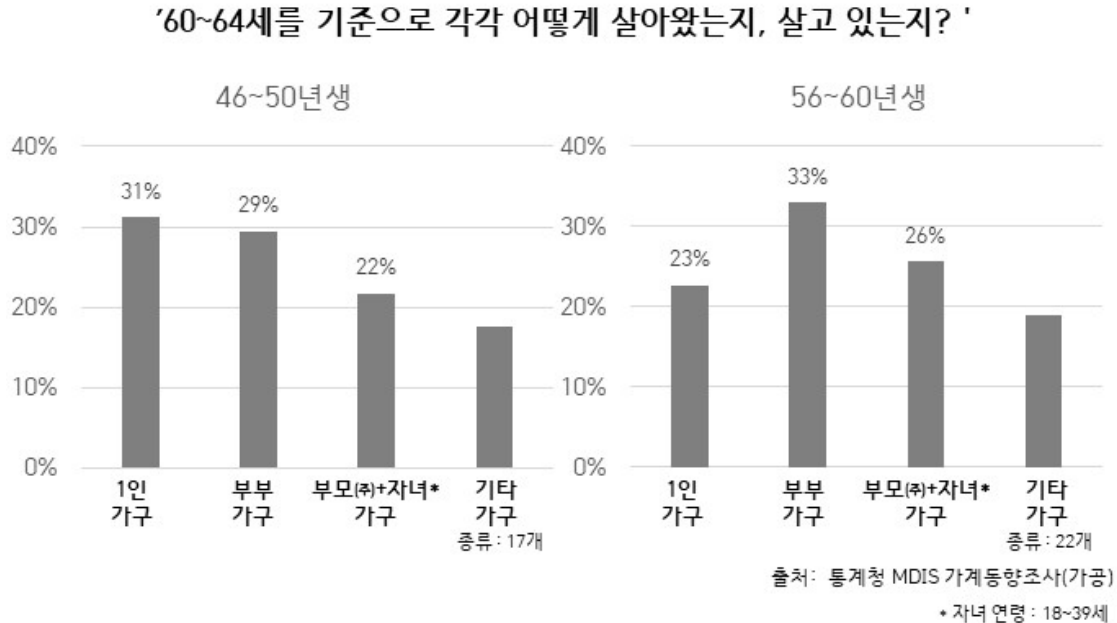
- 베이비붐 1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수는 본 연구에서 추계를 진행한 2035년까지는 물론,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임
- 베이비붐 1세대가 점차 고령 인구로 편입하게 되면서 가구 분화를 겪고, 그 결과 가구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가구 생애 주기상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임
- 그런 베이비붐 1세대가 이렇게 많은 인구 및 가구 규모로 산업화세대의 세대 특성을 따라간다면 매우 높은 수준의 가구지출의료비를 발생시키게 될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함
- 다행인 점은, APC분석을 통해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해 코호트 효과가 연령 효과보다 더 크고 유의미함을 확인했다는 것임
- 즉, 베이비붐 1세대가 미래에 발생시킬 가구지출의료비에 있어서 이들이 산업화세대와 같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점 보다 이들 세대만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임
- 이러한 배경에서 코호트 효과를 토대로 베이비붐 1세대의 가구지출의료비를 예측하였을 때, 이들이 산업화세대와 같은 성향을 지녔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가계지출의료비가 약 64조 원 정도 절감될 수 있음이 본 연구에서 밝혀짐
- 약 64조 원의 비용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1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코호트 성향이 최소한 공고히 유지되도록, 나아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붐 1세대의 코호트 성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보건·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질적 연구 부분에서의 함의와도 상통하는 결론임

- 아울러, 모든 인구는 생애주기상 사망을 겪게 되면서 대부분 최소 1회 이상의 큰 보건의료비용을 발생시키게 됨
- 즉, 2035년까지 약 64조 원이 절감될 수 있음은 확인했지만, 결국 특정 시점이 되면 그동안 미루어져 왔던 보건의료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 베이비붐 1세대의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이렇게 일시에 집중되는 보건의료비용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함
- 이에 대해 인구학적 요소를 충분히 참작한 연구를 사전에 진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확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것이 2035년까지 약 64조 원의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마련된 시간 동안 수행되어야 할 임무임

□ 베이비붐 1세대의 코호트 성향을 결정한 인구학적 요소, ‘자녀’

- 베이비붐 1세대는 산업화세대 보다 자녀와 더 오랜 기간 거주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로부터의 영향이 이들 삶 곳곳에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 베이비붐 1세대의 자녀는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특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함께 거주하는 자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모의 건강 상태를 포함한 다방면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때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함
- 이처럼 베이비붐 1세대의 세대 특성 중 한 축을 차지하는 ‘자녀’를 베이비붐 1세대 관련 보건·복지 정책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자녀들의 독립을 돕는 복지 정책은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을 채널로 하

여 부모 세대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볼 수 있음



[그림 11] 세대별 60~64세 기준 가구 유형 분포

2. 질적 연구의 주요 결론

□ 보건·복지 정책 측면에서 베이비붐 1세대의 코호트 성향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 우선 베이비붐 1세대는 젊은 세대 못지않게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때문에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특정 나이가 되었다고 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를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 스스로가 진정한 노인이 되었다고 느낄 때, 자발적으로 복지를 개시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혹은 마치 청년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 마련되어 있는 청년 정책 중 원하는 혜택을 필요에 맞게 신청하여 수혜자가 되는 것처럼 베이비붐 1세대의 수요 관련 의사 역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함

- 다음으로, 베이비붐 1세대는 경제활동의 의미를 다양하게 인식하는 만큼 다양한 이유에서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음
- 즉, 경제활동의 대가로 꼭 즉각적인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함
- 산업화세대 9분위 이상과는 다르게 베이비붐 1세대 9분위 이상에서는 “돈을 떠나서...”라는 전제가 빈번하게 등장함
- 나름 고학력에 사회 경험이 풍부한 ‘나’라는 사회 구성원을 이 세상이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는 태도가 드러나는 대목임
- 일자리를 희망하는 모든 고령 인구의 수요를 공공 차원에서 충족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하지만 베이비붐 1세대의 코호트 성향을 고려하면 경제적 보상에 대응되는 대체 가치를 활용하여 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고 보상을 지급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음
- 베이비붐 1세대 고령 인구가 필요로 할 때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 추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이 대체 가치의 예시임
-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1세대는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이때 커뮤니티란, 노인정, 복지관 등 전통적 형태의 커뮤니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베이비붐 1세대 대부분은 자신이 노인이라고 지칭되기에 아직 젊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일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전통적인 형태의 커뮤니티에 속하기에는 여전히 이르다고 생각함
- 따라서 이들은 커뮤니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는 베이비붐 1세대가 젊은 시절부터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을 접했다는 세대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전까지의 고령 인구와는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베이

비뚤 1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 정책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임

제2절 제언

1. 연구 제한점

□ 본인부담금에 한정된 분석

- 진료비는 크게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됨
- 본 연구에서 분석과 수요 예측의 대상이었던 가구지출의료비는 의료비(응급, 입원, 외래) 및 처방 약 값(응급, 입원, 외래)의 본인부담금을 의미함
- 즉,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은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함
- 공단부담금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데이터에 담겨있는데,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본 제한점을 갖게 됨
- 이처럼 공단부담금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특히 1인 가구의 가구지출의료비 분석 및 예측 결과 해석에 한계가 발생함
- 예컨대 최근 고령 1인 가구의 증가폭이 매우 크고, 동시에 이들이 이미 보건·복지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임
- 하지만 분석 결과에서는 이들의 가계지출의료비 즉, 본인부담금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APC분석 결과 가계지출의료비는 1인 가구보다 부부 가구, 자녀동거 가구, 기타 가구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임
- 해당 결과는 소득과 자산의 영향을 통제한 뒤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자칫 1인 가구에게 들어가는 진료비가 가장 적다는 해석을 불러올 수 있음
-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낮은 반면에 공단부담금에서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더 높은 지출을 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런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불가피함

<표 19>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Household medical expense1 (가구지출의료비1)

Variable	Change percentage (변화율)	
	Adjusted model 2	
	Exp(beta) (95% CI)	p-value
Intercept	-	
Household type		
Single	1 (reference)	
Married couple	4.77 (4.56, 4.98)	<0.001
Parents with children	5.89 (5.60, 6.19)	<0.001
Others	4.30 (4.09, 4.53)	<0.001
Asset or Income		
Earned income	1.06 (1.05, 1.07)	<0.001
Asset income	1.03 (1.03, 1.04)	<0.001
Household income		

- 세대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1인 가구
 - 연구 진행 중 산업화세대 1인 가구와 베이비붐 1세대 1인 가구가 유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
 -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표본 중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한 APC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함
 - Trend에 대한 p-value를 살펴보았을 때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해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 모두 유의미했으며, Coefficient 값을 살펴보면 두 효과 중 코호트 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세대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Cohort 1944부터 Cohort 1964까지의 Coefficient 값과 p-value를 살펴본 결과,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에서는 코호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음

- Trend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코호트 효과는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가 아닌 베이비붐 2세대 이하 세대에서 기인한 결과였음
- 이처럼 여러 가지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에서만 베이비붐 1세대의 세대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다시 말하면, 베이비붐 1세대 1인 가구에서는 산업화세대를 대상으로 하던 보건·복지 정책이 지속되어도 기존 수준의 효과를 담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표 20> 1인 가구의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량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Household medical expense¹ of Single person household (가구지출의료비 1)

Variable	Change amount (변화량)			
	Crude model		Adjusted model	
	Beta (95% CI)	p-value	Beta (95% CI)	p-value
Intercept	61.60 (54.62, 68.57)	<0.001	48.76 (40.47, 57.05)	<0.001
Cohort 1944	29.50 (9.43, 49.57)	0.004	31.67 (11.51, 51.84)	0.002
Cohort 1946	30.67 (9.13, 52.22)	0.005	31.05 (9.41, 52.69)	0.005
Cohort 1948	21.92 (-0.19, 44.03)	0.052	23.19 (0.96, 45.43)	0.041
Cohort 1950	32.78 (8.90, 56.65)	0.007	34.02 (10.03, 58.02)	0.005
Cohort 1952	22.24 (-1.00, 45.48)	0.061	23.01 (-0.33, 46.36)	0.053
Cohort 1954	39.77 (14.86, 64.67)	0.002	41.27 (16.29, 66.25)	0.001
Cohort 1956	42.06 (16.01, 68.11)	0.002	44.19 (18.03, 70.34)	<0.001
Cohort 1958	40.07 (10.61, 69.53)	0.008	41.47 (12.01, 70.94)	0.006
Cohort 1960	51.48 (21.62, 81.33)	<0.001	52.86 (23.04, 82.68)	<0.001
Cohort 1962	43.57 (10.41, 76.73)	0.010	39.63 (6.50, 72.77)	0.019
Cohort 1964	49.51 (14.45, 84.58)	0.006	51.89 (16.87, 86.91)	0.004
Trend				
Age trend	139.12 (98.96, 179.27)	<0.001	119.34 (78.94, 159.73)	<0.001
Cohort trend	235.47 (152.96, 317.99)	<0.001	190.82 (106.58, 275.05)	<0.001
Asset or Income				
Earned income			5.54 (2.32, 8.77)	<0.001
Asset income			12.61 (9.45, 15.77)	<0.001
Model fit				
AIC	141798.90		141735.00	
BIC	142369.20		142319.90	

<표 21> 1인 가구의 가구지출의료비에 대한 APCD 분석 결과 (변화율 기준)

Table. APCD analysis for Household medical expense¹ of Single person household (가구지출의료비 1)

Variable	Change percentage (변화율)			
	Crude model		Adjusted model	
	Exp(beta) (95% CI)	p-value	Exp(beta) (95% CI)	p-value
Intercept	-		-	
Cohort 1944	1.46 (1.03, 2.05)	0.033	1.50 (1.06, 2.12)	0.021
Cohort 1946	1.39 (0.96, 2.00)	0.084	1.38 (0.96, 2.01)	0.086
Cohort 1948	1.46 (1.00, 2.13)	0.052	1.48 (1.01, 2.16)	0.045
Cohort 1950	1.49 (0.99, 2.24)	0.058	1.51 (1.00, 2.28)	0.050
Cohort 1952	1.49 (1.00, 2.21)	0.051	1.50 (1.00, 2.23)	0.049
Cohort 1954	1.48 (0.97, 2.27)	0.07	1.51 (0.99, 2.32)	0.058
Cohort 1956	1.28 (0.82, 2.00)	0.279	1.32 (0.84, 2.06)	0.227
Cohort 1958	1.43 (0.87, 2.38)	0.162	1.46 (0.88, 2.42)	0.141
Cohort 1960	1.74 (1.04, 2.90)	0.035	1.77 (1.06, 2.95)	0.028
Cohort 1962	0.92 (0.52, 1.63)	0.782	0.86 (0.49, 1.51)	0.592
Cohort 1964	0.88 (0.48, 1.60)	0.675	0.91 (0.50, 1.66)	0.764
Trend				
Age trend	84.69 (42.54, 168.60)	<0.001	60.05 (30.05, 120.03)	<0.001
Cohort trend	504.20 (122.50, 2075.28)	<0.001	237.72 (56.10, 1007.36)	<0.001
Asset or Income				
Earned income			1.09 (1.04, 1.16)	0.001
Asset income			1.25 (1.19, 1.32)	<0.001
Model fit				
AIC	51795.47		51726.67	
BIC	52365.79		52311.61	

2. 연구 활용 방안

□ 각종 추계 작업으로의 활용

- 현재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국민건강보험 재정추계 등 다양한 추계가 시행되고 있음
- 이 추계들은 사회 여러 분야의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진행되는데, 그 요소들 중 현재 이야기되는 재정난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인구’임

- 하지만 본 연구를 토대로 각종 추계들의 수요 단위를 ‘인구’에서 ‘가구’로 바꾸고, 가구 유형별 Age-Period-Cohort 특성을 고려하는 추계 모형을 도입한다면 추계 결과의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향후 어느 가구 유형에서 어떤 이유로 얼마만큼의 지출이 발생하게 될지도 예측 가능하게 됨
- 이러한 추계 방식의 변화는 수요 혹은 지출이 줄어든다는 추계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함이 아니라, ‘베이비붐 1세대의 세대효과를 유지시켜야 함’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함임
- 이뿐만 아니라, ‘가구’ 단위에서 가구 간의 역학 관계(Dynamics)를 반영하게 됨으로써 복지 분야의 예방 정책과 마찬가지로 가족 정책 혹은 공동체 정책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

□ 세대 성향의 양적 검증

- 본 연구에서는 질적 조사를 통해 베이비붐 1세대의 성향을 발굴함
- 추후 해당 성향을 유형화한 뒤,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각 성향 유형에 대해 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각 성향 유형은 양적 규모, 인구사회학적 특성, 라이프 스타일 등의 측면에서 구체화되고 삶 전반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할 것
-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 1세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개발에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됨
- 이때 개발된 성향 검증 설문 문항은 보건·복지 분야의 다른 조사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
- 다른 조사와의 결합은 해당 조사의 목적 및 주제에 대해 조사 대상 인구 및 가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분석 및 해석을 가능

토록 할 것

참고문헌

1. 김민정. (2015). 베이비부머 가계의 가구인수별 소비지출패턴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4), 205-230.
2. 김윤수, & 문상호. (2006). 노인복지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공급의 DEA분석.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6, 1.
3. 김정근. “위계적 APC모델을 활용한 가계부채결정원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2017): 396-405. Web.
4. 민연경, & 이명석. (2012).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형평성과 특화도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5(3), 177-203.
5. 배승중, 김대식, 김수진, 김성필, 이유직, 김영주, . . . Im Sang-Bong. (2019). IPA 분석을 통한 농촌 복지·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수요 분석. 농촌계획, 25(2), 113-125.
6. 최은희, & 조택희. (2020). 지역 간 노인복지시설 공급 형평성 분석. GRI 연구논총, 22(1), 187-210.
7. Drescher, Larissa S, and Jutta Roosen. “An Analysis Of The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For Food-At-Home And Away-From-Home Expenditures In Germany.” IDEAS Working Paper Series from RePEc (2010): IDEAS Working Paper Series from RePEc, 2010. Web.
8. Hu, Y., Leinonen, T., Van Hedel, K., Myrskylä, M., & Martikainen, P.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rrangements and higher use of hospital care at middle and older ages: To what extent do observed and unobserv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explain this association? BMC Public Health, 19(1), 1011.
9. Imamura, H., Uchiyama, E., Akiyama, M., Kaneko, I., Takebayashi, T., & Nishiwaki, Y. (2020). Erratum: Relationship of living arrangement with the decline in functional capacity

- in elderly people by gender: A longitudinal observational study (Environ Health Prev Med (2020) 25:15 DOI: 10.1186/s12199-020-00853-w). Environmental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25(1), 22.
10. Kontis, Vasilis, PhD, Bennett, James E, PhD, Mathers, Colin D, PhD, Li, Guangquan, PhD, Foreman, Kyle, PhD, & Ezzati, Majid, Prof. (2017). Future life expectancy in 35 industrialised countries: Projections with a Bayesian model ensemble. *The Lancet (British Edition)*, 389(10076), 1323-1335.
 11. Wang, Zhenkun, Chuanhua Yu, Henry Xiang, Gang Li, Songbo Hu, and Jinhui Tang. "Age-period-cohort Analysis of Trends in Mortality from Drowning in China: Data from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5." *Scientific Reports* 8.1 (2018): 5829-7. Web.
 12. Yang, Yang, and Kenneth C. Land. *Age-period-cohort Analysis : New Models, Methods, and Empirical Applications / Yang Yang and Kenneth C. Land*. 1st ed. Boca Raton, FL: CRC, 2013. Print. Interdisciplinary Statistics.
 13. Zheng, Hui, Yang Yang, and Kenneth C. Land. "Variance Function Regression in Hierarchical Age-Period-Cohort Models: Applications to the Study of Self-Reported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6 (2011): 955-83. Web.

부록1. 질적 연구 조사 질문지

응답자 조건 – 산업화 세대

- 1945년생~1954년생 남/여(Soft Quota)
- 가정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을 대표하여 가정에 대해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자
- 거주 지역: 서울(자치구별 Soft Quota)
- 순 자산 상위 9분위 이상 혹은 6분위 구간 내 부부(2인) 가구

응답자 쿼터/그룹 구성 (10그룹, 그룹 당 6명)

그룹	세대	소득	가구형태	일정	장소
그룹 1	산업화 세대 (1945년생~1954년생) 만 68~77세	9분위 이상	부부 가구	1월 26일(목) 11:00	중구 입소스 6층 FGD#1
그룹 2		6분위 구간	부부 가구	1월 26일(목) 15:00	
그룹 3	베이비 부머 1세대 (1955년생~1964년생) 만 58~67세	9분위 이상	부부 가구	1월 27일(금) 11:00	용산구 마인드스토밍
그룹 4				1월 27일(금) 15:00	
그룹 5		6분위 구간	부부 가구	1월 30일(월) 11:00	
그룹 6				1월 30일(월) 15:00	
그룹 7		9분위 이상	자녀 동거 가구	1월 31일(화) 11:00	
그룹 8				1월 31일(화) 15:00	
그룹 9		6분위 구간	자녀 동거 가구	2월 1일(수) 11:00	
그룹 10				2월 1일(수) 15:00	

진행 순서

Part	Contents	Duration
Warm up	인사 및 소개 (Ice breaking)	5분(누적 5분)
Part 1	원하는 노후의 삶	15분(누적 20분)
Part 2	노후를 위한 관리(건강, 재정, 여가 활동)	30분(누적 50분)
Part 3	돌봄 활동 경험 및 계획(부모님, 손자, 향후 본인과 배우자)	35분(누적 85분)
Part 4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공공 담당 역할	30분(누적 115분)
Wrap-up	추가 질문 및 마무리	5분(누적 120분)
Total		120분

Introduction & Warm up		5분
그룹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더레이터 인사 및 Ipsos Korea 회사 소개 ■ 좌담회의 배경 및 목적 설명 ■ 좌담회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전원 끄기 - 질문에 대한 의견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 말하기 - 말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토론이나 참석자 모든 분이 골고루 말하기 - 동의를 구할 때는 동시에 반응, 의견 주실 때는 한 사람씩 말하기 - 진행자 개입에 대한 양해: 제한된 시간 안에 진행하기 위하여, 1~2 명이 이야기를 주도할 때, 이야기하는 사람만 할 때, 한 사람이 이야기가 길어질 때, 주제에서 벗어날 때는 모더레이터가 중재하기 ■ 녹음/녹화에 대한 양해, 개인 정보 보호 ■ 좌담회 진행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일체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 	
참석자 소개	<p>먼저 자기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p> <p>- 각 응답자별 확인: 성함, 올해 나이, 거주지(서울 ___구), 직업, 가족 구성원, 자녀 수/자녀 나이</p>	

Part 1. 원하는 노후의 삶		15분(누적: 20분)
<p>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p> <p>집집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전부터 멋진 노후를 계획하셨을 것이고, 또 나름 여러가지 고민을 하시면서 노후의 삶에 진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꿈꾸는 이상적인 노후는 어떤 모습인지, 그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활동적인 노후를 위해 국가가 어떤 것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 봅시다.</p> <p>단,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의 의견을 대표해서 얘기해 주세요. 혹시 아직 배우자와 한 번도 논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거나,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한 부분은 사전에 그렇다고 얘기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p> <p>[M: 모더레이팅 진행하시면서 질문마다 본인 개인 의견인지, 배우자/자녀와 논의한 가정 전체의 의견인지 언급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각 가정마다 노후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이유까지 함께 응답하도록 유도해 주세요.]</p> <p>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당연한 상황, 기본적인 생각이라도 저희에겐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있어 질문에 최대한 디테일한 설명, 묘사, 표현을 부탁드립니다.</p> <p>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꿈꾸는 노후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1-1. 이상적인 노후	<p>- 여러분은 노후 생활이 몇 살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p> <p>[M: 칠판에 <이상적인 노후의 삶> 키워드 적고 간단하게 구분해서 정리]</p>	

	<p>- 여러분의 가정이 예전에 꿈꿨던 이상적인 노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ex. 안정적인 재정, 건강 관리, 취미나 여가 생활, 자아 실현, 가족/친구/대인 관계, 새로운 직업 등)</p> <p>- 이 중에서 이상적인 노후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M: 간단히 동그라미 표기 후 넘어가기</p>
1-2. 노후 계획 및 준비	<p>- 원하는 노후의 삶을 위해 계획하거나 준비를 하셨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단순히 연금, 돈 외에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한 게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세요. 노후에 대해 계획이 없으셨다면 없다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p> <p>[M: 건강 및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확인 예정, 여기서는 간단히 키워드만 받기]</p> <p>- 그렇다면, 예전에 꿈꿨던 노후의 모습 그대로 현재의 삶이 잘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p> <p><노후 준비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 →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본인 및 배우자)은 노후를 대략 어떤 시기/몇 살부터 준비하셨나요? → 왜 해당 시기부터 노후를 준비하시게 됐나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p> <p><노후 준비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 왜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나요? (ex.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과거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개인 연금/사업으로 재정에 여유가 충분해서 등)</p> <p>- 앞으로도 서울에서 계속 지내실 예정이신가요? 만약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신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p>

Part 2. 노후를 위한 관리(건강, 재정, 여가 활동)	30분(누적: 50분)
<p>지금부터는 좀 더 세세하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 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 앞서 얘기한대로 여러분 가정의 의견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세요.</p>	

<p>2-1. 건강</p>	<p>여러분과 배우자께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p> <p>-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어떤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또 앞으로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p> <p>(ex. 금연/금주, 주 3회 이상 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식단 관리, 영양제 섭취, 충분한 수면 등)</p> <p>- 혹시 본인이나 배우자가 앓고 계시거나 앓았던 질병이 있나요? 병원 치료, 요양, 간호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아직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가정에서 미리 논의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p> <p>[M: 질병별로 다른지, 본인 또는 배우자 계획이 다른지 확인]</p> <p>- 보호자/간호는 누가 했는지 or 할 것인지? (ex. 배우자, 자녀, 전문요양보호사, 생각해본 적 없음 등)</p> <p>- 진료 및 치료 비용(의료보험 제한 후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지불했는지 or 할 것인지?</p> <p>(ex. 실손 또는 보장 보험, 월급 또는 기타 본인의 소득, 자녀로부터 용돈, 배우자의 수입 등)</p>
<p>2-2. 재정</p>	<p>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이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수입과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p> <p>- 현재 퇴직을 하신 상태인가요? 본인 또는 배우자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p> <p>- 퇴직하신 후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셨나요? 왜 다시 시작하셨는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p> <p>(ex. 배우자가 부업 시작, 내가 정년이 더 긴 회사로 이직하여 5년 더, 둘 다 부동산/주식 수익을 기대 등)</p> <p>- 퇴직하신 후 노후 대비 자금은 어떤 것으로 준비하셨나요?</p> <p>(ex. 국민연금,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보험, 예금 및 적금, 부동산 운용, 주식/펀드/채권 등)</p> <p>- 앞서 말씀하신 자금으로 노후를 보내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00%를 기준으로,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p> <p>-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각각 무엇인가요?</p> <p>(ex. 원룸 임대 수입이 매달 들어와 우리 부부가 지내기에 충분하다, 연금을 받지만 금액이 부족해서 배우자와 함께 부업을 시작할 것이다, 막내 딸이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조만간 이직을 할 예정이다 등)</p> <p>- 은퇴 전, 과거의 전반 생활 여건과 비교했을 때 노후의 전반 생활 여건은 어떻게 변하셨나요?</p> <p>또 예전에 세운 계획 대비 실제 생활을 해보시니 경제적 상황에 차이가 있나요?</p>
<p>2-3. 여가 활동</p>	<p>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이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시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p> <p>-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께서 평소 즐기고 계신 여가 활동은 무엇인가요? 모두 말씀해 주세요.</p> <p>[M: 여가는 반드시 적극적인 취미 활동일 필요 없음 - 봉사활동, 등산, 골프 등 액티브한 여가 활동 외에도 TV보기, 강아지 산책시키기, 친구와 수다떨기 등 소극적 여가 활동도 포함된다고 예시를 미리 들어주세요.]</p> <p>-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여가 활동은 무엇입니까? 주로 누구와 함께 하나요?</p>

	<p>[M: 혼자/배우자와 개인적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친구/지인들과 여럿이서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 확인 필요]</p> <p>- 교회/계모임/봉사활동/동호회 등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계신가요? 활동은 어느 정도 규모/빈도로 하시나요?</p> <p>- 공공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체육센터, 노인회관 등 다니고 계신지요? 그 곳에서는 어떤 여가 활동을 하시나요?</p> <p>[M: 위 두 질문은 여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probing 할 때 참고만 해 주세요.]</p> <p>- 앞으로는 어떤 여가 활동을 배우거나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귀하의 가정의 여가 활동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활동이 있나요?</p>
--	--

Part 3. 돌봄 활동 경험 및 계획	35분(누적: 85분)
	<p>앞서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어떤 걸 준비하셨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부모님, 시부모님, 손자, 손녀 등을 돌보신 경험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p> <p>여기서 ‘돌봄’이란, 가끔 부모님이나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시거나 주말에 잠깐 시간 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이 할애되며 본인의 일상에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는 수준을 말합니다.</p> <p>이번에는 제가 한 사람씩 지목을 할 테니, 돌아가면서 본인의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p> <p>[M: 거수로 부모님/손자 돌봄 경험 확인해 주시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이야기 듣기, 경험 없는 경우 왜 없는지도 probing]</p>
<p>3-1. 부모님 돌봄</p>	<p>- 여러분의 가정은 현재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을 돌보고 계시거나, 과거에 돌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p> <p>→ 1) 돌보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돌봄이 필요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ex. 어머니,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 연세가 많고 작년부터 거동이 불편 해지셔서)</p> <p>→ 2)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돌보시나요?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같이 돌보기도 하나요? (ex. 가사도우미가 주 3회 목욕/가사 서비스, 남동생 집에 모셔서 본인은 주말만 방문)</p> <p>→ 3) 이런 방식으로 돌봄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 매일 가사 도우미를 쓰기에 비용이 부담, 남동생이 주말에 일해서 그 동안 내가 돌봄)</p> <p>-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가 있나요? Ex. 다른 형제가 돌봄, 요양/돌봄 서비스 이용하심 등</p> <p>- 과거에 돌봄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또는 앞으로 돌봄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점이 고민이거나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p>
<p>3-2. 손자 돌봄</p>	<p>- 예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손자의 돌봄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현재까지 돌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p> <p>→ 1) 돌보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돌봄이 필요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ex. 첫째 딸의 아들이 세 살인데 딸이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며 작년부터 돌보게 되었음)</p> <p>→ 2)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돌보시나요?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같이 돌보기도 하나요?</p>

	<p>(ex. 주로 나 혼자, 딸의 근무시간에 맞춰 평일 10시~5시까지 봄)</p> <p>→ 3) 이런 방식으로 돌봄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 3년 전 정년 퇴직 후 시간이 많이 남고 딸이 매달 용돈도 챙겨 주고 있음)</p> <p>- 과거에 돌봄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또는 앞으로 돌봄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점이 고민이거나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p>
3-3. 노후 돌봄 계획	<p>[M: 앞서 2-1 건강 파트에서 확인한 '질병'에 걸려서 간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확인해 주세요.]</p> <p>- 현재 여러분 본인 또는 배우자께서 돌봄을 받고 계신가요? 어떤 이유로 돌봄을 받고 계신지, 돌봐주는 분은 누구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p> <p>-(돌봄 경험 없는 경우) 향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져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p> <p>(ex. 혼자가 된다면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아 생활할 것, 배우자와 서로 돌보려고 하는데 치매의 경우 요양병원에 갈 것 등)</p>

Part 4.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공공 담당 역할		30분(누적: 115분)
<p>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요?</p> <p>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서비스부터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p>		
4-1. 필요한 공공 서비스	<p>- 노후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걱정하시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p> <p>- 걱정이 되지만 아직 준비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나요? 왜 아직 준비를 못하셨나요? (ex. 어떻게 준비할지 관련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서, 금전적 부담이 있어서 등)</p> <p>- 이러한 부분은 개별 가정이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p> <p>-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 외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서비스,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얘기 나눈 여가활동이나 재정, 건강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p> <p>[M: 의견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아래 예시를 몇 개 가볍게 화두로 던지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이용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정도 확인해 주세요.]</p> <p><참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복지 정책 리스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검진 및 치료 관리비 지원 - 노인 실명 예방 관리(검진, 개안 수술)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방문, 주간보호, 단기가사) 	



보건복지정책 수요 예측 연구를 위한 조사 FGD Guide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 노인 복지 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노인 의료 복지 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 보험 제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노인 여가복지 지원(복지관, 경로당, 취미 교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노인 주거 복지 시설
--	--

Wrap up

5분(누적: 120분)

[M: 모니터 룸으로 가서 추가 질문 확인한 후 감사 인사 및 마무리]

응답자 조건 – 베이비부머 1세대

- 1955년생~1964년생 남/여(Soft Quota)
- 가정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을 대표하여 가정에 대해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자
- 거주 지역: 서울(자치구별 Soft Quota)
- 순 자산 상위 9분위 이상 혹은 6분위 구간 내 부부(2인) 또는 자녀 동거(3인 이상) 가구

응답자 쿼터/그룹 구성 (10그룹, 그룹 당 6명)

그룹	세대	소득	가구형태	일정	장소
그룹 1	산업화 세대 (1945년생~1954년생) 만 68~77세	9분위 이상	부부 가구	1월 26일(목) 11:00	중구 입소스 6층 FGD#1
그룹 2		6분위 구간	부부 가구	1월 26일(목) 15:00	
그룹 3	베이비 부머 1세대 (1955년생~1964년생) 만 58~67세	9분위 이상	부부 가구	1월 27일(금) 11:00	
그룹 4				1월 27일(금) 15:00	
그룹 5		6분위 구간	부부 가구	1월 30일(월) 11:00	용산구 마인드스토밍
그룹 6				1월 30일(월) 15:00	
그룹 7		9분위 이상	자녀 동거 가 구	1월 31일(화) 11:00	
그룹 8				1월 31일(화) 15:00	
그룹 9		6분위 구간	자녀 동거 가 구	2월 1일(수) 11:00	
그룹 10				2월 1일(수) 15:00	

진행 순서

Part	Contents	Duration
Warm up	인사 및 소개 (Ice breaking)	5분(누적 5분)
Part 1	원하는 노후의 삶	15분(누적 20분)
Part 2	노후를 위한 관리 및 계획(건강, 재정, 여가 활동)	30분(누적 50분)
Part 3	돌봄 활동 경험 및 계획(부모님, 손자, 향후 본인과 배우자)	35분(누적 85분)
Part 4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공공 담당 역할	30분(누적 115분)
Wrap-up	추가 질문 및 마무리	5분(누적 120분)
Total		120분



보건복지정책 수요 예측 연구를 위한 조사 FGD Guideline

Introduction & Warm up		5분
그룹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더레이터 인사 및 Ipsos Korea 회사 소개 ■ 좌담회의 배경 및 목적 설명 ■ 좌담회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전원 끄기 - 질문에 대한 의견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 말하기 - 말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토론이나 참석자 모든 분이 골고루 말하기 - 동의를 구할 때는 동시에 반응, 의견 주실 때는 한 사람씩 말하기 - 진행자 개입에 대한 양해: 제한된 시간 안에 진행하기 위하여, 1~2 명이 이야기를 주도할 때, 이야기하는 사람만 할 때, 한 사람이 이야기가 길어질 때, 주제에서 벗어날 때는 모더레이터가 중재하기 ■ 녹음/녹화에 대한 양해, 개인 정보 보호 ■ 좌담회 진행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일체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 	
참석자 소개	<p>먼저 자기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p> <p>- 각 응답자별 확인: 성함, 올해 나이, 거주지(서울 __구), 직업, 가족 구성원, 자녀 수/자녀 나이</p>	

Part 1. 원하는 노후의 삶	15분(누적: 20분)
<p>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p> <p>집집마다 다른 방식으로 멋진 노후를 꿈꾸고 계실 것이고, 또 나름 여러가지 고민을 하시면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저희 윗 세대와 비교해서도 노후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꿈꾸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지, 그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활동적인 노후를 위해 국가가 어떤 것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 봅시다.</p> <p>단,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의 의견을 대표해서 얘기해 주세요. 혹시 아직 배우자와 한 번도 논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거나,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한 부분은 사전에 그렇다고 얘기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p> <p>[M: 모더레이팅 진행하시면서 질문마다 본인 개인 의견인지, 배우자/자녀와 논의한 가정 전체의 의견인지 언급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각 가정마다 노후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이유까지 함께 응답하도록 유도해 주세요.]</p> <p>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당연한 상황, 기본적인 생각이라도 저희에게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있어 질문에 최대한 디테일한 설명, 묘사, 표현을 부탁드립니다.</p> <p>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꿈꾸는 노후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26 April 2023

<p>1-1. 이상적인 노후</p>	<p>- 여러분은 노후 생활이 몇 살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M: 칠판에 <이상적인 노후의 삶> 키워드 적고 간단하게 구분해서 정리]</p> <p>- 여러분의 가정이 원하거나 그리는 이상적인 노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ex. 안정적인 재정, 건강 관리, 취미나 여가 생활, 자아 실현, 가족/친구/대인 관계, 새로운 직업 등)</p> <p>- 이 중에서 이상적인 노후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M: 간단히 동그라미 표기 후 넘어가기)</p>
<p>1-2. 노후 계획 및 준비</p>	<p>- 원하는 노후의 삶을 위해 지금까지 계획하거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단순히 연금, 돈 외에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모두 말씀해 주세요. 노후에 대해 가정에서 미리 준비하신 게 아직 없으시다면 없다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M: 건강 및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확인 예정, 여기서는 간단히 키워드만 받기]</p> <p><노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p> <p>→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본인 및 배우자)은 노후를 대략 어떤 시기/몇 살부터 준비하셨나요? → 왜 해당 시기부터 노후를 준비하시게 됐나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p> <p><노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응답한 경우></p> <p>→ 왜 아직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나요? (ex.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아직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개인 연금/사업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등)</p> <p>- 앞으로도 서울에서 계속 지내실 예정이신가요? 만약 노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신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p>

Part 2. 노후를 위한 관리 및 계획(건강, 재정, 여가 활동)		30분(누적: 50분)
<p>지금부터는 좀 더 세세하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 앞서 얘기한대로 여러분 가정의 의견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세요.</p>		
<p>2-1. 건강</p>	<p>여러분과 배우자께서 노후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p> <p>-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현재 어떤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또 앞으로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ex. 금연/금주, 주 3회 이상 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식단 관리, 영양제 섭취, 충분한 수면 등)</p> <p>- 노후에 질병이 생겨 병원 치료, 요양, 간호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기준으로 가정에서 미리 논의하신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M: 질병별로 다른지, 본인 또는 배우자 계획이 다른지 확인]</p> <p>- 보호자/간호는 누가 할 것인지? (ex. 배우자, 자녀, 전문요양보호사, 생각해본 적 없음 등)</p>	

	<p>- 진료 및 치료 비용(의료보험 제한 후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지불하실 것인지? (ex. 실손 또는 보장 보험, 월급 또는 기타 본인의 소득, 자녀로부터 용돈, 배우자의 수입 등)</p>
2-2. 재정	<p>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이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수입과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p> <p>-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몇 세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그 일을 몇 세까지 하고 싶으세요?</p> <p>- 퇴직하신 후 노후 대비 자금은 어떤 것으로 준비하셨나요? (ex. 국민연금,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보험, 예금 및 적금, 부동산 운용, 주식/펀드/채권 등)</p> <p>- 퇴직하신 후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참여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ex. 배우자가 부업 시작, 내가 정년이 더 긴 회사로 이직하여 5년 더, 둘 다 부동산/주식 수익을 기대 등)</p> <p>- 앞서 말씀하신 자금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00%를 기준으로,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충분히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세요?</p> <p>-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각각 무엇인가요? (ex. 원룸 임대 수입이 매달 들어와 우리 부부가 지내기에 충분하다, 연금을 받지만 금액이 부족해서 배우자와 함께 부업을 시작할 것이다, 막내 딸이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조만간 이직을 할 예정이다 등)</p> <p>- 현재의 전반 생활 여건과 비교했을 때 노후의 전반 생활 여건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p>
2-3. 여가 활동	<p>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이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여가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p> <p>-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께서 평소 즐기고 계신 여가 활동은 무엇인가요? 모두 말씀해 주세요. [M: 여가는 반드시 적극적인 취미 활동일 필요 없음 - 봉사활동, 등산, 골프 등 액티브한 여가 활동 외에도 TV보기, 강아지 산책시키기, 친구와 수다떨기 등 소극적 여가 활동도 포함된다고 예시를 미리 들어주세요.]</p> <p>[M: 혼자/배우자와 개인적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친구/지인들과 여럿이서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 확인 필요]</p> <p>- 교회/계모임/봉사활동/동호회 등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계신가요? 활동은 어느 정도 규모/빈도로 하시나요?</p> <p>- 공공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체육센터, 노인회관 등 다니고 계신지요? 그 곳에서는 어떤 여가 활동을 하시나요? [M: 위 두 질문은 여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probing 할 때 참고만 해 주세요.]</p> <p>- 노후에는 어떤 여가 활동을 배우거나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귀하의 가정의 여가 활동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활동이 있나요?</p>

Part 3. 돌봄 활동 경험 및 계획

35분(누적: 85분)

앞서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부모님, 시부모님, 손자, 손녀 등을 돌보신 경험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돌봄'이란, 가끔 부모님이나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시거나 주말에 잠깐 시간 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이 할애되며 본인의 일상에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사람씩 지목을 할 테니, 돌아가면서 본인의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M: 거수로 부모님/손자 돌봄 경험 확인해 주시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이야기 듣기, 경험 없는 경우 왜 없는지도 probing]

3-1. 부모님 돌봄

**- 여러분의 가정은 현재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을 돌보고 계시거나, 과거에 돌보신 적이 있나요?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 1) 돌보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돌봄이 필요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ex. 어머니,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 연세가 많고 작년부터 거동이 불편 해지셔서)

→ 2)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돌보시나요?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같이 돌보기도 하나요?

(ex. 가사도우미가 주 3회 목욕/가사 서비스, 남동생 집에 모셔서 본인은 주말만 방문)

→ 3) 이런 방식으로 돌봄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 매일 가사 도우미를 쓰기에 비용이 부담, 남동생이 주말에 일해서 그 동안 내가 돌봄)

**- 현재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을 돌보고 있지 않으신 경우, 향후 돌봄 계획 있는지?
계획 없는 경우 돌봄을 하지 않는건지, 여건상 못하는 건지?**

**- 과거에 돌봄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또는 앞으로 돌봄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점이
고민이거나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3-2. 손자 돌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손자의 돌봄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현재까지 돌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 1) 돌보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돌봄이 필요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ex. 첫째 딸의 아들이 세 살인데 딸이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며 작년부터 돌보게 되었음)

→ 2)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돌보시나요? 다른 사람과 분담하여 같이 돌보기도 하나요?

(ex. 주로 나 혼자, 딸의 근무시간에 맞춰 평일 10시~5시까지 봄)

→ 3) 이런 방식으로 돌봄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 3년 전 정년 퇴직 후 시간이 많이 남고 딸이 매달 용돈도 챙겨 주고 있음)

**- 향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앞으로 손자의 돌봄에 참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 없는 경우 돌봄을 하지 않는건지, 여건상 못하는 건지?**

- 과거에 돌봄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또는 앞으로 돌봄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점이

	고민이거나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3-3. 노후 돌봄 계획	<p>[M: 앞서 2-1 건강 파트에서 확인한 '질병'에 걸려서 간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확인해 주세요.]</p> <p>- 노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져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p> <p>(ex. 혼자가 된다면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아 생활할 것, 배우자와 서로 돌보려고 하는데 치매는 요양병원에 갈 것 등)</p>

Part 4.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공공 담당 역할		30분(누적: 115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서비스부터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4-1. 필요한 공공 서비스	- 노후를 맞이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걱정하시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걱정이 되지만 아직 준비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나요? 왜 아직 준비를 못하셨나요? (ex. 어떻게 준비할지 관련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서, 금전적 부담이 있어서 등)	
	- 이러한 부분은 개별 가정이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방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 외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서비스,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얘기 나눈 여가활동이나 재정, 건강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M: 의견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아래 예시를 몇 개 가볍게 화두로 던지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이용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정도 확인해 주세요.]	
	<p><참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복지 정책 리스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 검진 및 치료 관리비 지원- 노인 실명 예방 관리(검진, 개안 수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방문, 주간보호, 단기가사)- 재가 노인 복지 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노인 의료 복지 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 보험 제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노인 여가복지 지원(복지관, 경로당, 취미 교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보건복지정책 수요 예측 연구를 위한 조사 FGD Guideline

Wrap up	5분(누적: 120분)
[M: 모니터 룸으로 가서 추가 질문 확인한 후 감사 인사 및 마무리]	

부록2. 양적 연구 요약 통계량

부록.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데이터셋에서의 세대별 기본 변수 요약통계량

변수	전체 (N=204729)	산업화세대 이전 (N=32314)	산업화세대 (N=33041)	BB1 (N=49358)	BB2 (N=48324)	X (N=33275)	MZ (N=8417)
조사연도							
-2010	9993 (4.9%)	1921 (5.9%)	1583 (4.8%)	2436 (4.9%)	2573 (5.3%)	1340 (4.0%)	140 (1.7%)
-2011	10513 (5.1%)	1988 (6.2%)	1673 (5.1%)	2534 (5.1%)	2617 (5.4%)	1531 (4.6%)	170 (2.0%)
-2012	19735 (9.6%)	3402 (10.5%)	3016 (9.1%)	4956 (10.0%)	5044 (10.4%)	2949 (8.9%)	368 (4.4%)
-2013	18589 (9.1%)	3219 (10.0%)	2850 (8.6%)	4571 (9.3%)	4652 (9.6%)	2913 (8.8%)	384 (4.6%)
-2014	17859 (8.7%)	3031 (9.4%)	2769 (8.4%)	4314 (8.7%)	4413 (9.1%)	2941 (8.8%)	391 (4.6%)
-2015	18028 (8.8%)	2910 (9.0%)	2839 (8.6%)	4315 (8.7%)	4330 (9.0%)	3072 (9.2%)	562 (6.7%)
-2016	18267 (8.9%)	2831 (8.8%)	2892 (8.8%)	4339 (8.8%)	4317 (8.9%)	3155 (9.5%)	733 (8.7%)
-2017	18487 (9.0%)	2812 (8.7%)	2988 (9.0%)	4346 (8.8%)	4244 (8.8%)	3131 (9.4%)	966 (11.5%)
-2018	18628 (9.1%)	2723 (8.4%)	3124 (9.5%)	4427 (9.0%)	4173 (8.6%)	3160 (9.5%)	1021 (12.1%)
-2019	18399 (9.0%)	2604 (8.1%)	3127 (9.5%)	4464 (9.0%)	4065 (8.4%)	3054 (9.2%)	1085 (12.9%)
-2020	18057 (8.8%)	2489 (7.7%)	3067 (9.3%)	4349 (8.8%)	3951 (8.2%)	3036 (9.1%)	1165 (13.8%)
-2021	18174 (8.9%)	2384 (7.4%)	3113 (9.4%)	4307 (8.7%)	3945 (8.2%)	2993 (9.0%)	1432 (17.0%)
가구유형							
- 1인가구	42199 (20.6%)	14013 (43.4%)	8309 (25.1%)	6916 (14.0%)	4813 (10.0%)	4686 (14.1%)	3462 (41.1%)
- 부부가구	42980 (21.0%)	13663 (42.3%)	13653 (41.3%)	8609 (17.4%)	2219 (4.6%)	3633 (10.9%)	1203 (14.3%)
- 부부+자녀가구	83731 (40.9%)	1910 (5.9%)	6595 (20.0%)	23334 (47.3%)	30066 (62.2%)	19695 (59.2%)	2131 (25.3%)
- 기타	35819 (17.5%)	2728 (8.4%)	4484 (13.6%)	10499 (21.3%)	11226 (23.2%)	5261 (15.8%)	1621 (19.3%)
가구주 연령 (세)	54.6 ± 14.8	77.6 ± 5.4	66.2 ± 4.3	56.3 ± 4.3	46.3 ± 4.3	36.9 ± 4.1	29.1 ± 3.6
가구주 성별							
- 남	155979 (76.2%)	18662 (57.8%)	23943 (72.5%)	38899 (78.8%)	40328 (83.5%)	28501 (85.7%)	5646 (67.1%)
- 여	48750 (23.8%)	13652 (42.2%)	9098 (27.5%)	10459 (21.2%)	7996 (16.5%)	4774 (14.3%)	2771 (32.9%)
가구원수 (명)	2.7 ± 1.3	1.7 ± 0.8	2.2 ± 1.1	2.9 ± 1.3	3.4 ± 1.2	3.1 ± 1.2	2.1 ± 1.1
자산 (만원)	39393.0 ± 68358.0	28494.5 ± 69288.7	46038.8 ± 87336.6	49150.1 ± 78437.7	41568.9 ± 59064.3	31510.8 ± 40981.3	16596.8 ± 23655.5
실물자산 (만원)	29980.5 ± 59366.3	24205.0 ± 61771.7	38029.7 ± 75503.4	37658.8 ± 67634.9	30002.1 ± 50330.9	21506.7 ± 37071.5	8906.2 ± 20983.7
금융자산 (만원)	9412.4 ± 18937.6	4289.5 ± 16406.7	8009.0 ± 21936.6	11491.3 ± 22427.0	11566.8 ± 18532.1	10004.1 ± 12553.4	7690.6 ± 9582.5
경상소득 (만원)	5196.2 ± 5389.0	1875.5 ± 2630.4	4023.9 ± 4571.6	6379.7 ± 6199.9	6708.7 ± 6174.4	5836.1 ± 4132.4	4392.6 ± 3828.5
가처분소득 (만원)	4260.3 ± 4235.3	1634.7 ± 2063.2	3418.7 ± 3720.0	5195.3 ± 4933.6	5391.1 ± 4735.3	4756.1 ± 3258.2	3709.4 ± 3037.8

부록.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APC 요인별 주요변수 요약통계량

구분	N	인구사회영역		실물자산 (만원)	금융자산 (만원)	경상소득 (만원)	가치분소득 (만원)
		자산 (만원)					
가구주 연령그룹							
20-29	5,572	10,087.89 ± 19,048.71	4,600.89 ± 17,001.11	5,487.00 ± 7,549.33	3,519.43 ± 2,715.22	3,031.12 ± 2,447.19	
30-39	30,013	27,697.92 ± 34,555.77	17,941.55 ± 31,072.52	9,756.37 ± 12,016.96	5,543.00 ± 3,978.71	4,540.12 ± 3,179.84	
40-49	45,925	40,839.98 ± 54,839.48	29,482.34 ± 47,372.38	11,357.64 ± 17,398.12	6,557.27 ± 5,693.77	5,271.30 ± 4,454.51	
50-59	48,025	48,899.86 ± 76,496.86	37,110.93 ± 65,974.21	11,788.93 ± 21,232.75	6,791.56 ± 6,566.60	5,488.29 ± 5,157.57	
60-69	37,018	48,214.66 ± 86,949.41	39,152.56 ± 75,761.71	9,062.11 ± 22,038.92	4,569.85 ± 5,013.13	3,849.15 ± 3,966.74	
70-79	26,979	34,419.09 ± 79,183.04	29,141.82 ± 69,059.32	5,277.28 ± 19,743.94	2,395.81 ± 3,263.91	2,075.30 ± 2,545.18	
80-89	10,497	21,601.53 ± 49,966.93	18,123.11 ± 42,439.09	3,478.42 ± 17,712.29	1,509.94 ± 2,025.99	1,347.69 ± 1,609.60	
90+	700	18,895.13 ± 75,248.75	16,760.16 ± 72,730.40	2,134.98 ± 5,716.16	1,253.74 ± 2,013.70	1,109.27 ± 1,351.42	
조사연도							
2010-2011	20,506	37,022.30 ± 74,780.21	28,951.10 ± 68,413.89	8,071.20 ± 15,740.82	4,709.11 ± 5,055.48	3,822.88 ± 4,318.65	
2012-2013	38,324	36,516.52 ± 66,685.12	27,475.38 ± 57,703.09	9,041.15 ± 17,624.75	4,845.79 ± 5,232.32	3,967.58 ± 4,291.20	
2014-2015	35,887	36,573.03 ± 62,328.95	27,340.44 ± 54,222.30	9,232.59 ± 16,182.54	4,995.58 ± 4,830.81	4,114.79 ± 3,962.13	
2016-2017	36,754	39,206.09 ± 68,198.26	29,610.96 ± 58,929.27	9,595.13 ± 18,551.45	5,271.33 ± 5,397.83	4,349.72 ± 4,208.10	
2018-2019	37,027	42,062.83 ± 69,328.88	32,037.18 ± 59,399.67	10,025.65 ± 21,614.73	5,565.89 ± 5,902.65	4,543.72 ± 4,336.42	
2020-2021	36,231	44,031.48 ± 70,777.55	34,101.08 ± 60,564.70	9,930.40 ± 21,676.95	5,587.15 ± 5,639.31	4,581.41 ± 4,264.56	
출생코호트							
산업화세대 이전 (<1945)	32,314	28,494.52 ± 69,288.73	24,205.02 ± 61,771.68	4,289.51 ± 16,406.72	1,875.52 ± 2,630.38	1,634.71 ± 2,063.18	
산업화세대 (1945-1954)	33,041	46,038.78 ± 87,336.58	38,029.74 ± 75,503.45	8,009.04 ± 21,936.58	4,023.91 ± 4,571.61	3,418.71 ± 3,719.98	
베이비부머1세대 (1955-1964)	49,358	49,150.09 ± 78,437.74	37,658.79 ± 67,634.87	11,491.29 ± 22,427.01	6,379.73 ± 6,199.94	5,195.33 ± 4,933.61	
베이비부머2세대 (1965-1974)	48,324	41,568.86 ± 59,064.32	30,002.06 ± 50,330.88	11,566.81 ± 18,532.06	6,708.71 ± 6,174.39	5,391.05 ± 4,735.34	
X세대 (1975-1984)	33,275	31,510.81 ± 40,981.29	21,506.69 ± 37,071.54	10,004.12 ± 12,553.42	5,836.07 ± 4,132.35	4,756.11 ± 3,258.16	
MZ세대 (1985+)	8,417	16,596.76 ± 23,655.46	8,906.16 ± 20,983.66	7,690.60 ± 9,582.46	4,392.63 ± 3,828.51	3,709.44 ± 3,037.77	

부록. 한국의료패널에서의 APC 요인별 주요변수 요약통계량

구분	N	보건영역		인구사회영역		총 가구소득 (만원)	
		가구지출의료비1 (만원)	근로소득 (만원)	자산소득 (만원)	가구소득 (만원)		
가구주 연령그룹	20-29	969	72.63 ± 133.32	2,796.71 ± 1,551.75	134.62 ± 296.52	2,931.33 ± 1,545.87	
	30-39	7,716	113.85 ± 140.23	4,154.41 ± 2,214.74	254.93 ± 1,187.24	4,409.34 ± 2,489.98	
	40-49	14,966	126.54 ± 177.54	4,755.65 ± 2,920.87	318.99 ± 1,262.77	5,074.64 ± 3,170.01	
	50-59	14,209	156.50 ± 229.43	4,627.35 ± 3,207.95	549.38 ± 3,527.86	5,176.73 ± 4,810.88	
	60-69	13,589	169.13 ± 247.67	2,392.49 ± 2,492.15	1,010.11 ± 1,714.71	3,402.59 ± 3,034.18	
	70-79	12,515	174.57 ± 258.54	904.08 ± 1,535.74	1,013.84 ± 1,163.19	1,917.91 ± 1,879.08	
	80-89	3,739	158.28 ± 221.80	366.53 ± 1,012.85	1,053.09 ± 1,524.96	1,419.61 ± 1,840.05	
	90+	169	168.68 ± 300.12	296.04 ± 760.21	1,218.38 ± 1,371.70	1,514.41 ± 1,480.53	
	조사연도						
	2008-2009	13,085	113.46 ± 214.19	2,817.19 ± 2,506.01	386.39 ± 1,012.53	3,203.58 ± 2,596.34	
2010-2011	11,616	135.34 ± 210.26	3,014.51 ± 2,673.87	568.24 ± 1,353.34	3,582.75 ± 2,898.62		
2012-2013	10,558	151.20 ± 199.98	3,186.46 ± 3,060.22	635.11 ± 1,455.64	3,821.56 ± 3,231.97		
2014-2015	13,426	155.74 ± 219.23	3,280.24 ± 3,080.94	719.12 ± 1,629.43	3,999.35 ± 3,310.17		
2016-2017	12,823	174.84 ± 235.94	3,447.37 ± 3,289.95	873.88 ± 3,641.41	4,321.24 ± 4,782.47		
2018	6,364	185.97 ± 239.04	3,640.31 ± 3,451.72	944.82 ± 1,768.62	4,585.13 ± 3,665.35		
출생코호트							
산업화세대 이전 (<1945)	17,784	163.33 ± 243.92	799.25 ± 1,430.12	967.56 ± 1,215.68	1,766.80 ± 1,825.42		
산업화세대 (1945-1954)	13,558	168.67 ± 243.05	2,558.20 ± 2,490.13	977.32 ± 1,759.26	3,535.52 ± 3,005.21		
베이비부머1세대 (1955-1964)	14,666	151.87 ± 227.01	4,544.24 ± 3,137.39	548.35 ± 3,493.47	5,092.59 ± 4,744.94		
베이비부머2세대 (1965-1974)	15,233	129.66 ± 182.87	4,813.34 ± 2,902.66	318.67 ± 1,158.60	5,132.00 ± 3,105.12		
X세대 (1975-1984)	5,819	122.98 ± 151.13	4,380.75 ± 2,341.49	295.01 ± 1,376.04	4,675.76 ± 2,693.29		
MZ세대 (1985+)	812	73.88 ± 136.14	3,175.06 ± 1,973.88	203.20 ± 527.68	3,378.25 ± 2,084.48		

부록. 국민노후보장패널 분석데이터셋에서의 세대별 기본 변수 요약통계량

변수	전체 (N=34405)	산업화세대 이전 (N=15187)	산업화세대 (N=9378)	BB1 (N=7365)	BB2 (N=1990)	X (N=472)	MZ (N=13)
조사연도							
-2005	4499 (13.1%)	2244 (14.8%)	1290 (13.8%)	479 (6.5%)	358 (18.0%)	128 (27.1%)	0 (0.0%)
-2007	4135 (12.0%)	2148 (14.1%)	1156 (12.3%)	441 (6.0%)	308 (15.5%)	80 (16.9%)	2 (15.4%)
-2009	3732 (10.8%)	1963 (12.9%)	1054 (11.2%)	392 (5.3%)	258 (13.0%)	63 (13.3%)	2 (15.4%)
-2011	3873 (11.3%)	1981 (13.0%)	1183 (12.6%)	412 (5.6%)	246 (12.4%)	49 (10.4%)	2 (15.4%)
-2013	4890 (14.2%)	1909 (12.6%)	1180 (12.6%)	1546 (21.0%)	218 (11.0%)	36 (7.6%)	1 (7.7%)
-2015	4571 (13.3%)	1800 (11.9%)	1140 (12.2%)	1382 (18.8%)	208 (10.5%)	40 (8.5%)	1 (7.7%)
-2017	4447 (12.9%)	1666 (11.0%)	1184 (12.6%)	1357 (18.4%)	198 (9.9%)	40 (8.5%)	2 (15.4%)
-2019	4258 (12.4%)	1476 (9.7%)	1191 (12.7%)	1356 (18.4%)	196 (9.8%)	36 (7.6%)	3 (23.1%)
가구유형							
- 1인가구	8587 (25.0%)	6003 (39.5%)	1782 (19.0%)	718 (9.7%)	67 (3.4%)	14 (3.0%)	3 (23.1%)
- 부부가구	10831 (31.5%)	6198 (40.8%)	3342 (35.6%)	1272 (17.3%)	17 (0.9%)	2 (0.4%)	0 (0.0%)
- 부부+자녀가구	7001 (20.3%)	1127 (7.4%)	2565 (27.4%)	3049 (41.4%)	228 (11.5%)	31 (6.6%)	1 (7.7%)
- 기타	7986 (23.2%)	1859 (12.2%)	1689 (18.0%)	2326 (31.6%)	1678 (84.3%)	425 (90.0%)	9 (69.2%)
가구주 연령 (세)	64.5 ± 11.9	74.4 ± 6.5	62.6 ± 5.5	54.7 ± 4.6	42.0 ± 5.6	32.2 ± 5.1	25.2 ± 4.6
가구주 성별							
- 남	23153 (67.3%)	8644 (56.9%)	6639 (70.8%)	5870 (79.7%)	1655 (83.2%)	333 (70.6%)	12 (92.3%)
- 여	11252 (32.7%)	6543 (43.1%)	2739 (29.2%)	1495 (20.3%)	335 (16.8%)	139 (29.4%)	1 (7.7%)
가구원수 (명)	2.3 ± 1.3	1.8 ± 0.9	2.4 ± 1.1	3.0 ± 1.3	3.6 ± 1.7	3.1 ± 1.4	1.7 ± 0.6
근로소득 (만원)	19971.5 ± 26169.9	6304.3 ± 12528.4	21476.0 ± 24426.2	41724.0 ± 31755.1	34567.1 ± 24053.3	28987.8 ± 20412.0	16000.0 ± 21313.4
금융소득 (만원)	466.7 ± 4354.3	352.7 ± 2065.6	620.3 ± 6600.5	584.9 ± 4875.7	253.6 ± 1222.6	146.6 ± 762.7	19.2 ± 48.0
부동산소득 (만원)	1362.3 ± 7920.7	1339.3 ± 8874.8	1559.6 ± 7478.1	1299.1 ± 7005.4	795.5 ± 3858.7	1596.1 ± 9865.0	0.0 ± 0.0
공적이전소득 (만원)	3393.4 ± 6245.7	3861.3 ± 6130.9	4443.1 ± 7496.3	1556.9 ± 4711.6	1957.8 ± 3919.2	2224.1 ± 3832.6	2185.0 ± 3140.9
사적이전소득 (만원)	1821.2 ± 3431.0	2628.6 ± 3910.3	1576.7 ± 3244.5	655.1 ± 2095.8	1296.8 ± 2947.0	1136.9 ± 2598.0	638.5 ± 1303.5
기타소득 (만원)	1449.1 ± 18324.5	753.2 ± 9069.7	2212.4 ± 29090.9	1960.7 ± 14323.5	1105.1 ± 12391.2	2181.4 ± 33739.2	0.0 ± 0.0
연간 총 가구소득 (만원)	28470.5 ± 34759.6	15243.4 ± 22091.2	31894.1 ± 40687.9	47791.5 ± 37461.5	39985.4 ± 29046.7	36272.8 ± 41358.6	18842.7 ± 19869.9
노후생활준비여부							
- 예	8203 (23.8%)	2478 (16.3%)	2822 (30.1%)	2837 (38.5%)	66 (3.3%)	0 (0.0%)	0 (0.0%)
- 아니오	8421 (24.5%)	2249 (14.8%)	2640 (28.2%)	3373 (45.8%)	158 (7.9%)	1 (0.2%)	0 (0.0%)
- 무응답	17781 (51.7%)	10460 (68.9%)	3916 (41.8%)	1155 (15.7%)	1766 (88.7%)	471 (99.8%)	13 (100.0%)

부록. 국민노후복지조사에서의 APC 요인별 주요 변수 요약통계량

구분	N	복지영역		인구사회영역	
		노후생활준비 - 예	노후생활준비 - 아니오	노후생활준비 - 무응답	금융소득 (만원)
가구주 연령그룹					
20-29	178	0 (0.00%)	0 (0.00%)	178 (100.00%)	21,865.28 ± 15,383.18
30-39	961	0 (0.00%)	0 (0.00%)	961 (100.00%)	30,422.95 ± 21,781.47
40-49	1,997	32 (1.60%)	36 (1.80%)	1929 (96.59%)	34,201.79 ± 25,332.13
50-59	8,485	3537 (41.69%)	3538 (41.70%)	1410 (16.62%)	39,143.80 ± 31,458.40
60-69	10,134	3244 (32.01%)	3200 (31.58%)	3690 (36.41%)	17,962.16 ± 22,707.68
70-79	9,348	1208 (12.92%)	1375 (14.71%)	6765 (72.37%)	6,586.26 ± 12,769.58
80-89	3,106	173 (5.57%)	265 (8.53%)	2668 (85.90%)	3,004.28 ± 9,984.39
90+	196	9 (4.59%)	7 (3.57%)	180 (91.84%)	3,205.05 ± 13,432.48
조사연도					
2005	4,499	0 (0.00%)	0 (0.00%)	4499 (100.00%)	17,017.81 ± 21,876.68
2007	4,135	2980 (72.07%)	547 (13.23%)	608 (14.70%)	17,230.20 ± 22,822.91
2009	3,732	1084 (29.05%)	2166 (58.04%)	482 (12.92%)	15,723.39 ± 23,761.77
2011	3,873	557 (14.38%)	838 (21.64%)	2478 (63.98%)	16,125.04 ± 21,404.37
2013	4,890	980 (20.04%)	1473 (30.12%)	2437 (49.84%)	23,237.74 ± 28,209.97
2015	4,571	810 (17.72%)	1355 (29.64%)	2406 (52.64%)	22,527.00 ± 28,350.48
2017	4,447	879 (19.77%)	1127 (25.34%)	2441 (54.89%)	22,955.82 ± 28,497.20
2019	4,258	913 (21.44%)	915 (21.49%)	2430 (57.07%)	23,365.63 ± 30,015.94
출생코호트					
산업화세대 이전 (<1945)	15,187	2478 (16.32%)	3373 (45.80%)	471 (99.79%)	6,304.30 ± 12,528.44
산업화세대 (1945-1954)	9,378	2822 (30.09%)	158 (7.94%)	13 (100.00%)	21,475.97 ± 24,426.22
베이비부머 1세대 (1955-1964)	7,365	2837 (38.52%)	1 (0.21%)	2478 (16.32%)	41,723.96 ± 31,755.11
베이비부머 2세대 (1965-1974)	1,990	66 (3.32%)	0 (0.00%)	2822 (30.09%)	34,567.11 ± 24,053.34
X세대 (1975-1984)	472	0 (0.00%)	10460 (68.87%)	2837 (38.52%)	28,987.80 ± 20,412.00
MZ세대 (1985+)	13	0 (0.00%)	3916 (41.76%)	66 (3.32%)	16,000.00 ± 21,313.38
					19.23 ± 48.04

부록. 국민노후복지조사에서의 APC 요인별 주요변수 요약통계량

구분	N	부동산소득 (만원)				공적이전소득 (만원)				사적이전소득 (만원)				기타소득 (만원)				총 가구소득 (만원)			
		가구주 연령그룹																			
가구주 연령그룹	20-29	178	1,879.33 ± 14,237.11	1,730.46 ± 4,355.61	1,101.83 ± 2,886.74	4,901.80 ± 54,833.54	31,713.09 ± 60,788.76														
	30-39	961	977.41 ± 4,311.83	1,662.89 ± 3,332.00	1,147.83 ± 2,642.52	369.41 ± 2,316.66	34,806.19 ± 23,826.38														
	40-49	1,997	950.48 ± 7,051.72	1,860.84 ± 3,942.39	1,161.18 ± 2,776.85	977.60 ± 8,900.97	39,444.96 ± 28,822.04														
	50-59	8,485	1,276.53 ± 7,068.54	1,243.05 ± 4,375.84	769.50 ± 2,513.74	2,179.94 ± 16,331.64	45,246.55 ± 38,135.39														
	60-69	10,134	1,575.83 ± 6,830.64	4,418.24 ± 7,294.45	1,759.91 ± 3,370.53	1,706.85 ± 22,607.89	28,016.32 ± 35,172.59														
	70-79	9,348	1,449.00 ± 10,012.56	4,377.92 ± 6,405.54	2,659.83 ± 3,802.34	951.81 ± 18,488.18	16,373.05 ± 28,882.20														
	80-89	3,106	1,052.37 ± 7,382.65	4,522.56 ± 6,513.92	2,985.68 ± 4,150.49	636.51 ± 8,151.19	12,449.45 ± 18,783.24														
	90+	196	428.72 ± 2,111.70	4,252.61 ± 6,809.47	2,742.71 ± 3,430.80	34.18 ± 186.41	10,730.93 ± 15,378.86														
	조사연도																				
	2005	4,499	1,271.28 ± 8,127.96	1,672.76 ± 4,456.62	1,730.35 ± 3,714.89	1,220.49 ± 15,285.14	23,405.04 ± 31,198.34														
2007	4,135	1,282.15 ± 7,890.02	2,122.57 ± 5,219.00	2,012.54 ± 3,463.04	1,760.66 ± 14,717.73	24,882.39 ± 30,086.36															
2009	3,732	1,368.04 ± 8,861.30	2,963.09 ± 5,569.08	2,089.65 ± 3,612.56	1,495.65 ± 10,459.06	24,269.22 ± 30,117.99															
2011	3,873	1,370.96 ± 6,219.14	3,317.72 ± 6,199.33	1,599.69 ± 3,161.53	412.05 ± 3,017.11	23,341.36 ± 23,380.90															
2013	4,890	1,127.74 ± 5,537.59	3,146.03 ± 6,128.75	1,683.07 ± 3,502.10	792.10 ± 5,641.44	30,455.62 ± 29,291.26															
2015	4,571	1,380.65 ± 7,012.56	3,934.79 ± 6,646.07	1,772.84 ± 3,720.17	1,376.69 ± 11,313.62	31,431.53 ± 32,825.41															
2017	4,447	1,360.29 ± 9,583.78	4,630.22 ± 6,901.71	1,881.42 ± 3,102.36	2,735.04 ± 41,286.19	33,901.27 ± 53,015.39															
2019	4,258	1,775.35 ± 9,411.81	5,302.56 ± 7,408.64	1,845.01 ± 3,033.47	1,779.51 ± 13,953.90	34,524.16 ± 36,427.09															
출생코호트																					
산업화세대 이전 (<1945)	15,187	1,339.33 ± 8,874.83	3,861.29 ± 6,130.86	2,628.65 ± 3,910.25	753.15 ± 9,069.73	15,243.43 ± 22,091.24															
산업화세대 (1945-1954)	9,378	1,559.57 ± 7,478.11	4,443.11 ± 7,496.33	1,576.66 ± 3,244.50	2,212.36 ± 29,090.87	31,894.13 ± 40,687.91															
베이비부머1세대 (1955-1964)	7,365	1,299.14 ± 7,005.35	1,556.88 ± 4,711.57	655.08 ± 2,095.85	1,960.72 ± 14,323.47	47,791.49 ± 37,461.53															
베이비부머2세대 (1965-1974)	1,990	795.53 ± 3,858.74	1,957.76 ± 3,919.24	1,296.83 ± 2,946.97	1,105.06 ± 12,391.16	39,985.43 ± 29,046.67															
X세대 (1975-1984)	472	1,596.10 ± 9,865.05	2,224.09 ± 3,832.64	1,136.92 ± 2,598.02	2,181.38 ± 33,739.16	36,272.84 ± 41,358.61															
MZ세대 (1985+)	13	0.00 ± 0.00	2,185.00 ± 3,140.91	638.46 ± 1,303.55	0.00 ± 0.00	18,842.69 ± 19,869.89															

부록3. 가구 추계 결과

구분			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인 가구	가구주 출생연도	1964년 생	96,500가구	101,200가구	102,100가구	103,000가구	119,700가구	120,900가구	121,900가구	122,800가구		
		1963년 생	112,100가구	117,500가구	118,600가구	137,800가구	138,900가구	140,100가구	141,200가구	142,100가구		
		1962년 생	102,900가구	107,800가구	125,500가구	126,500가구	127,300가구	128,300가구	129,200가구	144,500가구		
		1961년 생	119,000가구	143,700가구	145,100가구	146,100가구	147,000가구	148,100가구	166,100가구	166,600가구		
		1960년 생	131,100가구	135,700가구	136,900가구	137,700가구	138,500가구	156,000가구	156,300가구	156,700가구		
		1959년 생	118,100가구	122,100가구	123,100가구	123,800가구	139,900가구	140,100가구	140,300가구	140,500가구		
		1958년 생	111,900가구	115,600가구	116,500가구	131,900가구	132,200가구	132,300가구	132,500가구	132,600가구		
		1957년 생	104,700가구	108,100가구	122,900가구	123,200가구	123,500가구	123,500가구	123,500가구	133,000가구		
		1956년 생	98,400가구	115,200가구	115,300가구	115,600가구	115,800가구	115,700가구	125,300가구	124,500가구		
		1955년 생	113,600가구	118,400가구	118,500가구	118,700가구	118,800가구	129,000가구	128,300가구	127,400가구		
부부 가구	가구주 출생연도	1964년 생	71,900가구	72,400가구	72,000가구	71,600가구	120,200가구	119,800가구	119,200가구	118,900가구		
		1963년 생	83,500가구	84,000가구	83,600가구	138,500가구	139,500가구	138,800가구	138,100가구	137,500가구		
		1962년 생	76,600가구	77,100가구	127,800가구	127,100가구	127,800가구	127,100가구	126,400가구	172,700가구		
		1961년 생	88,700가구	148,300가구	147,800가구	146,800가구	147,600가구	146,700가구	199,100가구	199,000가구		
		1960년 생	141,200가구	140,000가구	139,400가구	138,400가구	139,100가구	188,000가구	187,300가구	187,200가구		
		1959년 생	127,200가구	126,100가구	125,400가구	124,400가구	169,600가구	168,800가구	168,100가구	167,900가구		
		1958년 생	120,500가구	119,300가구	118,600가구	158,800가구	160,300가구	159,500가구	158,700가구	158,400가구		
		1957년 생	112,700가구	111,600가구	148,800가구	148,300가구	149,700가구	148,800가구	148,100가구	160,400가구		
		1956년 생	105,900가구	140,300가구	139,700가구	139,200가구	140,300가구	139,500가구	150,700가구	150,100가구		
		1955년 생	143,200가구	144,200가구	143,500가구	142,900가구	144,000가구	155,300가구	154,400가구	153,600가구		
자녀 동거 가구	가구주 출생연도	1964년 생	304,000가구	307,200가구	306,900가구	306,500가구	258,600가구	259,200가구	259,600가구	259,600가구		
		1963년 생	353,100가구	356,700가구	356,200가구	300,000가구	300,100가구	300,400가구	300,500가구	300,300가구		
		1962년 생	324,100가구	327,300가구	275,200가구	275,300가구	275,100가구	275,200가구	275,100가구	233,200가구		
		1961년 생	374,900가구	317,800가구	318,400가구	318,100가구	317,600가구	317,500가구	269,500가구	268,800가구		
		1960년 생	298,800가구	300,000가구	300,300가구	299,800가구	299,200가구	254,400가구	253,600가구	252,800가구		
		1959년 생	269,100가구	270,100가구	270,100가구	269,600가구	229,400가구	228,400가구	227,600가구	226,800가구		
		1958년 생	254,900가구	255,700가구	255,600가구	217,400가구	216,800가구	215,800가구	214,900가구	214,000가구		
		1957년 생	238,500가구	239,100가구	203,700가구	203,100가구	202,400가구	201,400가구	200,400가구	191,200가구		
		1956년 생	224,100가구	192,000가구	191,200가구	190,600가구	189,800가구	188,700가구	180,300가구	178,900가구		
		1955년 생	195,500가구	197,300가구	196,400가구	195,700가구	194,800가구	186,000가구	184,700가구	183,100가구		

구분		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1인 가구	가구주 출생연도	1964년 생	123,600가구	136,800가구	137,000가구	137,200가구	137,400가구	137,500가구	144,000가구	143,400가구	
		1963년 생	158,100가구	158,100가구	158,300가구	158,500가구	158,600가구	166,800가구	166,000가구	165,200가구	
		1962년 생	144,600가구	144,600가구	144,700가구	144,800가구	153,100가구	152,200가구	151,400가구	150,500가구	
		1961년 생	166,600가구	166,500가구	166,600가구	176,600가구	176,000가구	174,900가구	173,800가구	172,600가구	
		1960년 생	156,600가구	156,400가구	166,600가구	165,700가구	165,000가구	163,800가구	162,600가구	182,500가구	
		1959년 생	140,400가구	150,200가구	149,100가구	148,200가구	147,400가구	146,200가구	164,700가구	162,300가구	
		1958년 생	142,100가구	141,500가구	140,400가구	139,400가구	138,500가구	156,200가구	154,100가구	151,600가구	
		1957년 생	132,400가구	131,700가구	130,500가구	129,400가구	146,500가구	144,600가구	142,400가구	139,700가구	
		1956년 생	123,800가구	123,000가구	121,800가구	138,300가구	136,300가구	134,200가구	131,700가구	128,900가구	
		1955년 생	126,500가구	125,600가구	142,700가구	140,700가구	138,300가구	135,800가구	132,900가구	148,500가구	
부부 가구	가구주 출생연도	1964년 생	118,200가구	161,700가구	161,200가구	160,600가구	159,900가구	159,300가구	173,800가구	173,000가구	
		1963년 생	187,900가구	186,900가구	186,200가구	185,500가구	184,600가구	201,400가구	200,400가구	199,300가구	
		1962년 생	171,800가구	170,900가구	170,200가구	169,400가구	184,800가구	183,700가구	182,700가구	181,600가구	
		1961년 생	198,000가구	196,800가구	195,900가구	213,300가구	212,500가구	211,100가구	209,700가구	208,200가구	
		1960년 생	186,100가구	184,900가구	200,800가구	200,100가구	199,200가구	197,700가구	196,200가구	191,900가구	
		1959년 생	166,800가구	181,000가구	179,800가구	179,000가구	178,000가구	176,500가구	172,500가구	170,700가구	
		1958년 생	171,400가구	170,500가구	169,200가구	168,300가구	167,200가구	162,900가구	161,400가구	159,500가구	
		1957년 생	159,600가구	158,700가구	157,300가구	156,300가구	152,200가구	150,800가구	149,100가구	146,900가구	
		1956년 생	149,300가구	148,300가구	146,800가구	143,000가구	141,500가구	139,900가구	138,000가구	135,500가구	
		1955년 생	152,600가구	151,400가구	146,700가구	145,500가구	143,600가구	141,600가구	139,200가구	112,500가구	
자녀 동거 가구	가구주 출생연도	1964년 생	259,600가구	218,600가구	218,000가구	217,300가구	216,500가구	215,800가구	205,300가구	204,100가구	
		1963년 생	253,900가구	252,700가구	251,800가구	250,900가구	249,900가구	238,100가구	236,600가구	235,200가구	
		1962년 생	232,200가구	231,000가구	230,100가구	229,200가구	218,700가구	217,200가구	215,800가구	214,300가구	
		1961년 생	267,500가구	266,100가구	265,000가구	252,700가구	251,500가구	249,600가구	247,700가구	245,700가구	
		1960년 생	251,500가구	250,000가구	238,600가구	237,000가구	235,700가구	233,700가구	231,700가구	245,700가구	
		1959년 생	225,400가구	215,300가구	213,600가구	212,000가구	210,700가구	208,600가구	221,300가구	218,600가구	
		1958년 생	204,000가구	202,900가구	201,000가구	199,400가구	197,800가구	209,600가구	207,200가구	204,100가구	
		1957년 생	190,000가구	188,800가구	186,900가구	185,100가구	196,300가구	194,000가구	191,400가구	188,000가구	
		1956년 생	177,700가구	176,400가구	174,400가구	185,000가구	182,600가구	180,100가구	177,100가구	173,500가구	
		1955년 생	181,700가구	180,100가구	190,600가구	188,200가구	185,300가구	182,200가구	178,700가구	182,600가구	

부록4.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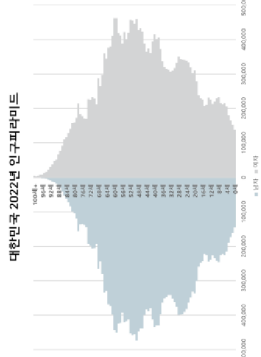
인구학적 접근을 통한 보건·복지 정책 수요 예측 연구

최종 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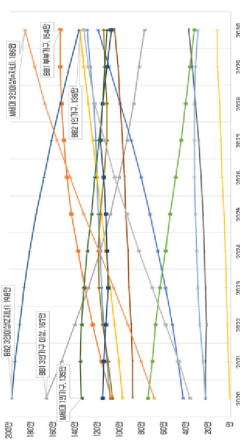
2023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 별관

연구 배경 요약 : 우리가 놓치고 있던 관점과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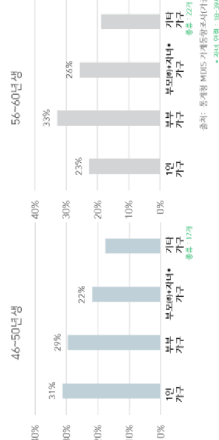
'고령'의 주인공이 바뀐다



다양해지는 대한민국 가구



'60-64세를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살아있는지, 살고 있는지?'



대한민국 평균 수명 개선 기여도 큰 공신 베이비붐 세대를 가구로 보자

남성			여성		
연령	2000년	2020년	연령	2000년	2020년
구분	2000년 (50세)	2020년 (70세)	구분	2000년 (50세)	2020년 (70세)
1950년생	+25.7	+20.8	1950년생	+31.6	+25.7
구분	2010년 (60세)	2030년 (70세)	구분	2010년 (60세)	2030년 (70세)
1960년생	+29.2	+23.4	1960년생	+35.1	+28.2
	+3.5	+2.6		+3.5	+2.5

기대수명에서도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 2030년 대한민국, 가장 오래 사는 국가가 된다 !!
- 이 현상에서 가장 큰 공신은 베이비붐 1세대의 평균 수명 향상
- 보건·복지 정책 수요의 단위는 '가구'
- 해외에는 이미 '가구' 관점에서 본 연구가 다수 존재

- 향후 고령자가 될 베이비붐 세대, 이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 언론에서 비추는 베이비붐 세대의 두 가지 모습 중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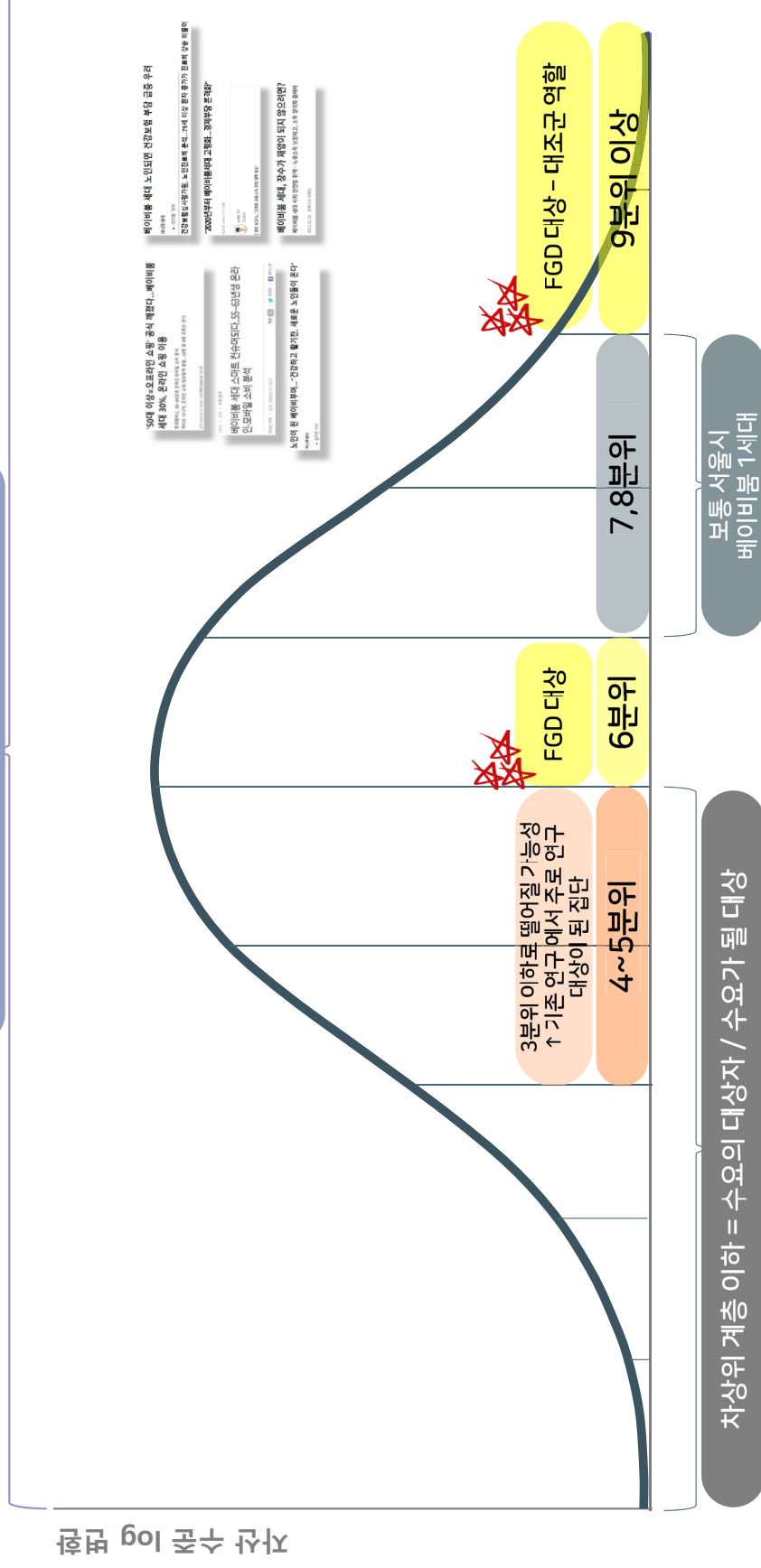
- 점점 다양해지는 대한민국 가구 유형
- 베이비붐 세대 또한 자녀 독립이 늦어지면서, 산업화 세대와 다른 양상을 보일 텐데?

“ 보건 복지 미래 수요를
산업화 세대와 베이비붐 1세대 중심으로
서로 비교 하며 그려 보기”

연구 방법론

	질적 분석 - FGD	양적 분석 - APC	가구 단위의 수요 추계
방법론	포커스 그룹(Focus Group)조사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APC 분석	가구 추계 : 가구 주율법 수요 추정 : 양적분석 결과와의 결합
활용 자료	데이터 생성 (질적 데이터 직접 수집)	- 가계 금융 복지 조사 (2010-2021년) - 한국의료패널 (2008-2018년) - 국민노후보장패널 (2005-2019년)	- 가구 추계 자료 - 양적 분석의 APC-IE 모델 결과값
수행 기간	조사 설계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1월 13일 자료 수집 : 2023년 1월 26일 ~ 2월 1일 (기록 정리 : 2월 10일까지) 분석 기간 : 2023년 2월 13일 ~ 3월 10일	자료 정리 : 2022년 8월 16일 ~ 11월 30일 1차 분석 : 2022년 10월 17일 ~ 11월 21일 2차 분석 : 2023년 1월 16일 ~ 3월 10일 <small>11/29 중간보고회</small>	자료 정리 : 2022년 8월 16일 ~ 11월 30일 가구 추계 : 2022년 11월 30일 ~ 2023년 1월 25일 수요 예측 : 2023년 1월 26일 ~ 3월 10일
주요 가설	1)'노후'에 있어서 생각과 태도 2)'활동적 노화' 관점의 세대별 특징 3)'활동적 노화' 관점에서 본 보건복지 정책 수요	1)각 종속변수에 대한 코호트 효과 확인 2)각 종속변수에 대한 가구 유형의 효과 확인 <small>종속변수: 가구지출의료비1, 노후생활준비여부,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경상소득, 기저분소득</small>	1)베이비붐 1세대의 가구 유형별 가구 추계 2)보건복지 정책 수요의 증가/감소 여부 확인 3)시점별 정책 수요의 증가/감소 규모 파악
목적	보건복지 정책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성향 발굴	세대별 차이 및 가구 유형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확인, 수요예측의 가중치 도출	베이비붐 1세대 보건복지 정책 수요의 시점별 증가/감소 여부 및 그 규모 도출

양적 분석에서는 모든 가구 대상으로 분석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미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연구 목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1세대의 성향/속성을 비교하고,

이로부터 향후 보건·복지 정책 수요의 방향 잡기

연구 질문

연구 질문1: 산업화세대와 베이비붐1세대는 '노후/노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연구 질문2: '활동적 노화'의 관점에서 두 세대는 어떠한 특징(공통점, 차이점)을 보이는가?

연구 질문3: 두 세대의 '활동적 노화'와 관련된 특징이 어떠한 '보건복지 정책 수요 성향'을 만드는가?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 조사 설계
- 조사 방법
- 자료 수집 기간
- 모집 경로
- 참여자 선정/제외 기준

포커스 그룹 (Focus Group) 포커스 그룹 조사는 6~10명의 참여자로 구성된 그룹이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 의견,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어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Krueger, 2014).

2023년 1월 26일~2023년 2월 1일

조사 업체 입소스-코리아의 연구대상자 모집 전문 인력이 내부 패널 리스트를 통해서 유선 접촉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업화세대 및 베이비붐1세대 표본 추출: 각 세대별로 가구 유형, 자산 분위, 성별, 연령, 서울 내 거주지(자치구)를 고려해서 목적표집
①취약한연구대상자(의사소통의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유·의·사·에·따·른·동·의·를·할·수·없·는·자·)인·경·우
②순자산과 거주 중인 주택의 가·액·이·순자산의 25% 이상 차·이·나는·경·우(금융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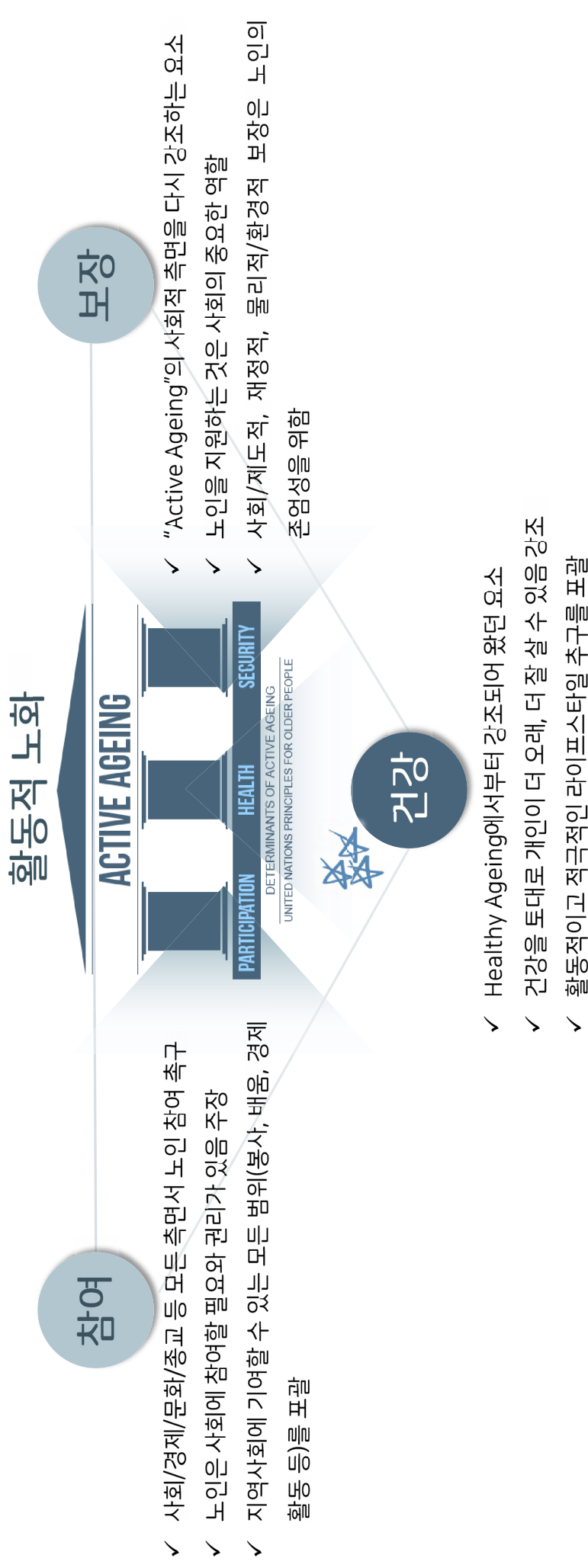
1945~1954년 출생

1955~1964년 출생

세대	산업화세대		베이비붐1세대	
가구 유형	부부 가구		부부 가구	
순자산 분위	순자산 6분위	순자산 9분위 이상	순자산 6분위	순자산 9분위 이상
총 10개 그룹 (총 61명)	1개 그룹 (6명)	1개 그룹 (6명)	2개 그룹 (6명, 7명)	2개 그룹 (6명, 6명)
	순자산 6분위	순자산 9분위 이상	순자산 6분위	순자산 9분위 이상
	1개 그룹 (6명)	1개 그룹 (6명)	2개 그룹 (6명, 7명)	2개 그룹 (6명, 6명)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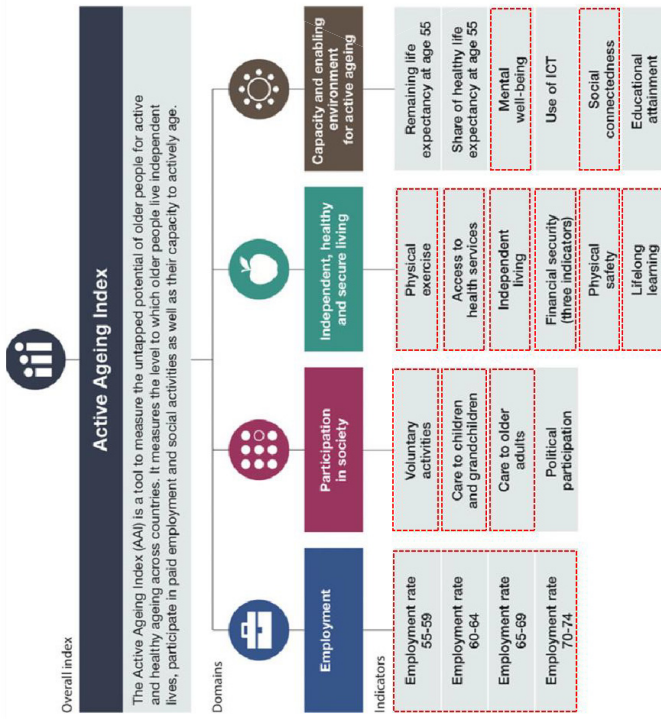
이론적 배경



Source: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질문



Source: Zuhdi and Stanton (2005), p.63

소주제	문항 번호	질문
Part 1	Q1	노후가 시작되는 연령
	Q2	이상적으로 그리는 노후의 삶
	Q3	노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Q4	노후를 위한 계획이나 준비
	Q5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
	Q6	향후 서울에 계속 거주할지 여부
Part 2	Q7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 관리 방법
	Q8	치료/요양/간호에 대한 대처 경험(계획)
Part 3	Q9	노후 대비 자금의 구성
	Q10	충분하다고 느끼는 정도
	Q11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의향
Part 4	Q12	평소 즐기는 여가활동
	Q13	배우거나 시도해보고 싶은 여가활동
Part 5	Q14	부모님(시부모님, 장인/장모님) 돌봄 경험
	Q15	향후 돌봄 의향
	Q16	힘들었던 점/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Q17	손자녀 돌봄 경험
Part 6	Q18	향후 돌봄 의향
	Q19	힘들었던 점/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Part 7	Q20	자신이나 배우자의 돌봄에 대한 계획
Part 8	Q21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의견

[illegible]

五福

- 각 그룹에서 특장점으로 떠오른 내용과 여러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출된 내용을 2개를 묶어 발표를 진행 (코드 101개, 하위 범주 45개, 상위 범주 24개)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결과

-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산업화세대		베이비붐1세대	
	N	%	N	%
전체	12명	100%	49명	100%
성	남	58%	22명	45%
	여	42%	27명	55%
평균 연령(표준편차)	72.1세 (± 2.5 세)		63.1세 (± 2.5 세)	
가구 유형	부부가구	100%	25명	51%
	자녀 동거 가구	.	24명	49%
순자산	6분위	50%	25명	51%
	9분위 이상	50%	24명	49%
	동복권	33%	16명	33%
주거지	동남권	33%	12명	24%
	서남권	8%	15명	31%
	서북권	25%	3명	6%
	도심권	.	3명	6%
	예	33% (33%)	18 (26가구)	37% (53%)
경제활동 여부	아니오	67% (67%)	31 (23가구)	63% (47%)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결과

- '노후/노인'에 대한 개념과 정의, 두 세대가 비슷할까?

[산업화세대]

이제 막 노인이 되어 노후의 삶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거나, 일부는 65세 정도부터 노인이 되어 노후에 접어든 지 몇 년 되었다고 생각

"정신 연령이라든가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자기가 이제는 좀 일하기가 조금 은퇴하고 싶다, 이러는 나이를 ... 70세로 보는 게 저로서는 참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세대 G2_라 (남성, 만 74세, 부부 가구, 6분위)

차이점을 보이는 지점이 발견됨

[베이비붐 1세대]

내가 노인이 되어 노후에 접어들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 해주지만, 스스로는 노인이 되었다고 하거나 노후를 보낸다고 하기에 아직 젊다고 느끼는 상태

"벌써 아버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을 느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젊은데 ... 60대분들이 많이 또 활동량이 많으니까 노후하기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베이비붐 1세대 G10_라 (남성, 만 62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65세가 ... 지하철 그런 것도 시작이 되고 모든 게, 60은 너무 이른 것 같고, 기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65세는 이제 노인에 접어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베이비붐 1세대 G3_다 (여성, 만 65세, 부부 가구, 9분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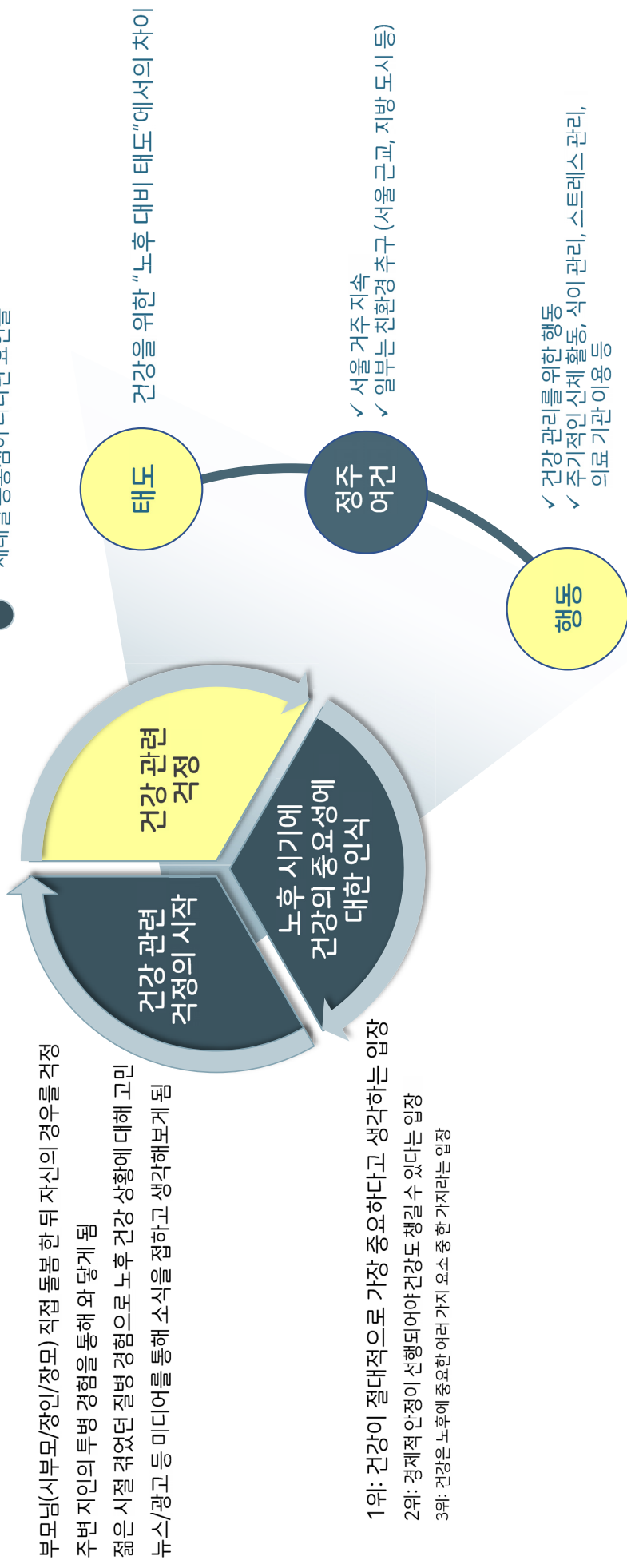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결과

-첫번째 주제 '건강'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언급이 되었으나, '사회적 건강'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세대별 차이점이 나타난 요인들
- 세대별 공통점이 나타난 요인들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결과

-첫번째 주제 '건강' - 두 세대 가구가 이야기하는 "건강 관련 걱정"의 차이

산업화 세대 -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

"그게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죠.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병원 가고 그러면 뭐 의사한테 맡기고 뭐 수술하게 되면 수술을 해야지 방법이 특별하게 몸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방법이 좀 없습니다."

-산업화세대_G2_라 (남성, 만 74세, 부부 가구, 6분위)

"저희도 보험은 안 들었어요 ...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산업화세대_G2_바 (여성, 만 75세, 부부 가구, 6분위)

- 치료/수술비, 간병인 비용 등의 의료비 부담
- 국민건강보험 외의 준비는 대체로 안 되어 있음
- 근로소득이 끊기게 되어 생활비에 대한 어려움

건강 관련 걱정

베이비붐 1세대 - 자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

"자식들 애 안 먹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혹시 병이 나거나 해서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자식들 애 먹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베이비붐1세대_G5_바 (여성, 만 65세, 부부 가구, 6분위)

"제 의식이 있는 한은 제가 서비스 받고 싶고요. 이제 의식이 없거나 혼자 정말 간병인도 어떻게 전문의가 필요할 때는 그냥 요양원 갈 거 같아요 ... 아이들한테 간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베이비붐1세대_G10_가 (여성, 만 61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의지하게 되는 상황
- 중증 치매, 와병 상태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도움을 받는 상황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결과

-첫번째 주제 '건강' - 두 세대 가구가 이야기하는 "건강 관련"- 태도 측면의 차이

산업화 세대 - 가장 중요한 건 막연하게 건강이라고 생각

"우리 때는 노후도 없이, 노후 생각 전혀 못했어요. 없는데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저녁에 이제 집에 오고 이렇게 해서. 글썄 이제는 이제 노후가 생각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한 건 없습니다. 다 이제 말씀대로 몸이 자꾸 늙어가니까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

-산업화세대 G2_나 (남성, 만 72세, 부부 가구, 6분위)

-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함
- 구체적인 계획은 미지수

베이비붐 1세대 -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에 구체적 계획 多

"저도 ... 보험, 저희는 보험 혜택을 좀 본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갑자기 그냥 뼈가 골절이 해마다 돼 가지고 그걸로 혜택을 좀 봤었고."

그렇지 않으면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베이비붐1세대 G9_바 (여성, 만 68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건강 관련 [태도]

저는 건강을 생각하면 약간 서울을 떠나서 시골이 공기가 좋을수록 좋은데 또 노후에 너무 시골에 있다는 건는 우리가 병원도 좀 가까워야 되고 ...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골로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중간쯤..."

-베이비붐1세대 G5_다 (여성, 만 64세, 부부 가구, 6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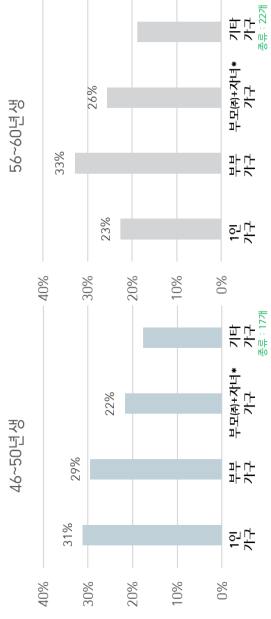
- 경제적인 준비로 건강을 뒷받침하고자 함
eg. 각종 민간 보험에 가입, 의료비에 대비한 적극적인 저축
- 정주 여건 결정에 있어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을 고려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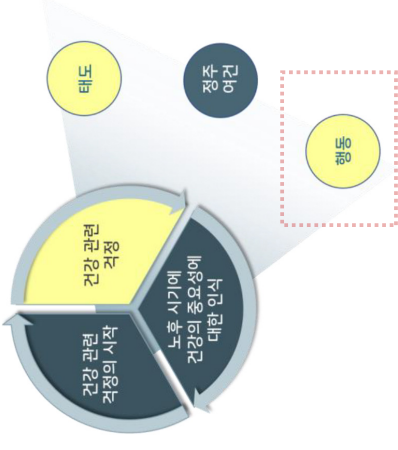
-첫번째 주제 '건강' - 두 세대 가구가 이야기하는 "건강 관련"- 행동 측면의 차이

'60~64세를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



가구 문화가 늦는 베이비붐 1세대

"건강 관리 행동의 조력자, 자녀"



자녀를 통한 건강 관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산업화 세대

"기구 필라테스는 젊은 아들이 주로 한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어서 선풍 등록을 못하니까 딸이 ... 1년권 그냥 일방적으로 등록 해버렸어요. 정말 수업 할 때마다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베이비붐1세대_G7_다 (여성, 만 60세, 자녀 동거 가구, 9분위 이상)

"딸들이 저기 비타민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사다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유산균 먹고 점심 때는 뭐 먹고. 너무 많이 먹으라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 그래야지 엄마 탄력도 있고 뭐도 좋고 그러더라고." -베이비붐1세대_G8_나 (여성, 만 61세, 자녀 동거 가구, 9분위 이상)

"50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수술도... 그 뒤로는 아들이 더 신경을 쓰는데...건기. 9988도 신청해가지고 하고 이제 아들이 더 신경을..." -베이비붐1세대_G9_다 (여성, 만 68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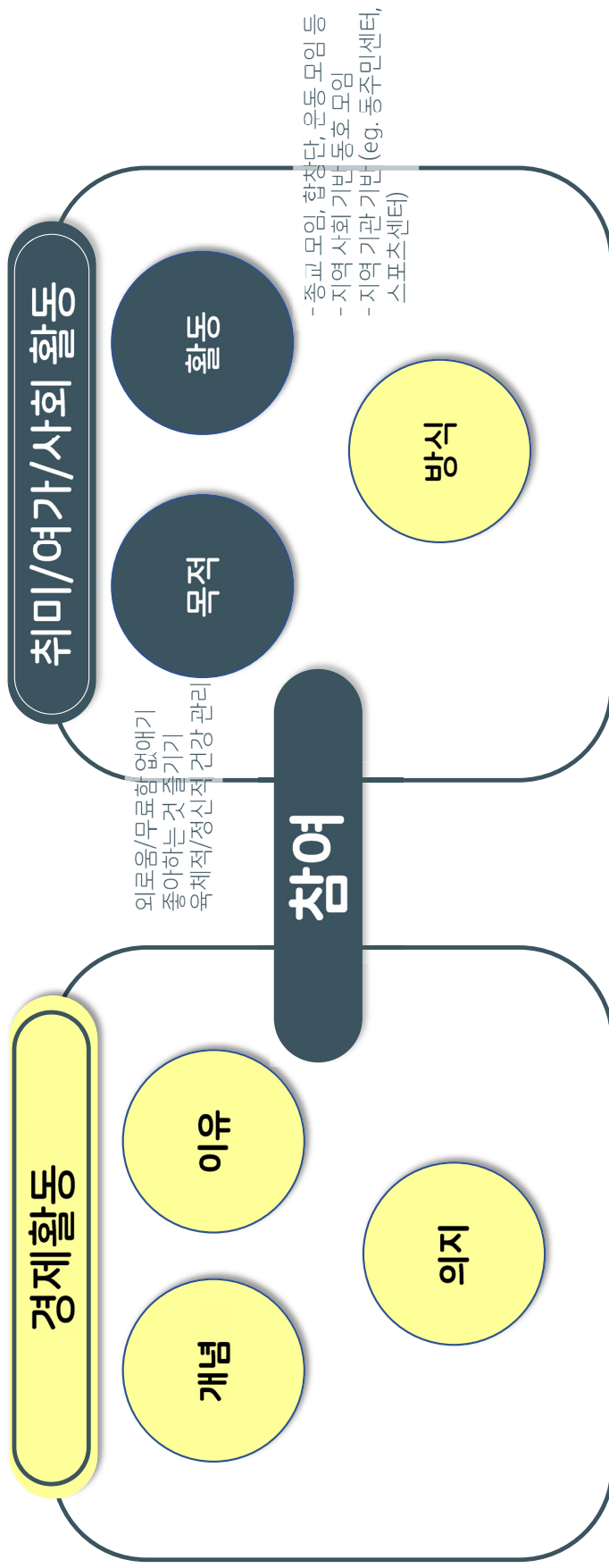
- 주기적인 신체활동으로의 참여 촉진
- 영양제 섭취, 식단 관리 등에 대해 최신 정보 제공
-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어, 딸의 관여가 더 적극적
- 자녀로 인해 "노후/노인"과는 더 멀게, 더 젊게 살게 됨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결과

-두번째 주제 '참여'

- 세대별 차이점이 나타난 요인들
- 세대별 공통점이 나타난 요인들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결과

-두번째 주제 '참여' - 경제 활동 측면 (개념/이유/의지)차이

산업화 세대 : 경제활동 = 돈벌이 수단/일자리

"쓰기 나름인데 뭐 과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죠. 이걸로 지내니까 뭐 기준이
이건데 나는 이거다 이거 아니구요. 지금은 지금대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산업화세대 G2_나 (남성, 만72세, 부부 가구, 6분위)

베이비붐 1세대 : 다양화 +돈벌이 수단/일자리 그 이상

"보면 일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돈을 떠나서... 돈을, 돈 액수를
떠나서 그냥 일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베이비붐1세대 G5_다 (여성, 만 64세, 부부 가구, 6분위)

경제활동 참여 개념/이유/의지

"바꿀 것도 없어요. 우리 나이에 할 것도 없고."
-산업화세대 G1_바 (여성, 만72세, 부부 가구, 9분위 이상)

-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
- 하지만 여건에 맞춰 생계 꾸리는 것에 대체로 만족
-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향은 없음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다 관련되어 있겠지만 일자리가 없게 되면 사람이
정체가 돼서 아프게 돼요.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베이비붐1세대 G9_마 (남성, 만 63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 가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자 함
- 소일거리를 통해 용돈 벌이 정도를 하고 싶음
-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얻고 싶음
-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싶음
-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계속 경제활동 하고 싶음

6분위 자녀 동거 가구에서↑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결과

-두번째 주제 '참여' - 취미/여가/사회 활동 방식

"밴드 같은 데 들어가서 저도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하고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를 가입해 놓으면 마음 맞는 사람들이끼리 하니까."
-베이비붐1세대_G10_마 (여성, 만60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저는 여행 카페도 있고 등산 카페도 있고 걷기 운동 카페도 있고 많아요 카페가. 춤 카페도 있고 ... 부부가 아니면 거기 가입을 못 해요."
-베이비붐1세대_G4_나 (여성, 만67세, 부부 가구, 9분위 이상)

- 산업화 세대와 베이비붐1세대의 참여 활동 자체는 유사.
- 하지만 참여하는 경로가 SNS(eg. 밴드, 카페)로 옮겨가는 중

첫번째 차이 "채널"의 확대

채널 확대

기대 수준

두번째 차이 기관 배움 콘텐츠에 기대하는 수준 변화

- 베이비붐 1세대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배움에 대한 경험 多
- 공공 기관에서의 강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동주민센터 vs 백화점 문화센터)

"나라에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 이렇게 해서 찾아가 보면 너무 기초적인 거 A, B, C부터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흥미를 잃어서 안 가게 돼요. ... 요즘에는 이렇게 좀 귀찮히 많이 배우신 분들도 많이 있으셔요 좀 나이 드셨어도. 조금 수준 좀 높게 좀 그런 반도 좀 운영해줬으면 좋겠어요."
-베이비붐1세대_G9_마 (여성, 만 60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이것을 중앙센터 동네에서 하는 거나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성의가 없어요." -베이비붐1세대_G4_다 (여성, 만 67세, 부부 가구, 9분위 이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관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그냥 일반 시설에서 배우는 것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좀 이렇게 강사진들도 좀 어느 정도 좀 관장은 강사진들로 해가지고..."
-베이비붐1세대_G8_나 (여성, 만 61세, 자녀 동거 가구, 9분위 이상)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결과

-세번째 주제 '보장'

- 세대별 차이점이 나타난 요인들
- 세대별 공통점이 나타난 요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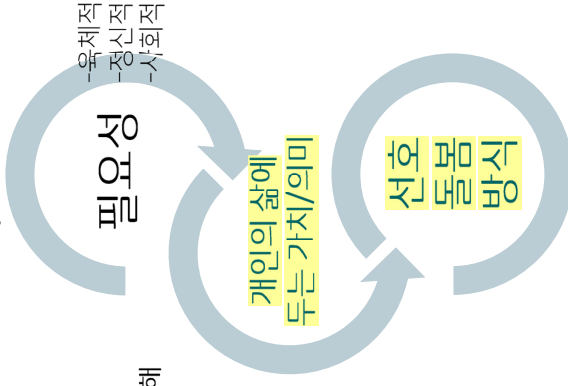
보장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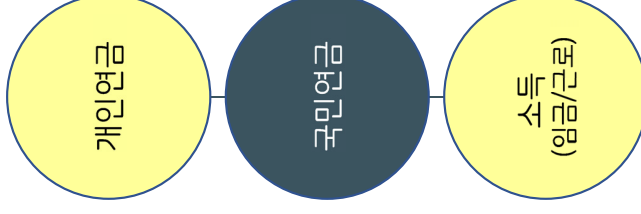
제공자



수요자



경제적 측면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결과

-세번째 주제 '보장' -돌봄 제공자로서의 베이비붐 1세대

산업화 세대 - 부모는 당연히 자녀가 모셔야...

"어머니께서 이제 형님 댁에 계시다가 갑자기 형님이 또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 요양보호사나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 저는 또 이제 회사 다녔고 특별히 보호를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조금씩은 했겠죠." -산업화세대_G2_나 (남성, 만72세, 부부 가구, 6분위)

- 양가 부모님 직접 모시거나, 모시는 형제/자매를 둔 경험
- 제도 혜택 없이 돌봄의 노고를 정신/육체적으로 온전히 겪음
- 요양시설로 모시는 경우는 소수, 불효라는 생각

산업화 세대 - 자녀를 위해서 손자녀 돌봄에 참여

- 육체적으로 피로를 많이 느낌. 실제로 질병을 얻기도.
- 유익 보다는 소모되는 정신적, 경제적 비용이 더 큼

베이비붐 1세대 - 부모는 자녀가 모시면 좋지만...

"어머님 혼자 사시다가 조금 이제 연로해서 힘드시니까 남편한테, 아들한테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했대요. 그러면 남편이 ... 자기 선에서 안 된다고 그래버렸대요 ... 그동안 좀 힘든 상태였는데 ... 요양병원으로 나중에 모신 거죠."

-베이비붐1세대_G5_다 (여성, 만 64세, 부부 가구, 6분위)

- 돌봄 부담이 본인 건강에 해가 되는 수준이 되면 형제/자매에게 순서를 넘기지 않고, 시설(요양원, 요양병원 등)로 모시는 방식
- 드물게 직접 모시는 경우 이전 세대에 비해 남성 관여도 ↑

베이비붐 1세대 - 자녀를 위해서는 손자녀 돌봄에 참여해야 맞지만...

- 손자녀 돌봄 경험이 매우 낮음
- 향후 손자녀 돌봄에 대한 의향이 낮음
- 그 이유로는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큼
- 손자녀 돌봄 경험이 있는 경우 이전 세대에 비해 남성의 관여도가 높아짐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결과

-세번째 주제 '보장' - 돌봄 수요자로서의 베이비붐 1세대

산업화 세대 - 부부간 힘 닮는 데까지

"집사람하고 이런 상의를 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코로나 때니까 지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것도 ... 이제 화면으로 교육을 받고 ... 그래서 이걸 하자
했는데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는 것도 괜찮은... (내 배우자를 위해서?) 네, 같이."

-산업화세대_G2_다 (남성, 만69세, 부부 가구, 6분위)

- 부부 간 서로 직접 돌보고 싶다는 의견이 주요함.
-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좋지 않아, 혼자가 되면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집에서 최대한 지내려고 함.

단, 베이비붐 1세대 9분위 이상의 경우

-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의사가 없음
-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한 언급이 많음. (이미 땀겨나 교육 중 혹은 알아보는 중)
- 부부 간에 돌봄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주류(해서 요양 시설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음)
- 요양 시설(요양 병원, 요양원 등)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좋음

베이비붐 1세대 - 자산에 따라 차이가 발생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둘 다 ...
끝까지 내가 돌봐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 서로 연명치로는 하지 말자. 그리고

누구, 자식한테 아무래도 부담 주고 싶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게끔 해서 ... 이제 하다가 저도 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그런 경우에는 뭔가 도움을 받아야겠조 돈을 들여서라도."

-베이비붐1세대_G6_나 (여성, 만59세, 부부 가구, 6분위)

6분위의 경우

-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의견은 소수
- 요양 시설(요양 병원, 요양원 등)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좋지 않음
- 부부 간에 요양이 가능할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 의견이 주류
(w/ 정부 지원의 재가 서비스, 가사 도우미 등)
- 각종 개인 보험에 대한 언급이 다수 있음
(요양 보험, 간병 보험, 암보험, 종합보험 등)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결과

-세번째 주제 '보장' - 돌봄 수요자로서의 베이비붐 1세대

베이비붐 1세대 6분위 - '재가 서비스'

"저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 근데 어쨌거나 환자분들이 거기로 가시면은 다 일찍 돌아가신대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이라요 거기가. 그래서 ... 저는 그냥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베이비붐1세대_G10_바 (남성, 만 60세, 자녀 동거 가구, 6분위)

- 자녀의 도움도 일부 기대하고 있음. (eg. 정보 제공 등)
- 혼자 삶을 전혀 영위할 수 없는 정도/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도가 되면 시설을 들어가겠다는 의견
- 대체로 6분위에서 주로 나왔던 응답

베이비붐 1세대 9분위 이상 - '요양시설도 오케이'

"저는 그냥 요양원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 그리고 또 아이가 와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 그 다음에 저 또한 부담 없고 그런 방면에서 저는 시설 쪽으로 가는 게 더 좋다. 나이 들어서도, 아니 아파서도 서로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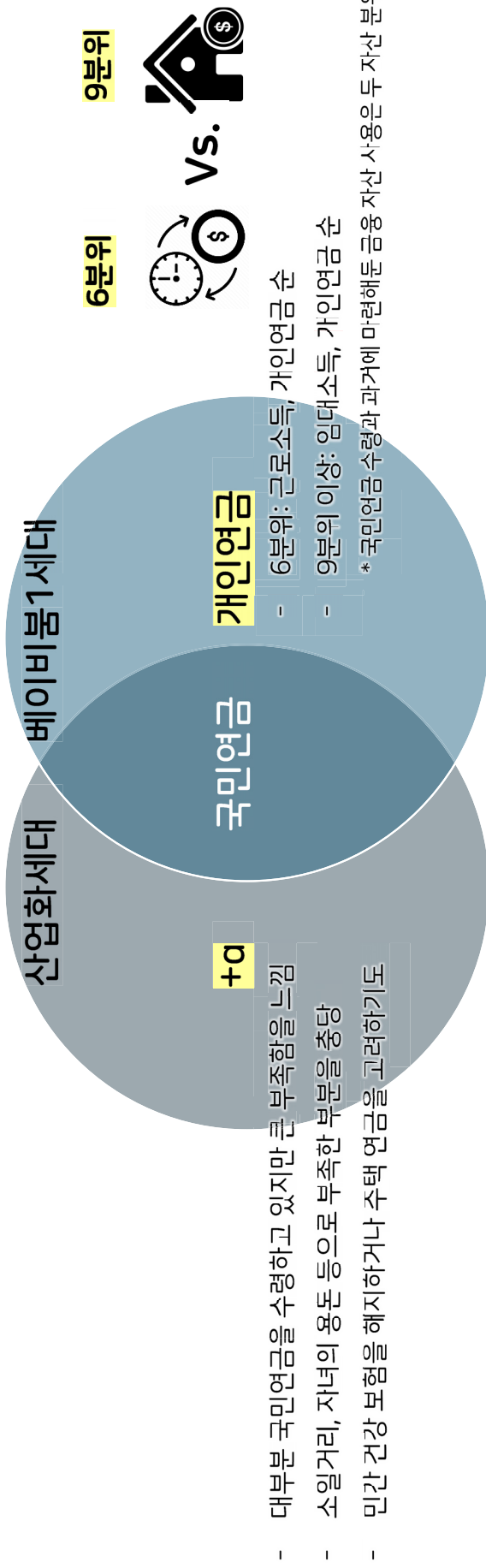
-베이비붐1세대_G7_바 (여성, 만 62세, 자녀 동거 가구, 9분위 이상)

- 재가서비스는 혼자 일상의 삶을 영위하기에 아무래도 충분할 수 없다는 의견 (eg. 식사, 각종 시설 등)
- 요양 시설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 사교생활을 하는 게 더 유익할 것 같다는 의견
- 대체로 9분위 이상에서 주로 나왔던 응답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조사 결과

- 세번째 주제 '보장' - 경제적 측면



"저희도 남편 연금 조금 나오고요 제 거 조금 나오고 또 모아 뒀던 것도 조금씩 쓰고 애들이 좀 주고 ... 그냥 아껴 쓰면 쓰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산업화세대 G2_가 (여성, 만70세, 부부 가구, 6분위)-

"제가 버는 소득 조금 있고요. 저희 집사람이 버는 소득 조금. 조금씩 알바 같은 거 해서 받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제 개인연금이 있고요. 집사람 국민연금 조기 신청해서 좀 받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소득 조금..."

-베이비붐1세대 G6_바 (남성, 만62세, 부부 가구, 6분위)-

연구 결과 - (질적 분석)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요의 밑그림을 그려줄 성향과 속성을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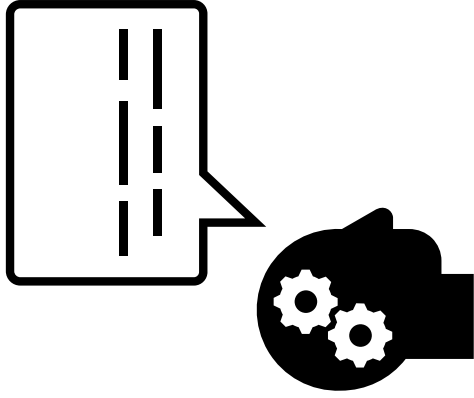
질적 분석 소결

"베이비붐 1세대는..."

자산 분위가 높은 낫든, 이전 세대에 비해 더 "까까한" 노인이 될 예정.
이들은 노인이 되는 그 시작부터 깐깐하다.
"내가 노인이라고? 노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한다!"

내 삶에 관한 한, 경제활동도, 취미/여가 활동도, 사회 활동도 두루두루 하고 싶고
나아가 이왕 하는 거 "잘" 하고 싶어 적극적으로 여러 방면(SNS 등)을 모색한다.
이렇게 내 삶이 너무나 중요한 베이비붐 1세대에게 가족을 위해 무한히 희생하라는 건 가혹한 처사.

하고 싶은 게 많은 노후를 보낼 예정인 만큼 젊은 시절부터 나름의 준비도 열심히 해 왔고,
나중에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준비된 이들도 꽤 많다.



반대로, 준비가 안 된 이들도 많아,
자녀 결혼/독립할 때 조금 떼어주고, 큰 질병을 겪으며 한번 또 왕창 쓰고 나면
나이 들어 더 이상 일도 못할 때에는 "하루 노인"이 남일이 아닐 이들이 산적되어 있다.

한편 이들은, 같이 살 때엔 옆에서 이것저것 알려주고 챙겨주고 꽤 잘 키웠다고 좋아했던 내 자녀이지만,
그래도 자녀가 다시 내 지붕 아래 들어와 나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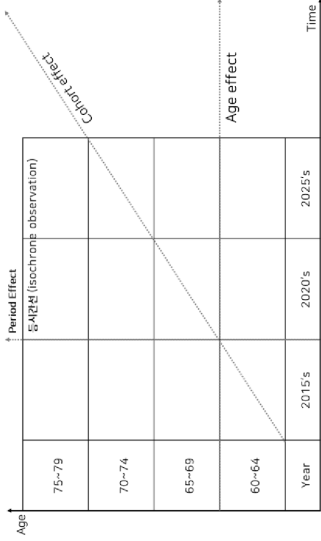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지만 좋든, 싫든 요양시설에서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거라는 건
베이비붐 1세대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이들의 정해진 미래.

연구 결과 - (양적 분석) '보건복지 정책 수요 결정 요인은 향후에 어떻게 변화 하는가?'

주요 방법론

-분석 방법론 및 활용 자료

APC 분석



가계 금융 복지 조사

연수	연계	비고
2015년	2015.12.25	2015.12.25
2016년	2016.12.25	2016.12.25
2017년	2017.12.25	2017.12.25
2018년	2018.12.25	2018.12.25
2019년	2019.12.25	2019.12.25
2020년	2020.12.25	2020.12.25
2021년	2021.12.25	2021.12.25
2022년	2022.12.25	2022.12.25
2023년	2023.12.25	2023.12.25
2024년	2024.12.25	2024.12.25
2025년	2025.12.25	2025.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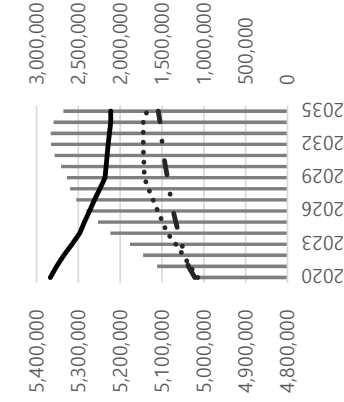
한국의료패널

연수	연계	비고
2015년	2015.12.25	2015.12.25
2016년	2016.12.25	2016.12.25
2017년	2017.12.25	2017.12.25
2018년	2018.12.25	2018.12.25
2019년	2019.12.25	2019.12.25
2020년	2020.12.25	2020.12.25
2021년	2021.12.25	2021.12.25
2022년	2022.12.25	2022.12.25
2023년	2023.12.25	2023.12.25
2024년	2024.12.25	2024.12.25
2025년	2025.12.25	2025.12.25

국민노후보장패널

연수	연계	비고
2015년	2015.12.25	2015.12.25
2016년	2016.12.25	2016.12.25
2017년	2017.12.25	2017.12.25
2018년	2018.12.25	2018.12.25
2019년	2019.12.25	2019.12.25
2020년	2020.12.25	2020.12.25
2021년	2021.12.25	2021.12.25
2022년	2022.12.25	2022.12.25
2023년	2023.12.25	2023.12.25
2024년	2024.12.25	2024.12.25
2025년	2025.12.25	2025.12.25

가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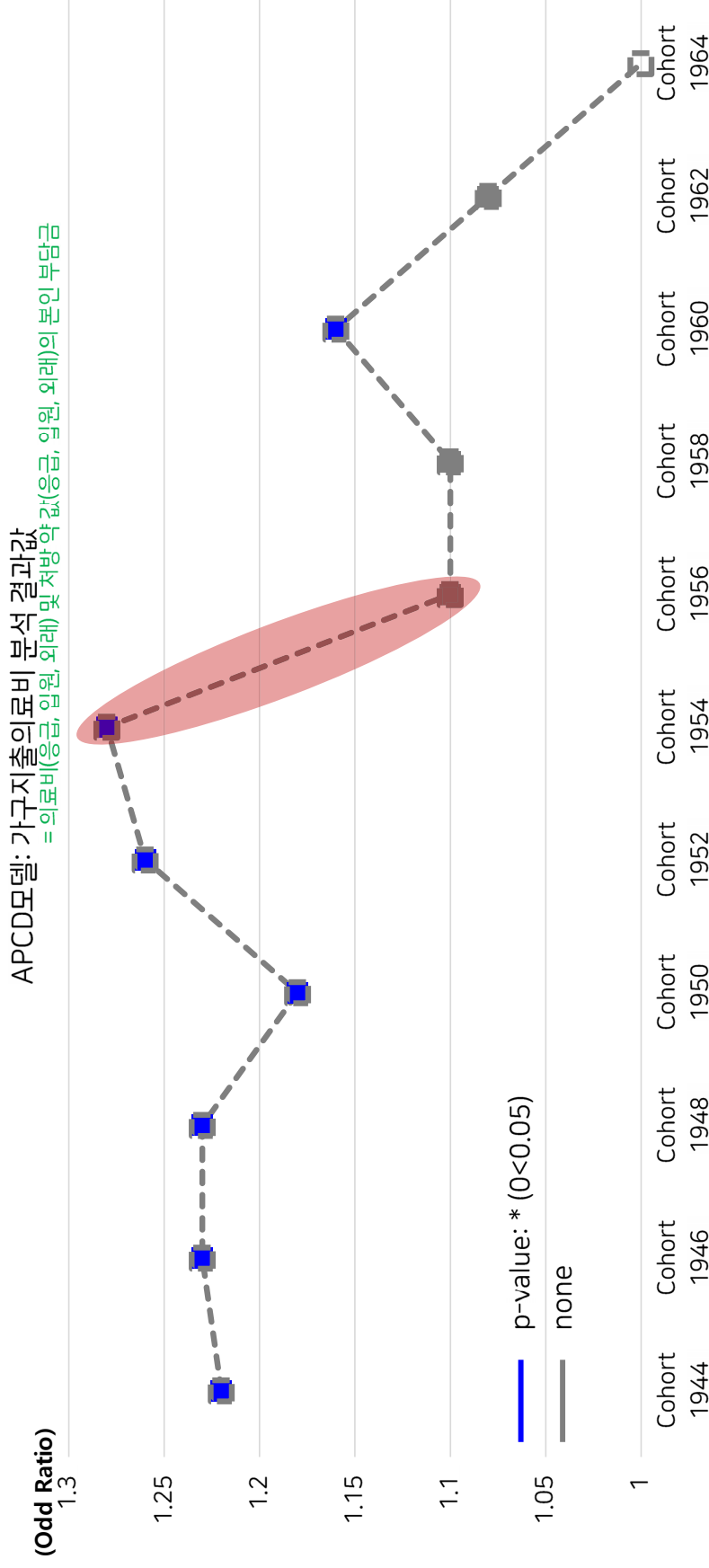


Age / Period / Cohort Effect 분석 및 양적 추정 완료

연구 결과 - (양적 분석) '보건복지 정책 수요 결정 요인은 향후에 어떻게 변화 하는가?'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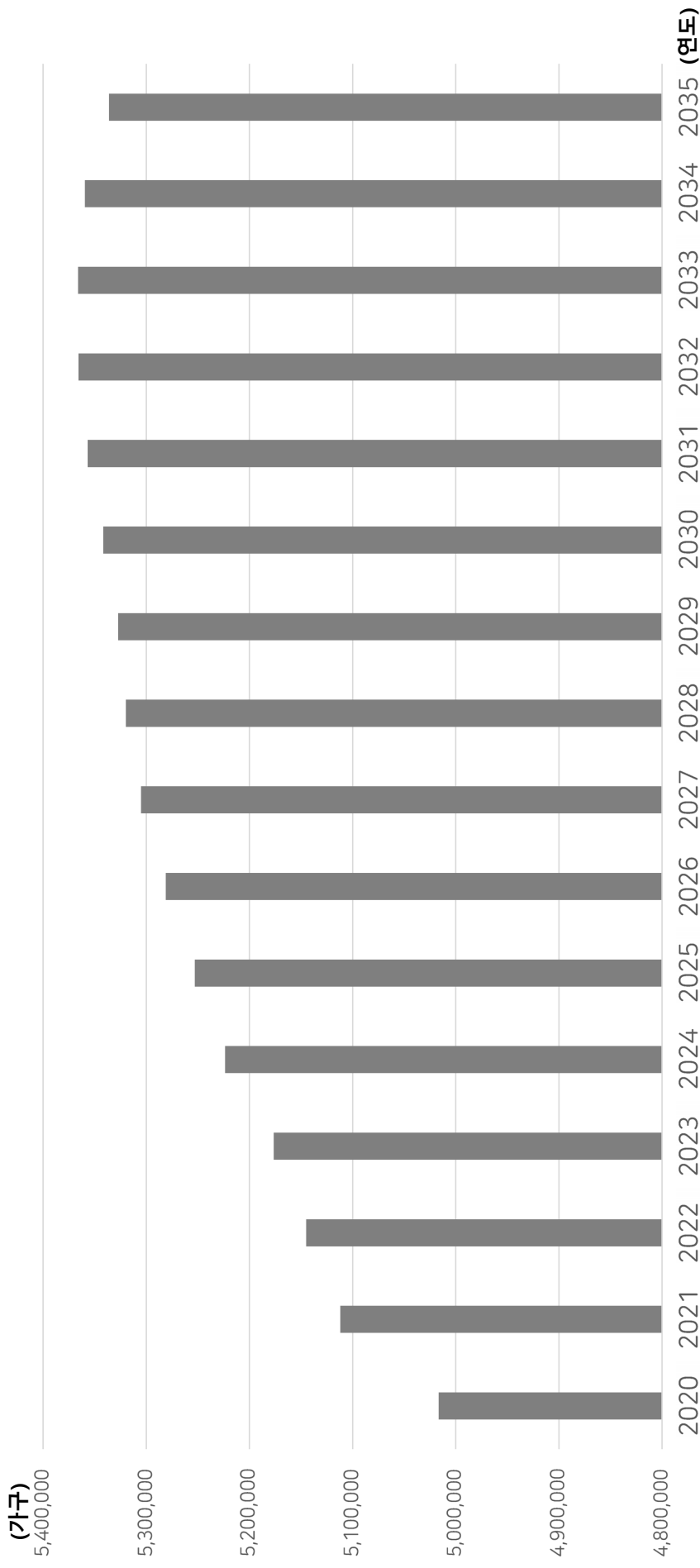
-그래서, 코호트 효과는 확실한가?



연구 결과 - (양적 분석) '베이비붐 1세대의 수요는?'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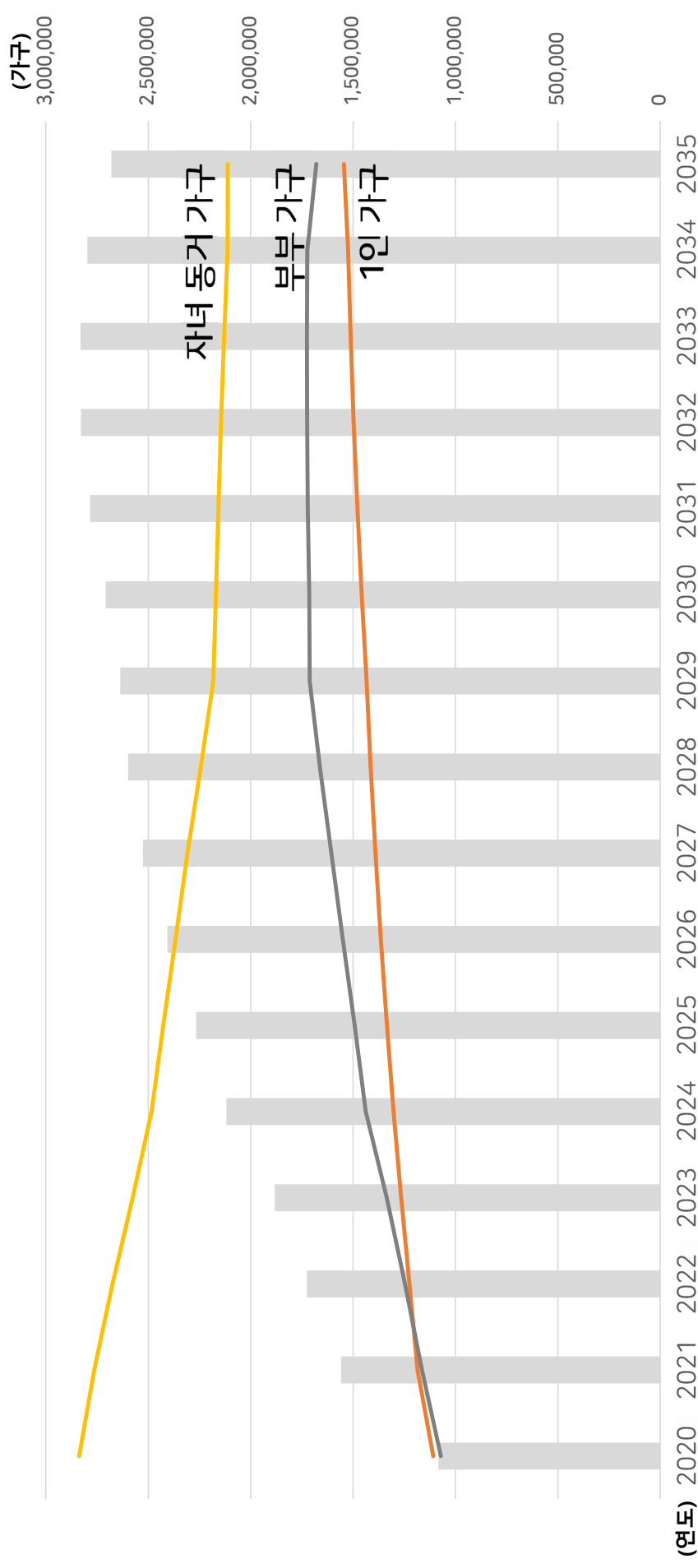
-베이비붐 1세대 가구주 가구 추계 결과 (주요 가구 전체)



연구 결과 - (양적 분석) '베이비붐 1세대의 수요는?'

주요 결과

-베이비붐 1세대 가구주 가구 추계 결과 (주요 가구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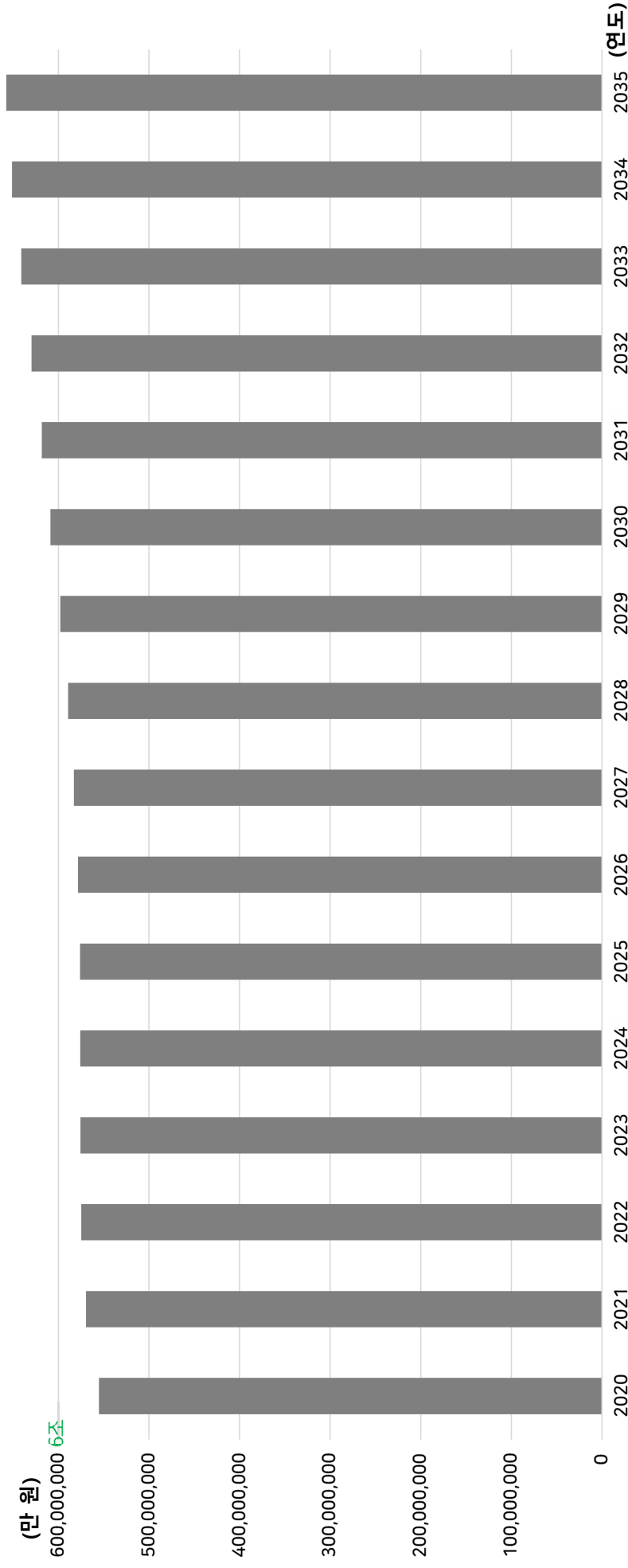


연구 결과 - (양적 분석) '베이비붐 1세대의 수요는?'

주요 결과

-베이비붐 1세대 추정된 가구지출의료비 (주요 가구 전체)

= 의료비(응급, 입원, 외래) 및 처방약 값(응급, 입원, 외래)의 본인 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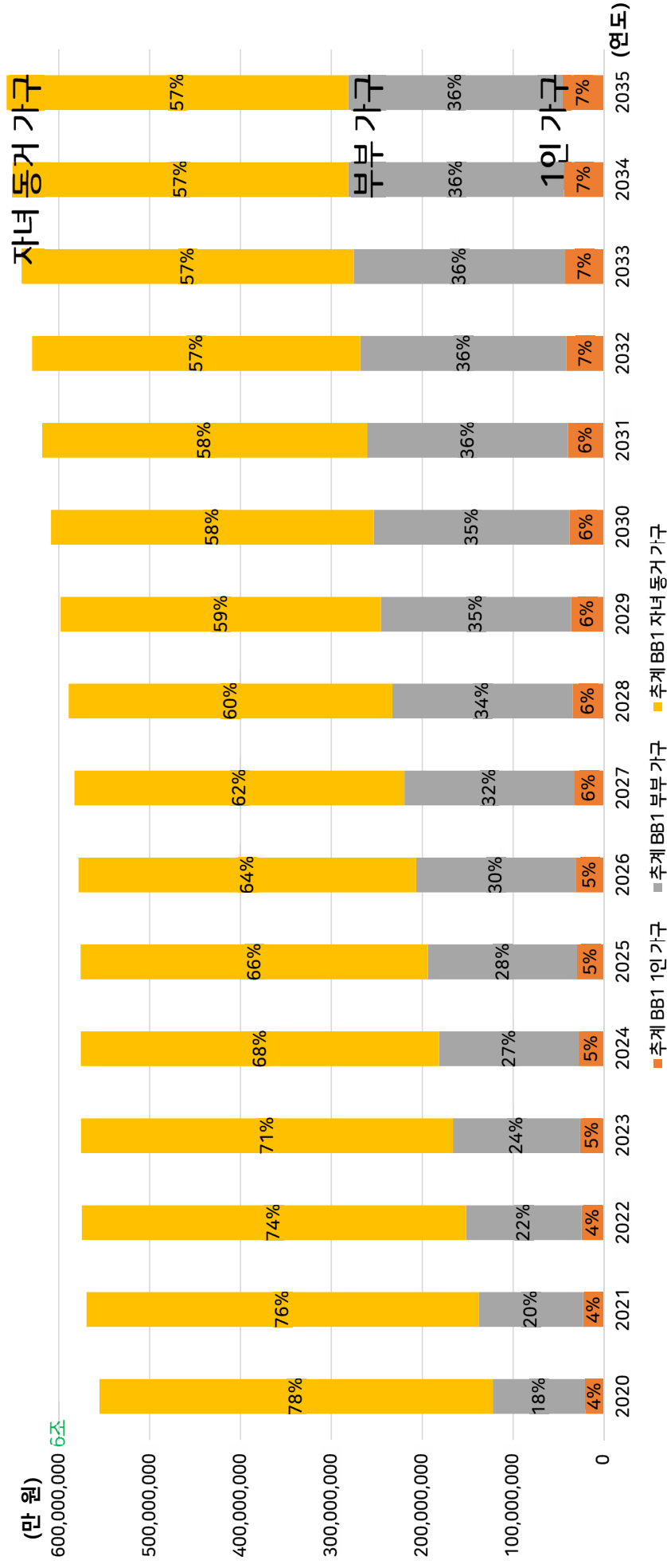


연구 결과 - (양적 분석) '베이비붐 1세대의 수요는?'

주요 결과

-베이비붐 1세대 추정된 가구지출의료비 (주요 가구 전체, 가구 유형 구성별)

= 의료비(응급, 입원, 외래) 및 처방약 값(응급, 입원, 외래)의 본인 부담금



연구 결과 - (양적 분석) '베이비붐 1세대의 수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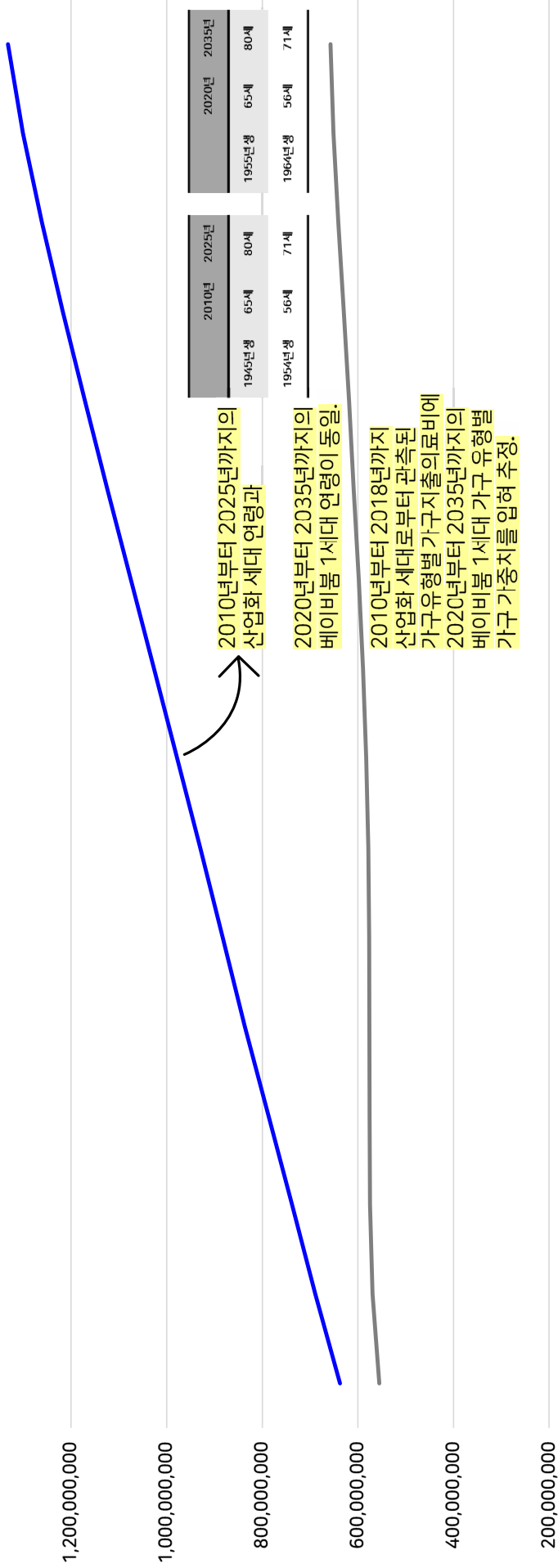
주요 결과

-베이비붐 1세대가 가구지출의료를 산업화세대만큼 썼다면... (주요 가구 전체)

= 의료비(응급, 입원, 외래) 및 처방약 값(응급, 입원, 외래)의 본인 부담금

(만 원)

1,400,000,000 14조



0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연도)

연구 결론 - 절약될 비용



베이비붐 1세대가
그들의 인구/가구 규모로
산업화 세대의 특성을
따라간다면
본인부담금 기준,
약 64조를
더 지출할 것
* 주요 가구 기준

= Save 되는 비용

종합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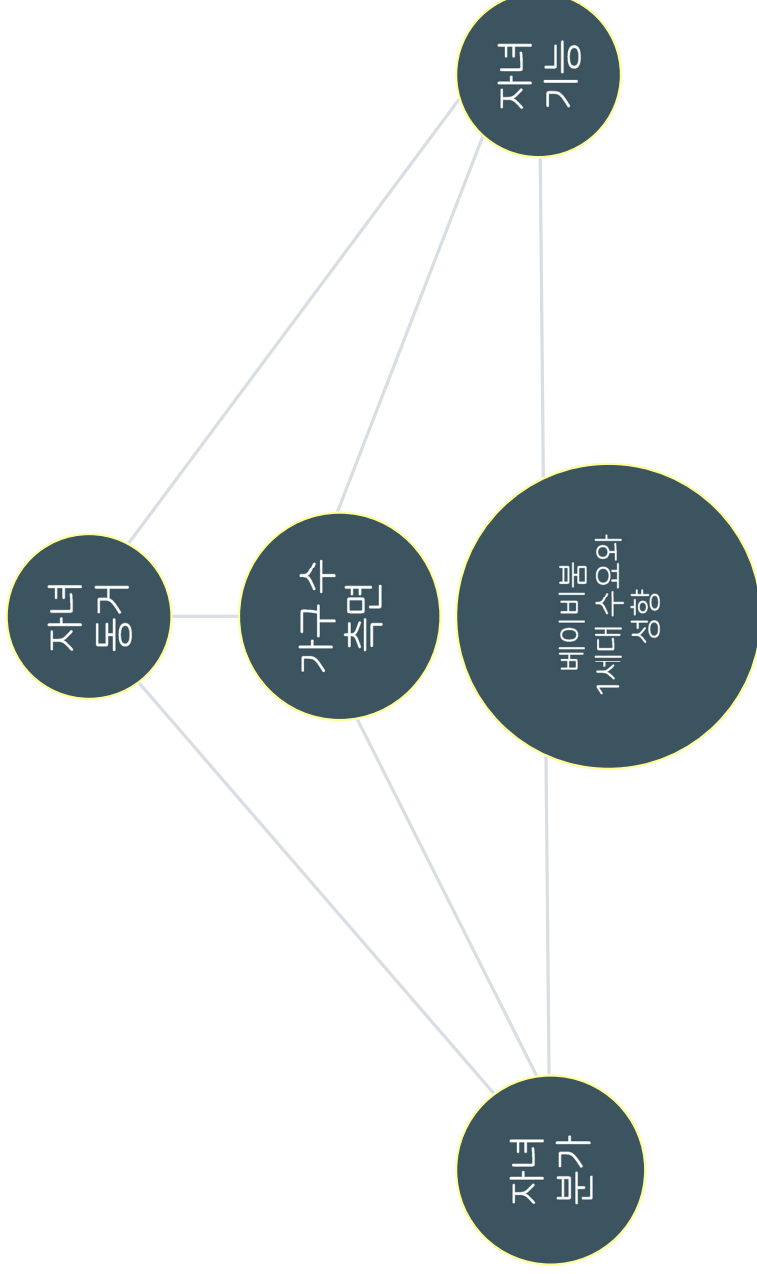
양적 연구의 주요 결론 - '베이비붐 1세대의 코호트 성향'을 유지 시켜라

- 가구주 베이비붐 1세대-가구 수는 이들이 고령자로 편입되면서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임.
 - 그런데, 이들이 산업화세대의 성향을 따라간다면 가구지출의료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것은 증명이 됨.
 - 그래도 다행인 것은 APC 분석을 통해 Age Effect보다는 Cohort Effect가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것으로 발견이 됨.
- Cohort Effect로 베이비붐 1세대의 미래를 예측 해보니, 산업화 세대와 같은 성향을 지녔다고 가정 하였을 때보단, 의료비 가계지출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베이비붐 1세대의 경우 산업화 세대보다 노후 준비도 더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오른쪽 하단 그래프 참조)
- 그렇다면, 정말로 이러한 미래로 전개 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코호트 성향이 최소한은 잘 유지되도록, 더 나아가 강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즉, 베이비붐 1세대의 코호트 성향을 고려한 보건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임.
- 이는 본 연구에서 이미 '질적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관찰 하였음.



중요 결론

양적 연구의 주요 결론 - '베이비붐 1세대의 코호트 성향'을 결정한 인구학적 요소 '자녀'



동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건강 상태", "라이프 스타일" 등에 영향

종합 결론

질적 연구의 주요 결론 - 보건복지 정책 측면에서 베이비붐 1세대의 코호트 성향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야 할까?

1. 이들은 특정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주는 복지를 반가워하지 않는다.
 - 스스로가 진정한 노인이 되었다고 느낄 때 자발적으로 복지를 개시하도록 자율성을 지켜줄 필요가 있어 (e.g. 돌봄 적립제)
 - 혹은 마치 청년 정책이 다방면에서 마련되어 있고 원하는 혜택을 필요에 맞게 신청하여 수혜자가 되는 것처럼
2. 경제활동의 의미가 다양해진 만큼 다양한 이유에서 경제활동을 원한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현금 대가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 산업화세대 9분위 이상과는 다르게 베이비붐 1세대 9분위 이상에서는 빈번한 전제, “돈을 떠나서...”
 - E.g. 추후 내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추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지는 많아
 - “나를 고학력에 사회 경험이 풍부한 ‘나’라는 사람을 이 사회가 그저 충분히 활용하길 바랄 뿐” 베이비붐세대 ㄷ
3.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그 커뮤니티가 반드시 전통적 형태(노인정, 복지관 등)일 필요는 없다.
 - “왜? 난 아직 그런 곳에 갈 정도의 노인은 아니거든.” 베이비붐세대 ㄷ
 - 온라인 커뮤니티(e.g. 네이버 밴드)로 옮겨가는 정황도 포착 (채널의 확대)
 - 동시에, 세대 규모가 큰 만큼 그 안에서의 편차도 커 (채널 접근 경로에서의 차이는 확대 될 수도 있음)

연구 한계점

1인 가구 증가가 매우 크고, 이미 1인가구는 보건복지 수요의 대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출 측면에서는 수치가 잘 안보이네요?

“본 연구 결과 중 가구 별로 가계지출(본인부담금)을 어느 정도 하는지”

Variable	Change percentage (변화율)		
	Adjusted model 2		p-value
	Exp(beta)	(95% CI)	
Intercept	-	-	-
Household type			
Single	1 (reference)		
Married couple	4.77 (4.56, 4.98)		<0.001
Parents with children	5.89 (5.60, 6.19)		<0.001
Others	4.30 (4.09, 4.53)		<0.001
Asset or Income			
Earned income	1.06 (1.05, 1.07)		<0.001
Asset income	1.03 (1.03, 1.04)		<0.001
Household income			

1인 가구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는 별도로 필요하다

- 가계지출(본인부담금)은 1인 가구(Single) 보다, 부부 가구(Married Couple)와 자녀 동거 가구(Parents with Children) 훨씬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 이는 소득과 자산 효과를 통제 하여도 고유한 것으로 나타남.
- 그렇다는 것은 1인 가구가 의료비 지출에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 그렇지는 않아, '본인부담금액'이기에 1인 가구는 '본인부담금액'이 아닌 의료지출비에서 기여도(%)가 높을 수도 있어
- 데이터 접근의 한계(건강보험공단 데이터)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 다루기가 어려움.
- 향후에 복지부에서 진행 해 보아야 할 연구

그러면 산업화 세대 1인 가구와, 베이비붐 1세대 1인 가구는 특징이 결국 비슷하다고 봐야 할까요?

지난 중간 보고에서, 그럴 가능성은 이미 제기, 하지만 → APC 분석을 산업화 세대 / 베이비붐 1세대 각각 1인 가구 별도로 진행 할 필요 있어
이 부분은 오히려 보고서에 보완이 가능한 부분

추가로 진행될 내용은?

복지 분야에서는 “노후 생활 준비 여부”를 예측하고자 함

→ 예측에 활용될 것 중치 값을 도출하기 위한 모델링 완료, 모델링 결과 도출 후 이를 재가공하여 적용 및 예측 값 도출 예정
보고서에 보완 예정

본 연구가 확장 된다면

양적 연구의 향후 활용 방안 - 현재 보건복지 영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추계 작업에 활용

- 현재 보건복지 영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추계 (예, 연금 추계 / 건강 보험 재정 추계 등)
- 이 추계들은 인구 외 요소도 많이 고려 해야 하는 추계이지만, 결국 현재 재정난이 예상 되는 이유는 '인구' 때문
 - 그런데 수요의 단위를 '가구'로 바꾸고, '가구별 Age-Cohort-Period 특성'을 고려한 수요 추계 모형을 사용 한다면, 추계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
 - 어떤 가구에서 향후 지출이 커질지도 알 수 있게 됨.

추계의 단위를 바꾼다고 해서 의미가 있나? 어차피 지출 늘어난 것은 매한가지 인데?

- 맞다. 이러한 방식은 지출이 줄어든다는 추계를 하기 위험이 아니라, '베이비붐 1세대의 코호트 요인을 유지하기 위한'이라는 것과 같이 '정책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데 도움을 줌.
- 게다가 '가구'가 단위이고, 가구의 변동 (Dynamics)과 맥락을 반영했기에 복지 정책의 예방 정책과 마찬가지로 '가족 정책 / 공동체 형성 정책'등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

질적 연구의 향후 활용 방안 - 성향을 설문화 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건복지 영역에서 하고 있는 조사에 반영

- 현재 베이비붐 1세대의 성향을 발굴은 함 > 하지만 이를 양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은 거치지 못하였음
- 추후에 가능하다면 이를 설문 문항화 한 후 > 패널 데이터/ 각종 조사에 활용 하도록 하면 매우 유용 할 것



보건복지부

 **아태인구연구원**